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 경제적 지원과 사회자본의 결합효과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 경제적 지원과 사회자본의 결합효과

책임연구원 : 김선숙(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센터장)

공동연구원 : 권지성(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재진(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선욱(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애(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과장)

조소연(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과장)

연구보조원 : 김수경(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주임)

이지영(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목 차

I. 서론	1
II. 선행연구	3
1.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3
2. 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와 서비스	11
3.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9
III. 연구결과	29
1. 양적연구 결과	29
1) 연구방법	29
2) 자료수집과 분석	29
3) 연구결과	33
4) 연구결과 요약 및 함의	63
2. 질적연구 결과	66
1) 연구방법	66
2) 자료수집과 분석	68
3) 연구결과	69
IV. 결론 및 제언	110
참고문헌	112
부록	117
1. 양적연구 질문지	
2. 질적연구 질문지 및 동의서 양식	

표 목 차

〈표 II-1〉 2019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및 보호조치 현황	3
〈표 II-2〉 2013~2018 보호종료아동 현황	4
〈표 II-3〉 보호조치 후 중간보호종료 사유	5
〈표 II-4〉 자립수준평가 보호종료아동 기초생활수급 현황	6
〈표 II-5〉 보호종료아동 주거 유형	7
〈표 II-6〉 사업개요	20
〈표 II-7〉 연도별 지원현황	21
〈표 II-8〉 연도별 주요 사업 내용	23
〈표 II-9〉 사업의 목적과 목표, 성과지표	24
〈표 III-1〉 조사참여자 특성	35
〈표 III-2〉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수혜경험	39
〈표 III-3〉 민간 지원 및 서비스 수혜경험	42
〈표 III-4〉 보호종료 후 지원받은 서비스 유형(중복응답)	43
〈표 III-5〉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1순위+2순위)	44
〈표 III-6〉 가장 많은 도움을 제공한 기관(중복응답)	45
〈표 III-7〉 보호종료 후 가장 큰 어려움(1순위+2순위)	46
〈표 III-8〉 집단별 차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46
〈표 III-9〉 집단별 차이: 자존감, 공동체의식, 우울	47
〈표 III-10〉 집단별 차이: 행복감	47
〈표 III-11〉 집단별 차이: 사회적지지	48
〈표 III-12〉 집단별 차이: 월소득 및 박탈경험	48
〈표 III-13〉 집단별 차이: 자립생활기술척도(1)	49
〈표 III-14〉 집단별 차이: 자립생활기술척도(2)	49
〈표 III-15〉 집단별 차이: 대학생활경험(1)	50
〈표 III-16〉 집단별 차이: 대학생활경험(2)	50
〈표 III-17〉 집단별 차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및 시간	51
〈표 III-18〉 집단별 차이: 고용형태 및 직장생활만족도	51
〈표 III-19〉 집단별 차이: 진로성숙도	52
〈표 III-20〉 집단별 차이: 학업중단	52
〈표 III-21〉 신체건강	53
〈표 III-22〉 정신건강	54
〈표 III-23〉 자존감	54
〈표 III-24〉 공동체의식	55
〈표 III-25〉 우울	55
〈표 III-26〉 사회적지지	56

<표 III-27> 사회경제적 박탈경험	56
<표 III-28> 아르바이트 경험	57
<표 III-29> 진로성숙도	57
<표 III-30> 신체건강	58
<표 III-31> 정신건강	59
<표 III-32> 자존감	59
<표 III-33> 우울	60
<표 III-34> 사회적지지	60
<표 III-35>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61
<표 III-36> 자립생활기술	62
<표 III-37> 자립생활기술 : 돈 관리 영역	62
<표 III-38> 학업중단 여부	63
<표 III-39> 연구 참여자(아름다운재단 지원)	67
<표 III-40> 연구 참여자(아름다운재단 비지원)	67
<표 III-41> 연구 참여자(실무자)	68
<표 III-42> 사업지원 대상자(장학생과 길잡이) 면접 분석결과-투입	71
<표 III-43> 사업지원 대상자(장학생과 길잡이) 면접 분석결과-과정	72
<표 III-44> 사업지원 대상자(장학생과 길잡이) 면접 분석결과-결과	84
<표 III-45> 아름다운재단 지원/비지원 자립생활경험 비교분석 결과	95
<표 III-46> 실무자 FGI 분석결과	102
<표 III-47>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투입 및 과정, 성과의 관계	106

그림 목 차

[그림 II-1]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3
[그림 II-2]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보호	12
[그림 III-1] 논리모델에 기반한 사업평가	71
[그림 III-2] 실무자 FGI 분석결과	99
[그림 III-3] 투입-과정-성과의 관계	106

I. 서론

해마다 약 2,600명의 청년이 가정 외 보호체계를 떠나 자의건 타의건 홀로 자립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같은 시기 또래 청년들의 경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호가 종결된 아동은 공식적인 지원과 보호체계로부터 떨어져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들은 보호종료 후 원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원가정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태연·최은숙·이세정, 2019). 이로 인해 보호종료아동 중 많은 수는 불안정한 주거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주거비용에 높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아동권리보장원, 2016).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심리·정서적으로도 보호종료 이전부터 보호종료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뿐 아니라, 막상 보호종료 이후에는 실제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혼자 살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경우도 많다(이태연 외, 2019).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는 고립감과 우울,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2016)은 보호종결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또래 청년들보다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경제적 자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개인에게 축적되는 자본이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신지혜·강현아, 2017 재인용). 사회적 자본은 사회 내에서의 신뢰, 개인 및 집단 간의 네트워크, 다양한 조직에서의 참여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한다(김혜연, 2020). 가정 외 보호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의미있는 타인인 주 양육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강현아, 2005; 김경근, 2000; 신지혜·강현아, 2017). 즉, 보호 종료 청년이 보호종료 후,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얻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 보호종료 이후 5년까지는 국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주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책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비 지원의 목적으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자립수당이 이들의 자립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더 구체적인 효과성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보호종료 후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관해 당사자들에게 안내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견인책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

서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의 결합 효과를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정부의 자립수당 지급 이전부터 교육비를 지원해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알아볼 것이다.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참여 청년 간 지지체계 형성과 멘토링 등 프로그램 지원을 병행해왔으며, 이는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인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결합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사업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자립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집단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받았지만 아름다운재단 서비스를 받지 않은 집단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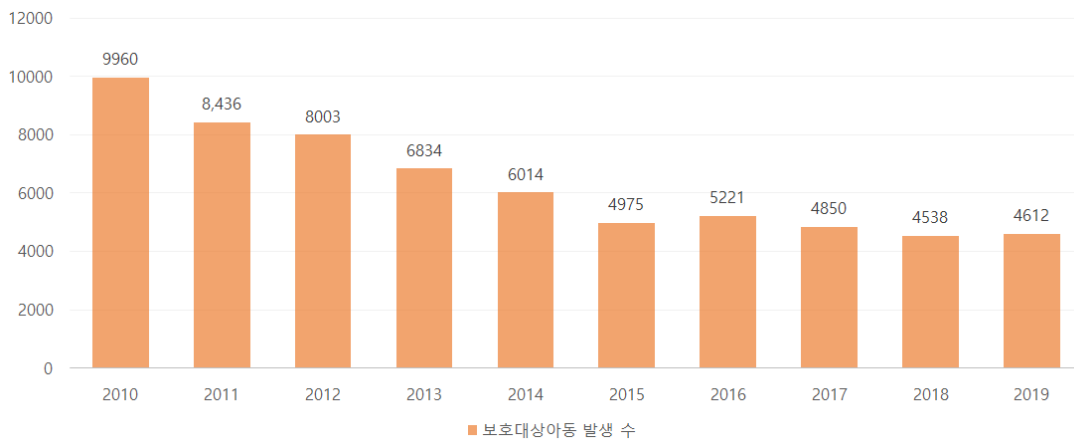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종료아동 대상 통합적 지원 서비스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객관적인 효과 검증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를 통해 양적·질적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의 과제 및 국가 및 민간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 아동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1.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1) 보호종료아동의 이해

보호종료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조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4항). 2019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총 4,612명이며, 보호대상아동은 2010년 10,000여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15년 이후에는 매년 5천명 정도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II-1]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출처 : 보건복지부, 2019,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2019년 보호대상아동 중 귀가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한 565명을 제외한 3,846명은 보호조치 되었다. 보호조치 된 아동 중에는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2,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위탁 된 아동이 1,003명,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동이 625명, 입양된 아동이 104명이었다(보건복지부, 2019).

<표 II-1> 2019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및 보호조치 현황

(단위: 명)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입양
4,612	565	2,114	625	1,003	104

출처: 보건복지부, 2019,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보호조치 후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며, 이런 아동을 ‘보호종료아동’ 이라고 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홀로 독립하게 되며, 대학진학이나 직업훈련, 장애,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내로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2018년 보호종료아동은 총 2,606명이며, 이중 대부분은 만기 퇴소하였고(총 1,558명, 양육시설 754명, 가정위탁 647명, 공동생활가정 157명), 보호가 연장된 경우는 가정위탁 702명, 양육시설 311명, 공동생활가정 35명 있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2018년도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연장사유를 살펴보면,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85.9%)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는 취업준비(5.2%)와 직업훈련(3.6%)에 관한 사유가 많았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평균 2,400여 명이 만기퇴소나 연장의 사유로 보호종료 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국회입법조사처, 2018).

〈표 II-2〉 2013~2018 보호종료아동 현황

(단위: 명)

연도	보호종료 아동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계	만기	연장	소계	만기	연장	소계	만기	연장
2013	2,207	1,065	679	386	85	51	34	1,057	-	-
2014	2,172	1,008	635	373	82	47	35	1,082	-	-
2015	2,677	980	578	402	140	85	55	1,557	793	764
2016	2,703	1,042	673	369	139	74	65	1,522	696	826
2017	2,593	1,034	687	347	153	74	65	1,406	652	754
2018	2,606	1,065	754	311	192	157	35	1,349	647	702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 p.7,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p. 48 재정리.

한편, 만 18세 이전에 일시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보호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며, 양육시설의 경우에는 중간보호종료아동 중 247명 중 87명(35.2%)가 원가정복귀했고 다른 일시대리보호체계로 전원된 사례가 79명(32.0%) 있었다.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97명 중 49명(50.5%)의 아동이 원가정 복귀하고, 25명(25.8%)의 아동이 전원되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표 II-3〉 보호조치 후 중간보호종료 사유¹⁾

(단위: 명, %)

구분	원가정 복귀	입양	가정 위탁	친인척 인계	취업	무단 퇴소	사망	군입대	전원	기타	총계
양육 시설	87 (35.2)	-	1 (0.4)	7 (2.8)	19 (7.7)	3 (1.2)	3 (1.2)	1 (0.4)	79 (32.0)	47 (19.0)	247 (100.0)
공동생 활가정	49 (50.5)	-	2 (2.1)	4 (4.1)	3 (3.1)	-	-	2 (2.1)	25 (25.8)	12 (12.4)	97 (100.0)
합계	136 (39.5)	-	3 (0.9)	11 (3.2)	22 (6.4)	3 (0.9)	3 (0.9)	3 (0.9)	104 (30.2)	59 (17.2)	344 (100.0)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p.53.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만기 퇴소자와 연장보호조치한 사례만을 보호종료아동 수로 산정하고 있다. 의미상 만기 전 중간 퇴소한 아동과 만기 후 퇴소한 사람 모두 보호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만 18세가 지나 일시대리보호체계 밖으로 나온 사람을 보호종료아동으로 정의하고 자립관련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준용하여,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만 18세가 지났으므로, ‘아동’이라는 표현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 합의된 용어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맥락에 따라 부분적으로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되, 대부분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일반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 보호종료아동의 어려움

보호조치된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공식적 보호와 지원은 모두 종결된다. 또래 대부분이 20대까지 집에 머물면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지만, 보호종료아동은 일찍부터 독립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므로 이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인생의 중요한 지위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보호체계를 떠나 홀로 적응해야 하는 두 가지 과업에 부딪힌다(권지성·정선옥, 2009; 양은별·김지혜·정익중·이정희, 2017; Sara, Lisa, and Jeffrey, 2011).

보호종료아동은 실제로 보호종료 후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이들이 자립 후 느끼는 어려움은 취업을 포함한 경제적 문제와 주거, 진로 문제, 원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자원 부족에 관한 것이다(박혜지·이정화, 2020; 장정은·전종설, 2018).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31.1%)이었으며 다음은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감(10.1%), 돈 관리 지식 부족(7.7%) 등의 순이었다(아동자립지원단, 2016; 이태연·최은숙·이세정, 2019).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위탁의 경우, 시스템 입력 시, 중간종료 및 연장사유에 대한 입력 항목이 없음. 이에 가정위탁을 제외하고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만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1) 경제적 어려움

보호가 종결된 아동은 공식적인 지원과 보호체계로부터 떨어져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 후 원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며, 원가정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태연·최은숙·이세정, 2019). 이들 중 많은 수가 일용직에 근무하고, 낮은 학력과 기술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장혜림·이정애·강지연·정익중, 2017), 취업 후에도 이직과 전직이 잦아 고정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다(김예성·이경상, 2015). 오랫동안 시설에 거주하여 많은 정착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정 수입이 생길 때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종료 시 받은 지원금을 금방 소진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않지만, 직계가족의 소득이 인정되어 수급을 못 받는 사례도 있다(이태연·최은숙·이세정, 2019).

보호종료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경우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양육시설 퇴소 아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9.1%에서 34.4%로 증가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4.1%에서 45.1%로, 가정위탁 아동은 3.9%에서 41.5%로 크게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표 II-4〉 자립수준평가 보호종료아동 기초생활수급 현황

(단위: 명, %)

연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14	99(9.1)	8(4.1)	46(3.9)
2015	135(12.3)	24(12.4)	62(5.2)
2016	198(18.1)	26(13.5)	94(7.9)
2017	285(26.1)	48(24.9)	495(41.5)
2018	376(34.4)	87(45.1)	495(41.5)
합계	1,093(100.0)	193(100.0)	1,192(100.0)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2) 주거의 어려움

보호종료아동 중 많은 수는 불안정한 주거에서 살아가고 있다(장혜림 외, 2017). 보호종료 후에 이들은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33.9%로 가장 많았고 월세가 28.1%, 자립지원시설이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주택이나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종료아동 중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57.5%)가 과반수가 넘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16).

〈표 II-5〉 보호종료아동 주거 유형

(단위: 명, %)

구분	공공 영구 국민 임대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자립 지원 시설	그룹 홈	일반 전세	월세 (보 증금 유)	월세 (보 증금 무)	자가	고시 원, 고시 텔	기숙 사	친구 집	친척 집	부모 님집	시설 또는 위탁 가정	기타
전체 빈도	18 (1.7)	368 (33.9)	80 (7.4)	4 (0.4)	41 (3.8)	289 (26.7)	15 (1.4)	14 (1.3)	9 (0.8)	84 (7.7)	23 (2.1)	27 (2.5)	54 (5.0)	17 (1.6)	41 (3.8)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2016,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또한, 보호종료아동 중에는 퇴소 후 살 곳을 찾지 못해 거처를 자주 옮기거나 비슷한 처지의 퇴소 청년끼리 모여서 사는 경우도 있다(장혜림 외, 2017).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어렵게 하지만, 범죄나 비행에 연루되기 쉬운 위험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김예성·이경상, 2015)

(3) 심리·정서적 어려움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부정 정서를 경험한다. 보호종료 후에는 이러한 불안이 현실화되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하기도 한다(이태연 외, 2019). 이들 중 일부는 심리적 고립감을 크게 느끼고, 일상생활 사건에도 잦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호종결아동의 삶의 질 만족도와 행복감은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조사한 비보호아동에 대한 수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우울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6).

특히, 아동이 보호체계 진입 전 원가족과의 관계 문제나 상실감, 시설 생활에서 경험한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소한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해져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기도 한다(박신애·최옥채, 2018; 조소연·노혜련, 2018). 이들에게 시설 출신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은 큰 상처로 남게 되는데, 그런 이유로 시설에서 살면서 외부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아동이 많다. 그러나 독립해서 살아가면서 정부 지원이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시설출신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 때가 있고, 장애인이나 탈북민, 이주민의 경우에는 시설출신이라는 낙인감과 소수자에 대한 이중의 편견을 감당해야 한다(장정은·전종설, 2018; 조소연, 2013). 이런 상황에서 보호종료아동이 타인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3)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자립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이다(표준국어대사전). 자립이란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독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문성호·박지원, 2018), 인간이 정당한 지위를 갖는 사회 일원으로서, 상호의존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자원 활용을 통해,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독립 상태라고 할 수 있다(조규필, 2011). 이처럼 자립의 정의에는 ‘주도성’과 ‘주체성’의 개념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자립한다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 자기 삶을 관리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방향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립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기 의사결정(self-determination)과 선택권(choice-making)을 강조하곤 한다(김홍주·안윤숙, 2020).

보통 자립의 요소는 경제적 자립과 일상생활 자립, 사회적 관계 자립, 정서적 자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자원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기술과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직업적인 준비, 자신이 번 돈을 잘 관리함으로써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관리 기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일상생활 자립을 위해서는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의 습득과 자기관리 능력이 요구되고 사회적 관계 자립은 대인 관계 능력과 사회적 자원을 얻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서적 자립을 구성하는 요소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과 정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성 등이 있다(김정연·하지선·김인숙, 2011).

이런 맥락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도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 상태로 자립의 일반적인 내용과 유사하게 정의할 수 있다(신혜령, 2001). 그러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자립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당장 닥친 현실이다.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은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몇 년에 걸쳐 자립을 준비하지만, 가정 외 보호 아동은 단시간 동안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립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자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 외 보호 아동은 규정에 따라 15세가 되면 개인별로 자립 준비 계획을 세워 퇴소 후를 대비해야 하며, 18세가 되면 보호체계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이태연·최은숙·이세정, 2019). 이들의 자립은 단지 보호체계를 떠나 독립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리·사회·경제적 독립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청소년기 발달과업(자립적 과업)을 성취하며 준비하는 장기적인 과정(허정윤·최순중, 2020)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립을 준비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해야 하며, 많은 시간과 다양한 자원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은 충분히 준비하기도 어렵고, 자립 후에도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신혜령·김성경·안혜영, 2003; 이정애·김시아·김지선·정익중, 2019; 장정은·전종설, 2018).

4)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개념은 Bourdieu와 Coleman을 통해 구축되었고, Putnam은 이 개념을 정치와 문화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Coleman(1988)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며 물적 자본이나 인적자본과 같이 사회적 생산성을 담보하지만, 가시적 실체가 없는 자본이다.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관계망 또는 상호인식과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로 정의하였으며, Putnam(1995)은 개인적이면서 공적인 이익으로, 사회구성원의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조건이나 특성, 혹은 공동이익을 위해 상호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의 특성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다. 학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사회적 자본의 속성은, 사회적 자본이 집단 내 구성원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이를 통해 집단과 개별 구성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활동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사회의 규범과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박희봉, 2009).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관계 속에 내재하는 자본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구분되며(Lin, 2001),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를 규범과 신뢰, 네트워크, 참여로 보고 있다.

OECD(2011)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집단 내부와 집단 간 협력을 향상시키는 규범과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규범과 신뢰, 네트워크, 참여의 네 가지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를 측정 도구로 활용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타인 신뢰가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고(김강호, 2010), 사회적 관계와 참여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김은령, 2013), 규범과 가족관계, 지역주민 신뢰도, 전반적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미조·이준영·최낙현, 2018; 김동현·전희정, 2019; 김창일, 2017; 김혜연, 2011; 문필동, 2017; 박희봉, 2005; 성기호, 2015; 한세희, 2010; 황성호·이희선, 2019). 이런 가운데 Helliwell과 Putnam(2004)는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았고, Helliwell과 Barrington-Leight(2010)는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경제요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요소 중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이다. 신뢰와 주관적 삶의 질은 많은 연구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김창일, 2017; 박희봉·이희창, 2005; 신화경·조인숙, 2015; 이진향·오미옥, 2014; 한세희 외, 2010), Bjørnskov(2006)가 80개 이상 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신뢰가 삶의 만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에서 재인용). 사회적 네트워크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창출하고 소속감과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ichler, 2006). 그리고 네트워크의 유형 중에서도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의 영역 중 가장 큰 영향력이 있으며, 네트워크 존재 뿐 아니라, 상호작용 횟수가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재명 외, 2015; Powdtchavee, 2008).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자본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가정 외 보호 아동은 부모-자녀 간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아, 2005; 김경근, 2005). Coleman(1988)은 가정의 물질적·인적 자본이 부족하여도 사회적 자본이 이를 보충하여 아동의 심리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으며, 일반적으로 가족 내 부모를 포함한 성인 가족의 존재 및 가족과 아동 간 유대와 신뢰는 사회적 자본 창출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여겼다. 그러나 가정 외 보호되는 아동이라도 대리양육자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잘 형성하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남영옥·이상중, 2008), 보호체계 내 주 양육자의 청소년에 대한 태도와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권기남·유안진·민하영, 2002; 유안진·한유진·최나야, 2001). 실제로 시설종사자는 시설청소년과 애착을 형성하고 지지와 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시설종사자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은 청소년의 자립 준비를 위해 긍정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이 보고되기도 했다(김예성·이경상, 2015; 김인아·조인영, 2008; 손혜옥·최외선·이미옥, 2008; 신혜령·김성경·안혜영, 2003; 조기곤·서운, 2009). 그러나 가정 외 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에서 양육자 외의 다른 관계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이 맺는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도 부족하다.

2. 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와 서비스

1) 국내 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와 서비스

국내 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와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서비스와 민간 주도의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1) 국가 지원제도와 서비스

「아동복지법」 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이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39조). 이에 따라 현재,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사업 지원, 자립수당 지원,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립정착금 지원

만18세 이상 보호종결아동의 경우 보호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정착금은 주거비, 비상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자립정착금은 1인당 500만원 정도이며 지자체에 따라 더 많이 지원하는 곳도 있다(보건복지부, 2020). 과거에는 300~500만원까지 지역별로 자립정착금의 차이가 있고 지급 시기도 달라서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균등한 지원과 정보전달의 한계가 있었지만(국가인권위원회, 2019; 허민숙, 2018), 현재는 지역별로 금액과 지급 시기가 유사하게 맞춰진 상황이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복e음(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

② 디딤씨앗통장사업 지원(아동발달지원계좌, 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

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디딤씨앗통장에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또는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에서 일대일 매칭지원금으로 월 5만원까지 저축한 액수만큼을 적립해주며, 이 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후 학자금과 기술자격 훈련 비용, 창업준비,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6).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와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이 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도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더라도 수급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0).



[그림 II-2]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보흐

출처: 보건복지부, 2020,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③ 자립수당 지원

2017년 5월부터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 받은 아동이나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종료된 아동이며, 수당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자립수당은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인정 취소, 시설 재입소,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행방불명, 실종·가출, 자립 목적이 아닌 이유로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하거나 거주 불명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정지된다. 그러나 군대 입대나 해외인턴, 해외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이동 사유가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④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경계선 지적 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인지 장애의 하나로, 지능이 일반인과 지적 장애인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며, 이 경우 암기 능력과 분별력, 인지력 등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숙련도 높은 작업과 전문 기술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외관상 비장애인과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치료나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상황

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타인의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위키백과 홈페이지, 2020 검색).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을 진단받은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에 따라 특화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이러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기도 하다.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경계선지능아동 지도사 양성과정과 보수 교육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대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은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

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통합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아동, 또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아동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 및 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 또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세탁기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기본 물품(1호당 150만원)과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 그러나 정부의 주거지원은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료 및 이자 지불 능력이 있는 취업한 보호종료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미취업 상태의 보호종료아동은 정부의 주거지원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다. 2017년 현재,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은 보호종료아동은 32%, LH주거지원을 받은 보호종료아동은 25%뿐이며, 나머지는 개인부담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허민숙, 2018).

(2) 민간 지원 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민간의 지원 서비스는 현금지원과 주거지원, 교육 제공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

교보생명은 2004년부터 학비와 생활비 조달의 이중고를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당해 연도 입학예정인 신입생 중 시설과 그룹홈에서 성장한 아동이나 저소득층 가정(한부모·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아동 중 매년 총 20명 내외의 청소년을 지원하며, 대학입학부터 졸업 시(8학기)까지 장

학금(학기당 200만원)을 제공한다. 또한, 장학생 커뮤니티인 ‘희망과 다솜’을 운영하고 캠프와 모임을 지원하기도 한다. 2019년부터 대학원 장학금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1기 희망다솜 대학원 장학생 2인을 선발하였으며, 학기당 2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교보교육재단, 2019).

② 삼성전자 희망디딤돌 사업

삼성전자의 ‘희망디딤돌’ 사업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립지원센터인 ‘삼성 희망디딤돌센터’를 자체 건립하고 주거공간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 대구, 강원도, 광주, 구미에 ‘제1기 삼성 희망디딤돌센터’를 건립 추진중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경기,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에 센터를 추가 건립하는 2기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NGO와 협력하여 건립하고 시범 사업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삼성 희망디딤돌센터의 자립생활관은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최대 2년간 제공되는 1인 1실의 주거공간이다. 자립체험관에서는 보호종료 예정인 만 15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미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4-5일간 자립 생활을 체험해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요리와 청소, 기본적인 금융지식, 자산관리, 임대차 계약 등 자립을 위한 교육도 제공한다. 또한, 취업정보 제공, 진로상담, 심리 상담, 인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생활비와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도 한다.

③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 온드림 사업

온드림 사업은 보호종료아동의 통합적 자립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드림 청년사회진출(이하 청사진)’ 사업과 보호종료아동에게 심리지원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드림 숲속 힐링교실’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사진 사업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현대차 정몽구재단, 한국아동복지협회가 협력해서 주거와 교육, 자기계발, 의료지원, 사례관리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을 매년 선발하여 3년 간 거주비와 자기계발비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만들고, 분기별로 교육을 제공하여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한다. 2017년 1기 20명, 2018년 2기 30명, 2019년 3기 30명을 선발해 총 80명을 지원하였다(현대차정몽구재단, 2019).

‘온드림 숲속 힐링교실’은 보호대상 아동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자립역량,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림청 산하 숲체험원이나 치유원에서 2박 3일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립역량강화 교육과 자립선배 특강 등 자립 준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아동권리보장원

과 현대차정몽구재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2019년 현재, 22회에 걸쳐 보호대상아동 및 소외 청소년 등 3,165명이 참여했다(현대차정몽구재단, 2019).

2) 국외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과 서비스

(1) 미국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과 서비스

미국은 아동의 보호조치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단일한 체계로 진행하고 있다. 신고된 아동학대 피해 사례에 대한 접수(reporting)와 스크리닝조사(screening, investigation), 조치·서비스 제공(disposition, service provision)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이상정·류정희·임정미·이주연·노혜련·변미희, 2018.),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도 이러한 체계의 일환으로 제공한다. 또한, 특별히 자립에 관해서는 1999년 「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에 따라, 양육 및 위탁시설 수용 청소년 및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CFCIP: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 위탁시설에서 보호받는 18세 미만 아동과, 16세 이상 입양되었거나 친족의 보호를 받게 되어 위탁시설을 떠난 아동, 만 18세 이상이 되어 위탁시설로부터 자립해야 하는 18-21세 청소년은 CFCIP 기금에 의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 고용, 재정운영, 주거, 정서 지원, 멘토링 등의 활동을 지원받는다(국회입법조사처, 2018). 또한, 연방 정부는 성인이 된 보호종료아동이 부적응으로 다시 시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만 21세까지 기본적인 지원 이외에도 성인기의 다양한 특정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는데(국가인권위원회, 2019),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전환생활 프로그램은 가족·청소년 서비스국(FYSB: Family&Youth Service Bureau)에서 추진하는 16세부터 22세까지의 가출 청소년과 노숙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거주 서비스이다. 1975년부터 미국 정부는 가출 청소년 또는 노숙 청소년들의 필요품을 제공하고,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장려하기 위해 긴급 쉼터를 지원하였으며, 이후, 청소년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필요성에 따라 홈리스 전환생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990년 첫 전환생활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여기에서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시설 제공과 함께 기본적인 일상생활 기술 교육, 교육 기회 제공, 정신건강 관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한다(ACF홈페이지, 2020년 검색).

② 교육훈련 바우처(Educational Training Voucher) 지원

교육훈련 바우처는 미국 내 7개의 Foster Care to Success(FC2S)와 함께 위탁가정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매년 약 600만원(\$5,000)의 장학금을 5년 간, 23세 이전까지 지원하며, 이와 함께 1일대일 멘토링과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한다(FC2S 홈페이지, 2020년 검색). 이 프로그램 주정부 건강과 휴먼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 의해 관리되며, 아동이 다른 주로 이전하게 되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바우처를 제공받게 된다.

③ Youth Build 프로그램

Youth Build 프로그램은 저소득 학업중단 아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기회 제공 및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978년 시작된 이래, 46개 주, 252개 도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기관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아동이 건축 기술을 배워 노숙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주민센터, 놀이터, 학교 등을 설립하는 등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Youth build 홈페이지, 2020년 검색).

(2) 영국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과 서비스

영국은 2000년 「아동보호종료법(Children Leaving Care Act)」을 만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18세 이상 또는 21세 이상(연장보호)의 보호종료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아동과 청년법(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에 따라 지역당국이 보호종료아동에게 교육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개인상담사 지정 제도 지원 대상을 학교 재학생에 한해 25세까지 확대하였다. 2014년에는 「아동 및 가족법(The Children & Families Act)」에 따라 머무르기(Staying Put) 정책을 시행하였으며(HM Government, 2016), 2018년부터 모든 보호종료아동은 25세까지 개인상담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① 개인상담사(Personal Adviser) 지정 제도

영국의 모든 보호종료아동은 25세까지 개인 상담사 지원을 받으며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 청소년의 진로계획, 주거계획, 정서지원 등을 지원하여 성인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개인상담사 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호종료아동이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모든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의 개인상담사가 누구이며 개인상담사와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 알아

야 한다. 지원 형태는 직접 지원 형태도 있고 보호종료아동에게 긍정적 사회관계망을 연결해 주거나 자원을 연계하는 간접적인 방식일 수도 있다.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아동의 향후 진로계획을 검토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 한다(허민숙, 2018;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정부는 효과적인 개인상담사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 및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개인상담사의 훈련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이들은 지방 정부가 지원을 제공한 모든 사례에 관한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 정부는 개인 상담사가 퇴소 청소년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 파악한다(송이은 · 손정연 · 광태희, 2019).

② 장학기금(Busary Fund)

장학기금 사업은 16세부터 19세까지 아동이 영국 내 공립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을 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호종료아동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교육비와 함께 식대와 도서구입비, 의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자유재량 학비지원금(discretionary bursary)이 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장학금은 연간 180만원(£1,20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류비와 도서구입비, 학업과정에서 필요한 도구, 여비 및 점심식대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유재량 기금은 19세 이상이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개별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원해주는 기금이다. 최근 이 사업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아동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기타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영국중앙정부 홈페이지, 2020년 검색).

(3) 일본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과 서비스

일본의 아동보호체계는 전쟁고아를 위한 대책으로 시작되었으며, 사별과 행방불명 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양육될 수 없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양호시설(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적 보호를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가 형성되었다. 일본의 아동보호체계는 크게 시설양육과 가정양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설양육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양육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뜻한다(이상정 · 류정희 · 임정미 · 이주연 · 노혜련 · 변미희, 2018). 일본은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정책의 기본이념을 보호에서 자립지원으로 전환하였으며(신혜령 · 김성경 · 안혜영, 2003), 대표적인 서비스는 리빙케어와 자립원조홈 서비스 이다(이혜연 · 서정아 · 조홍식 · 정익중 · 김귀량, 2007).

① 리빙케어(Leaving care)

리빙케어는 아동복지시설안에서 진행되는 ‘인케어(in care: 시설 내 생활원조지원)’ 종결기부터 사후케어(after care: 시설퇴소후의 자립원조지원) 개시기까지의 자립지원을 의미한다. 리빙케어의 목표는 사회기술의 습득과 종사자와 퇴소를 앞둔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이다. 사회기술은 가스비, 수도료, 전기료 등 지불, 전입신고, 건강보험 가입, 금전관리, 인간관계 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 분야를 포괄한다(鈴木 力, 2005, 이해연 외, 2007 재인용: 55).

② 자립원조홈(立援助ホーム)

자립원조홈은 시설 퇴소 후 취업한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5명에서 20명의 청소년이 입소하여 생활을 지도하는 시설이다(이해연 외, 2007). 최초의 자립원조홈은 1958년 설립된 ‘휴식의 집 애프터케어센터’ 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자립원조홈은 「아동복지법」 제 6조에 근거하며, 자립원조홈의 관리 주체는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이고 운영주체는 지방공공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민법(1896년 법률 제96호),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자립원조홈의 이용아동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7년 현재 516명의 아동이 자립원조홈에서 보호받고 있다(이상정 외, 2018).

3.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²⁾

1) 사업 배경

아름다운재단은 2000년 8월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기를 바라며 전 재산 5000만 원을 기부한 故 김군자 할머니의 취지를 살려 아름다운재단 1호 기금 ‘김군자할머니기금’을 조성하였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의 취지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18세 이후 보호체계를 떠나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아름다운재단 직접사업으로 수행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하였다(아동자립지원단, 2017).

2) 사업개요와 지원현황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목적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들의 학업유지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자립준비 역량강화와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하위 목표로 두고 있다. 사업의 대상은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되거나 연장 보호하는 대학생이며, 지원 규모는 2019년 현재, 연 60명 정도이다. 지원내용은 교육비(학비와 자기개발비)와 학업생활보조비 지원이며, 매년 5명 정도를 선발하여 단기 어학연수를 지원하고 있다(약 700만원). 2019년 기준으로, 교육비 300만원, 학업생활보조비 100만원, 1인당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 지원 외의 추가적인 활동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지지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립정보교육을 제공하고, 작은변화 프로젝트와 길잡이 활동, OT, MT, 홈커밍데이 등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증서 전달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이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자립역량강화 교육이나 지지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경제적 지원이 시작되면,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해 장학생을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작은변화 프로젝트는 2019년 신설한 자치활동으로, 선후배 장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길잡이 활동은 지원 종료한 선배 장학생이 작은변화 프로젝트 팀별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역시 2019년부터 시작되어 총 24명이 참여하였다. 장학생 MT는 지원 대상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며,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자립역량강화 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홈커밍데이는 연중 진행된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선후배 장학생간 지지체계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한다.

2) 본 내용은 아름다운재단에서 발간하는 연간보고서(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작은변화이야기 등)를 참고하여 재정리하였음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기본 1년간 지원하며, 심사를 거쳐 최대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며, 보호종료 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시 성적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아름다운재단, 2020).

〈표 II-6〉 사업 개요(2019년 기준)

프로세스	내용
장학생 선발	홍보모집 ▶ 서류접수 ▶ 적격여부 검토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합격
장학증서 전달식 및 오리엔테이션	· 장학증서 전달식 및 오리엔테이션 · 지원사업 안내, 자립역량강화 교육, 지지체계 형성 프로그램
교육비, 학업생활보조비 지원	· 연중 1인 교육비(등록금, 자기계발비) 300만원, 학업생활보조비 100만원 지원
모니터링을 통한 사례관리	· 전화와 대면상담을 통한 장학생 모니터링 · 장학생 1인별 4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장학생 장학금 사용 확인, 진로, 학업, 생활 상담 등)
단기 어학연수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연 5명 규모 선발 지원 · 캐나다 단기 어학연수 수속비용(왕복항공료, 학비, 숙박비 포함) 및 체류비용 지원
작은변화 프로젝트 (길잡이 활동)	· 1팀당 장학생 6~9명, 길잡이 2~8명으로 구성 · 장학생들의 주도적인 계획 및 실행에 기반하여 각 주제별 팀 프로젝트 활동(기자단, 나눔봉사팀, 디자인팀, 사람책팀, 영상제작팀, 정책제안팀, 프로그램기획팀, 홍보팀) 진행하고 프로젝트별 활동 지원비 지급(100~200만원)
장학생 MT	· 장학생 간 친목 도모, 문화체험, 자립역량강화 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 구성
홈커밍데이	· 선후배 장학생이 모여 연중 진행된 활동을 공유

출처: 아름다운재단, 2020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830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총 379,449,103원이며, 지원금액은 초년도인 2001년 21명에 대해 39,453,530원을 지원한 것에서(1인당 평균 1,878,739원), 2019년 60명에 대해 379,449,103원을 지원하였으며(1인당 평균 6,324,151원), 지난 20년간 사업 대상자의 수와 1인당 지원 규모, 총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아름다운재단, 2020).

〈표 II-7〉 연도별 지원 현황

사업연도	선정인원(명)	지원금액(원)
2001	21	39,453,530
2003	39	142,387,950
2004	58	244,795,984
2005	37	79,948,470
2006	39	92,827,970
2007	37	96,711,460
2008	35	96,265,470
2009	54	121,713,075
2010	65	140,203,522
2011	55	126,913,094
2012	64	157,146,630
2013	21	121,828,425
2014	27	202,679,080
2015	47	397,646,535
2016	51	486,884,870
2017	60	378,442,198
2018	60	409,045,370
2019	60	379,449,103
누적합계	830	3,714,342,736

출처: 아름다운재단, 2020

지원과 관련해 특이한 점은 2017년부터 등록금 실비지원 방식에서 등록금과 학업생활보조비, 자기계발비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범위의 지원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한 후, 지원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2016년에는 51명 선정에 86명이 신청하였지만, 2017년부터는 60명 선정에 2017년 172명, 2018년 202명, 2019년 190명으로 선정 인원 대비 3배수 이상의 높은 신청율을 보이고 있다. 과거 보호종료아동 중 타 재단 등을 통해 등록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아름다운재단의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융통성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자 지원대상의 풀이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이들이 학업을 유지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였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학업을 유지하는 데는 등록금 외에도 학업 생활을 보조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3) 연도별 주요 사업 내용

사업의 진행 과정 중 가장 큰 변화는 등록금 전액을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가 2017년부터 등록금과 학업생활보조비, 자기계발비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했다는 점이며, 이때를 기점으로 경제적 지원 외에 장학생 간 네트워크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아동자립지원단과의 협약으로 기존 아름다운재단 직접 사업에서 협력사업으로 전환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큰 이슈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금액과 방식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014년부터는 최대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업생활보조비로 1인당 100만원(학기당 50만원)을 제공하였다. 2014년 지원금액을 변경한 데는,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른 재단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검토한 배경이 있었다. 사업지속성에 대한 검토 결과, 국가장학금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와 부분적 수혜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 사업의 비전을 수정하여 단순한 등록금 지원에서 장학생들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학업생활보조비 신설로 지원대상자가 미래에 대해 불안감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2017년부터는 등록금 실비가 아니라 교육비(등록금, 자기계발비) 300만원과 학업생활보조비 100만원, 총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2014년 개편안의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국가장학금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등록금 지원방식이 효과적이 않다는 평가에 따라, 자립준비 역량강화와 자기계발 지원 등의 지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다만, 1인당 지원금액은 기존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때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2016년의 경우 연간 등록금 1,000만원(학기당 500만원 이내 실비지원)과 학업생활보조비 100만원(학기당 50만원), 1인당 최대 1,100만원을 지원했지만, 2017년부터는 1인당 최대 40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고 지원인원은 60명으로 일정하게 조정하였다.

한편, 경제적 지원 외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식의 변화도 있었다. 아름다운재단은 사업 초창기부터 매년 장학생 캠프를 진행해 왔고, 2012년부터는 이를 연 2회 자립준비 관련 역량 강화교육으로 대체하면서 캠프를 종결하였다. 이때부터 장학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도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는 ‘꿈 더하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별도 선발인원에 대해 단기 어학연수 기회와 자기주도형 자기계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신규 장학생과 전년도에 선발된 연속지원 장학생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장학생 MT를 진행하였는데, 대학생 특성에 맞는 미션활동, 문화체험, 장학생 전체 회의, 여행 등을 통해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장학생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 자치활동과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사례관리를 수행하였으며, 온라인 모임 활동도 시작하였다. 2017년부터는 경제적 지원 외에 장학생 간 네트워크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을 전환하였다. 구체적으로 장학생 자치활동 지원과 동아리(소모임)지원 등으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2019년 작은변화 프로젝트와 길잡이 활동을 시작하여 장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맺어진 인연을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였다.

운영체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아름다운재단은 공정한 지원과 이용자 중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상황에 따라 사업지원 방식을 변경해왔다. 2015년에는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을 통한 지원방식을 학교에 직접 지급 후 등록금을 감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였고, 지원 신청 시에도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및 장학생 프로그램 활동 참여 의무 관련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2019년에는 교육비 지원방식을 선지급 후 증빙 방식에서 선사용 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장학생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때 장학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액 비용 사용이나 선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직접결제가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두었다. 또한, 지원사업 신청 시 당사자가 시설 담당자의 추천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선정 이후 선정자에 한해 각 기관에 요청하여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낙인감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

〈표 II-8〉 연도별 주요 사업 내용

구분	내용
2001년-2012년	· 아름다운재단 직접사업 수행 · 아동양육시설퇴소 거주 대학생 대상 등록금 지원(1년 간)
2012년	· 아름다운재단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협약 체결
2013년	· 연수교육 2회 진행: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소개, 시간 관리 및 이미지메이킹 특강 등
2014년	· 서울, 부산, 대전, 충청 지역별 자치활동 진행 · 2박 3일 장학생 MT 및 캐나다 단기 어학연수 진행 ·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협약체결: 가정위탁 아동까지 지원대상자 확대
2015년	· 자기계발 프로젝트 지원 · 장학생 MT 및 단기 어학연수 진행
2016년	· 자기계발 프로젝트 지원 · 장학생 MT 및 단기 어학연수 진행 · 나눔의 집 봉사활동
2017년	· 등록금 전액 지원 → 1인당 연 400만원 지원으로 변경 · 장학생 자치활동 지원 : 지역별 자치활동 → 동아리(소모임)활동 지원 · 장학생 MT 및 단기 어학연수 진행 · 장학생 송년의 밤
2018년	· 동아리(소모임)활동 지원 · 장학생 MT 및 단기 어학연수 진행 · 장학생 홈커밍데이 진행
2019년	· 작은변화프로젝트 신설 · 길잡이(선배장학생) 활동 신설

출처: 아름다운재단, 2020

4) 지원사업 성과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내부적으로 양적인 성과와 질적인 성과를 모두 파악하여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기존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름다운재단, 2020).

(1) 양적 성과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목적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자립 도모이며, 학업 유지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자립 준비 역량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도모를 두 가지 하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9〉 사업의 목적과 목표, 성과지표

목적	목표	지표/목표치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자립 도모	1. 학업 유지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0점 이상 향상 - 자기계발 관련 활동 1인 1회 이상
	2. 자립 준비 역량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도모	- 프로그램 설문 만족도 4.0 이상 (5.0만점) - 자립 준비도 척도 점수 향상 - 사회적지지 척도 점수 향상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학업유지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의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0점 이상 향상과 자기계발 관련 활동을 1인당 1회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도모의 목표는 프로그램 만족도(5점 만점)가 4점 이상을 목표로 두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16점으로 10점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자기계발 관련 활동을 1인 2회 이상 수행하였고 프로그램 만족도도 평균 4.67점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교육비 집행율이 97%에 이르렀는데, 이는 1인 평균 약 388만원이 지원된 것이며, 지원의 자기계발비 63.9%, 학업생활보조비 27.2%, 학비 9.4% 순으로 나타나, 자기계발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자치활동은 2회 진행하였으며, 모니터링도 1인 2회 이상 진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9년에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16점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자기계발 관련 활동을 1인 2회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4.57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2019년부터는 역량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도모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립

준비도와 사회적지지 척도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참여자의 자립준비도는 기초선보다 15점, 사회적지지는 22점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질적 성과

본 연구에서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매년 발간하는 연차보고서 활동집을 참고하였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정리된 연차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범주를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 아름다운재단 교육비지원사업 성과는 ‘경제적 지원과 심리지원의 시너지효과’, ‘네트워크 형성 지원’, ‘성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하는 사업’, ‘다양한 자원의 결합’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 지원과 심리지원의 시너지효과

보호종료아동은 보통 생활비나 주거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이정애, 2018). 이들은 자립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시기에 퇴소하게 됨으로써 생활 속에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며, 경제적 부담은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겐 정말 어려운 분야를 공부하니 따라가는 게 벅차거든요. 거기에 성적장학금을 고민하러니 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마음이 무겁고 다급했는데 다른 방법을 둘러볼 만큼 여유가 생겼어요. (아름다운재단, 2017)

돈 모으는 게 쉽진 않았어요. 책 한권 사는 것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몇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강의도 1년짜리는 사본 적 없고요. 그런데 교육비 지원을 받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책을 마음껏 살 수 있구나, 생각하니 정말 좋더라구요(아름다운재단, 2017).

늘 급급하게 쓰니까 체계적인 게 무의미했고요, 개념도 없죠. 운용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원금을 받으니까 무엇에 써야 할지 효율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안경, 신발, 책이 그런 거예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1년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는 거죠. 덕분에 쓰임을 체계적으로 생각하며 가계부도 써요(아름다운재단, 2017).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여유와 기회와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적·심리적 여유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는 장학생 특전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기어학연수 지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작은변화 프로젝트 지원이다. 단기어학연수는 8주간의 캐나다 단기어학연수를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며, 작은변화 프로젝트는 선후배 장학생으로 구성된 주제별 팀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여유가 생겼죠. ‘아 한숨 났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는 게 너무 빠빡했거든요. 계속 일과 학교를 반복하니까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오면 엄마랑 자주 싸웠어요. 교육비 지원을 받고 나서 한 숨 놓게 되니까 부딪치는 일이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직장에서도 잘 할 자신이 생겼어요. (아름다운재단, 2015)

벤쿠버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한국 사람은 도전하는 것, 조금이라도 불안정한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으면서 너무나 동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지만 질 높은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돈만 잘 벌면 취업한 곳에서 계속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벤쿠버를 다녀와서 새까맣게 잊고 있던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2014-2015)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보호종료자기계발의 기회뿐 아니라 자신감·성취감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심리지원의 이중효과가 드러났다.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자립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의 기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계발 및 학업생활 보조는 당연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어렵다고 기회에 있어서조차 차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아름다운재단, 2018).

② 네트워크 형성 지원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시설외 청소년들은 도움을 구할 지지체계가 부족하다. 퇴소 후 시설이라는 보호막을 벗어나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며, 이들은 의지할 대상없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T, 모니터링, 지지체계 형성 프로그램 진행 등 장학생 간 지지체계 형성을 돕는 사업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서로를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창구로도 활용되었다.

자조 모임 같은 것에 부정적이었어요. 소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치활동은 달랐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 오면 일단 배울 게 많았어요.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줘요.(아름다운재단, 2017).

여기 장학금은 서로 만날 자리가 많다는 게 달랠요. 제가 원래 낮은 사람은 경계하거든요. 과 동기에게도 속사정 얘기는 안 해요. 여기서 만난 친구들하고는 통하는 게 있으니까 좋아요. 참 따뜻하고요. 어떤 친구는 주얼리 공모전만 보면 먼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아름다운재단, 2019).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 정책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 시도해보라고 얘기해주는 역할이죠. 반대로 이걸 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난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네는 힘들지 말라고(아름다운재단, 2019).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얻을 뿐 아니라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비슷한 환경에 놓인 또래들을 만나 서로의 지지체계가 되어 소통, 공감하며 함께 성장해 갔다.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던 것. 제 주변에는 자립에 실패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을 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난 것이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아름다운재단, 2015).

그동안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자신만 겪는 슬픔과 아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더는 외딴섬이 아니었습니다. 장학생들과의 소통과 공감은 이내 위로와 격려로 승화하였기 때문입니다(아름다운재단, 2015).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OT나 자치활동은 무척 감명 깊죠. 비슷한 환경의 또래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유익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날만큼은 편안히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고, 서로에게 선한 자극과 포근한 위로도 주고받을 수 있죠(아름다운재단, 2016).

③ 성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사업

아름다운재단은 교육 기회와 경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도 현재의 성적보다는 사람(가능성)을 보는 선발제도를 도입하고, 고통을 드러내기보다 희망을 발굴하려는 관점과 태도로 접근하였다. 즉, 서류심사와 면접 등 선발 과정에서도 성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철학이 드러났으며, 이는 타 지원사업과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볼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장학생들을 많이 존중한다고 봐요. 장학금을 신청하시는 대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조금만 실수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심리적 단절감도 커요. 아름다운재단 장학생들이 시행착오 과정에서도 계속 응원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그래서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아름다운재단, 2018).

장학금을 받아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원해야 할 거 같긴한데.. 반대로 되게 허술하게 쓴 서류를 보면 ‘이 사람은 맨날 떨어지겠구나’ 싶은거죠. 그래서 허술하게 쓴

서류라고 해도 무슨 말을 쓰고 싶었을지 생각하면서 두 번, 세 번 다시 읽어요. 서류 내용은 부실해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아름다운재단, 2018).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장학금 신청자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심사한다라는 느낌보다 이들을 위해 뭘 해야 할 지를 우선 생각하게 되는 거 같아요(아름다운재단, 2018).

아름다운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을 안 봐요. 그래서 모집 기간 동안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저는 성적이 안 되는데 지원해도 되냐’ 고요. 사실 시설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기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아예 지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것인지를 주로 봐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선발하는 거죠(아름다운재단, 2018).

④ 다양한 자원의 결합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다양한 지원이 결합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었다. 대표적으로 나눔의 선순환을 꼽을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장학생들은 나눔의 의미를 인지하게 되었고, 도움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움을 통해 얻게 된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금전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신의 자립 노하우 나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나눔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하는 기쁨을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지원 받은 후 달라진 게 있다면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나눌 게 있다’ 는 자각이예요. 이미 경험한 자립의 노하우를 이제 경험할 사람과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경험으로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걸 앞선 누군가 알려주면 덜 막막할 거 같거든요. 제각각 저마다의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는 공간이 제게 또 다른 꿈을 품게 만들어요(아름다운재단, 2018).

제게는 장학금이 참 많이 힘이 되었어요.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큰 응원으로 느껴졌거든요. 제 기부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 친구도 그런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니, 분명히 느낄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부를 하는 저도 참 기분이 좋고요(아름다운재단, 2018).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줄 때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도 많이 바쁘고, 그래서 나중에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러다 보면 계속 핑계를 찾을 것 같더라고요(아름다운재단, 2019).

III. 연구결과

1. 양적연구 결과

1) 연구방법

양적연구에서는 보호종료 후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수혜 집단(실험집단)과 미지원 집단(통제집단)의 성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서비스 미지원 집단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이외의 기관에서 보호종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지원받았다면, 이들 서비스가 교란변수(confounding variable)로 작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지원도 받지 않은 보호종료 아동들로 집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자립정착금, 국민기초생활급여, 국가장학금, 주거지원 등)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연간 교육비 및 학업생활보조비 등 경제적 지원 외에도 자립역량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자립정보 교육, 작은변화프로젝트, 길잡이활동, OT, MT, 홈커밍데이 등)가 제공되며, 연간 5명을 별도 선발하여 단기 어학연수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는 등, 보호종료 아동들의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거지원과 현금지원 등 물리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함께 결합된 아름다운재단의 교육비 지원사업이 차별화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물리적 지원만 제공받은 경우와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보호종료 이후 이들의 삶의 질과 자립현황, 심리사회적 적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양적 연구를 포함한 전체 연구과정은 연구진 중 한 명이 재직 중인 대학을 통해 IRB 승인이 이루어졌다.

2) 자료수집과 분석

(1) 자료수집 과정

자료수집은 대면조사를 우선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보호종료 아동 대상 설문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내 자립지원단의 협조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458명(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 참여 226명, 미참여 232명)의

명단을 제공받았다. 온라인 조사링크를 구축한 후, 조사참여자들에게 메일 및 문자를 발송하여 조사참여를 부탁하였다. 조사를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보상으로 제공되었다.

조사기간은 2000년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최초의 질문지 발송 후, 8월 말까지는 약 3~4일의 간격을 두고, 연구참여를 독려하는 3차례의 전화와 메일 및 문자 발송이 이루어졌다. 9월 1일에 조사기간을 9월 6일까지 연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미완료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조사참여 메일 및 문자를 발송하였고, 9월 2일과 9월 3일 다시 한 번 조사참여를 독려하는 메일과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9월 3일은 4번째로 조사참여를 독려하는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이후 9월 4일 최종 메일과 문자를 발송한 결과, 9월 6일까지 아름다운재단 서비스 참여 대상자 123명과 비참여 대상자 163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총 286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원래 목표했던 300명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연구일정에 대한 고려 및 여러 차례의 조사참여 독려에도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추가로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설문조사를 종료하였다.

(2) 설문구성 및 측정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구성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독립변수

- 서비스집단: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집단(1)과 미지원 집단(0)으로 구분하였다.
- 서비스 기간: 서비스 집단 내에서 서비스를 받은 총 기간을 개월로 측정하였다.

② 종속변수

조사참여자들의 보호종료 후 적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각각에 대해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를 4점 척도(1=매우 나쁘다, 4=매우 좋다)로 측정하였다. 세부문항으로는 ‘귀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귀하의 정신적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가 있다.
- 자아존중감: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s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 문항을 역코딩하

- 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공동체 의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등 총 5개 문항을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우울: 우울은 역학연구센터(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의 단축형 우울척도(CESD-10)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세부문항은 ‘우울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등이 있으며 총 10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1=극히 드물게, 4=거의 대부분)로 측정이 이루어졌다. 긍정적 문항들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행복감: 행복감은 최근 2주간의 행복감과 지금까지의 인생에 대한 행복감 2가지를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행복했었나요?’,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단일문항 11점 척도(0=전혀 행복하지 않다, 10=매우 행복하다)로 측정하였다.
 - 사회적 지지: Zimet 등(1988)의 다차원적 사회적 지지척도(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다차원적 사회적 지지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세부문항으로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와줄 특별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으로부터 얻는다.’, ‘내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등이 있다. 원척도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응답의 편의성을 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 사회경제적 박탈경험: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은 주거, 교육, 건강 및 의료, 사회적 박탈, 사회보장, 식생활 등의 영역에서 총 9개 항목에 대해 결핍(박탈)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각 항목에 대해 박탈경험이 있는 경우를 1, 그 외의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합산하였다. 세부문항으로는 ‘돈이 없어서 2개월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돈이 없어서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스 등이 끊긴 적이 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등이 있다.
 - 자립생활기술: 보호종료 이후 자립생활기술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리보호를 받는 요보호 아동의 독립생활준비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Casey Family Programs의 ACLSA 척도(자립 및 독립생활기술척도: Ansell-Casey Life Skills Assessment)를 수정보완한 척도(신혜령 외, 2006)를 사용하였다. 자립생활기술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일상생활

기술, 자기보호기술, 돈관리 기술,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 사회적 기술, 취업 및 직장기술의 6개 하위영역기술로 구분되며, 하위영역별 4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문항으로는 ‘필요한 물건을 경제적으로 쇼핑하는 방법을 안다.’, ‘필요한 음식 만들기와 조리기구의 사용법을 안다.’, ‘감기나 간단한 상처의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결혼의 의미와 배우자의 책임에 대해 알고 있다. ‘ 등이 있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대학생활 경험: 대학생활 경험은 ‘대학생활 전반이 만족스럽다’, ‘선택한 학교가 만족스럽다’,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 등 총 8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모두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8개 항목 중 부정문을 통해 측정한 5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대학생활 경험을 의미한다.
- 직장생활만족도: 직장생활만족도는 ‘현재의 직장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라고 묻는 단일문항 4점 척도(1=매우 불만족, 4=매우 만족)로 측정하였다.
-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에서 활용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부문항으로는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내 직업을 정해주기를 원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좋다.’ 등이 있다. 각각의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부정적인 문항들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학업중단 여부: 학업중단 여부는 2년제 및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있는 조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졸업이나 재학 중인 경우(0)와 중퇴 및 휴학 중인 경우(1)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③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조사대상자의 보호종료 후 적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들로, 인구학적 변수, 보호관련 변수, 정부 및 지자체 서비스 지원 변수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소득을 투입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0’ 으로 코딩하였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이하, 대학원 재학이상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월소득은 왜도와 첨도값이 기준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로그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 보호관련 특성: 보호유형은 아동양육시설(1)과 그 외 유형(그룹홈, 가정위탁, 기타)(0)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고, 보호기간은 보호종료 전 보호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투입하였다.
- 정부 및 지자체 서비스 지원: 보호종료 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은 퇴소시 자

산, 현금지원, 주거지원 수혜 여부를 투입하였다. 퇴소 시 자산은 보호종료 시 받은 자립지원금과 디딤씨앗통장(CDA), 후원금 등 현금성 자산의 총합을 만원 단위로 측정하여 투입하였으며, 현금지원은 자립수당, 기초생활급여, 주거지원통합서비스(사례관리비 포함) 중 하나라도 받은 경우(1)와 받지 않은 경우(0)로 구분하였고, 주거지원 또한 공동생활가정입주, 자립생활관 입주, 정부지원 공공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중 한 개 이상 받은 경우(1)와 받지 않은 경우(0)로 구분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기술분석 및 서비스 집단과 미지원 집단의 차이에 대한 카이검증 및 t-test가 이루어졌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서비스 수혜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학력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보호종료 전 보호유형과 보호기간, 보호종료 시 자산정도, 보호종료 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현금지원과 주거지원 수혜여부를 통제된 상태에서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수혜여부에 따른 차이를 회귀분석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에 투입한 변수들은 정규성(normality) 및 다중공선성에 대한 확인을 거쳐 모형에 투입되었다. 또한 서비스 집단 내에서 서비스 지원기간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비스 지원기간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 특성

조사참여자의 특성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전체 조사참여자 중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실험집단이 123명, 지원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이 162명이었다. 각 집단별로 참여자 특성을 보면, 조사참여자 중 여성이 전체 52.3%로 약간 더 많았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은 두 집단 모두 20~24세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집단별로 보면 실험집단은 25세 이상이 46.3%를 차지하는 반면, 통제집단은 19세 이하가 14.9%를 차지하여 평균연령이 실험집단에서 더 높았으며, 집단 간 연령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각 24.4세와 21.8세). 최종학력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실험집단은 2명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가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를 진학한 경험이 있었으며, 대학원 재학 중이라는 응답도 7명이었다. 이는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대학생이기 때문이다. 반면, 통제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40% 이상을 차지하여,

학력면에서 두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호종료 당시 보호유형은 아동양육시설이 66.0%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위탁가정(21.4%), 공동생활가정(7.7%)의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조부모집 및 친척집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보호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보호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과반수(56.3%)를 차지했으며, 10년 미만이 30.3%, 20년 이상이 13.4%를 차지했다. 집단별로는 실험집단의 평균 보호기간은 11.8년인 반면, 통제집단은 13.1년으로 통제집단의 보호기간이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호종료의 유형은 두 집단이 차이를 보였는데, 실험집단은 연장종료가 59.3%로 가장 많은 반면, 통제집단은 만기종료가 5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대학생이므로,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대상자들이 연장종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중도퇴소는 전체의 2.1%(6명)로 소수였으며, 중도퇴소 사유로는 6명 중 4명이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어 중도퇴소했다고 응답했다.

현재 근로여부는 취업 중인 응답자가 44.6%였으며, 취업준비 및 구직 중이라는 응답도 27.4%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중이라는 응답은 15.1%였으며, 기타 응답은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중, 육아 중 등으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부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1> 조사참여자 특성

구 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계
성별	남성	63(51.2)	73(45.1)	136(47.7)
	여성	60(48.8)	89(54.9)	149(52.3)
	카이자승값	1.063		
연령	19세 이하	0(0.0)	24(14.9)	24(8.4)
	20~24세	66(53.7)	120(74.0)	186(65.3)
	25세 이상	57(46.3)	18(11.1)	75(26.3)
	평균(표준편차)	24.4(1.9)	21.8(1.9)	22.9(2.3)
	t값	11.424***		
학력	무학	0(0.0)	2(1.2)	2(0.7)
	중학교 졸업 이하	0(0.0)	1(0.6)	1(0.4)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6)	64(39.5)	66(23.2)
	전문대학 졸업 이하	27(22.0)	46(28.4)	73(25.6)
	대학교 졸업 이하	87(70.7)	47(29.0)	134(47.0)
	대학원 재학	7(5.7)	2(1.2)	9(3.2)
	카이자승값	77.011***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80(65.0)	108(66.7)	188(66.0)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4(11.4)	8(4.9)	22(7.7)
	위탁가정	26(21.1)	35(21.6)	61(21.4)
	기타	3(2.4)	11(6.8)	14(4.9)
	카이자승값	12.702		
보호기간	10년 미만	46(37.4)	40(24.8)	86(30.3)
	10~20년미만	61(49.6)	99(61.5)	160(56.3)
	20년 이상	16(13.0)	22(13.7)	38(13.4)
	평균(표준편차)	11.8(6.0)	13.1(6.0)	12.6(6.0)
	t값	-1.828		
보호종료 유형	만기종료	43(35.0)	85(52.5)	128(44.9)
	연장종료	73(59.3)	73(45.1)	146(51.2)
	중도퇴소	4(3.3)	2(1.2)	6(2.1)
	기타	3(2.4)	2(1.2)	5(1.8)
	카이자승값	9.489*		
근로여부	대학진학준비	5(4.1)	24(8.6)	19(6.7)
	취업준비 및 구직	37(30.1)	41(25.3)	78(27.4)
	아르바이트	17(13.8)	26(16.0)	43(15.1)
	취업	59(48.0)	68(42.0)	127(44.6)
	기타	5(4.1)	12(8.0)	18(6.3)
	카이자승값	5.308		
계		123(100.0)	162(100.0)	285(100.0)

* p<.05, *** p<.001

(2)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참여자들의 자립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을 조사하였다. 자립지원서비스는 정부와 지자체(자립지원단 포함)에서 제공하는 정책과 아름다운재단을 포함, 민간기관/기업/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분된다.

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수혜경험

먼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수혜경험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립정착금은 실험 집단의 경우 받음(80.5%)으로 응답한 경우가 받지 않음(19.5%)보다 많았다. 통제집단 또한 받음(92.6%)이 받지 않음(7.4%)보다 많았다. 자립정착금 수혜경험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9.283, p < .01$).

CDA의 수혜경험을 살펴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받음이 84.6%와 82.7%로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받지 않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각각 15.4%와 17.3%였다. CDA의 수혜경험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정착금과 CDA는 보호종료 시 일회성으로 제공받는 현금 지원인 반면, 종료 후 지원 받을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는 자립수당과 국민기초생활급여, 국가장학금(대학 진학 시) 지원 등이 있다.

자립수당은 실험집단의 경우 받은 경험 없음이 65.0%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받고 있음(22.8%), 과거 받은 경험 있음(12.2%)의 순이었다. 통제집단의 경우 현재 받고 있음이 60.5%로 가장 높았으며, 받은 경험 없음(26.5%), 과거 받은 경험 있음(13.0%)의 순이었다. 자립수당을 과거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12.6%를 차지하며 수혜기간 평균은 7.2개월(S.D=5.1)이다. 현재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44.2%이며, 수혜기간 평균은 9.6개월(S.D=5.4)이다. 자립수당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chi^2 = 46.554, p < .001$).

국민기초생활급여는 실험집단의 경우 과거 받은 경험 있음(46.3%)이 가장 높았으며, 현재 받고 있음(36.6%), 받은 경험 없음(17.1%)의 순이었다. 통제집단은 받은 경험 없음과 과거 받은 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35.8%로 동일하였으며, 현재 받고 있음(28.4%)이 가장 낮았다. 국민기초생활급여를 과거 받은 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40.4%이며, 수혜기간 평균은 71.3개월(S.D=55.7)이다. 현재 받고 있음은 전체의 31.9%이며, 수혜기간 평균은 56.3개월(S.D=61.0)이다. 국민기초생활급여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12.241, p < .01$).

국가장학금의 경우 실험집단은 과거 받은 경험 있음(74.8%)으로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현재 받고 있음(36.6%), 받은 경험 없음(17.1%)의 순이었다. 통제집단은 과거 받은 경험 있음(42.0%)이 가장 높았으며, 받은 경험 없음(40.7%), 현재 받고 있음(17.3%)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국가장학금을 과거 받은 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56.1%)를 차지했으며, 수혜기간 평균은 4.9학기(S.D=2.7)이다. 현재 받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18.2%이고 수혜기간 평균은 4.7학기(S.D=3.0)이다. 국가장학금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47.138, p < .001$).

한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으로는 공동생활가정 입주, 자립생활관 입주, 정부지원 공공주택이 있으며, 주거지원과 사례관리가 함께 제공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있다.

공동생활가정 입주의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받은 경험 없음이 88.2%와 93.8%로 가장 높았다. 실험집단은 과거 받은 경험 있음(8.9%), 현재 받고 있음(2.4%)의 순이었으며, 통제집단은 현재 받고 있음(4.3%), 과거 받은 경험 있음(1.9%)의 순이었다. 공동생활가정입주 전체 응답을 보면 받은 경험 없음이(91.6%) 대부분이었으며, 과거 받은 경험 있음이 4.9%, 현재 받고 있음이 3.5%를 차지한다. 과거 받은 경험이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수혜기간 평균은 29.0개월(S.D=19.7)이며, 현재 받고 있음의 경우 13.6개월(S.D=13.2)이다. 공동생활가정 입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8.070, p < .05$). 자립생활관 입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받은 경험 없음이 87.8%와 80.9%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받고 있음이 4.1%와 9.3%로 가장 낮았다. 과거 받은 경험 있음은 각 8.1%와 9.9%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과거 받은 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9.1%이며, 수혜기간 평균은 18.4개월(S.D=16.5)이다. 현재 받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7.0%를 차지하며, 수혜기간 평균은 13.1개월(S.D=15.9)이다. 자립생활관입주 수혜경험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공공주택의 경우 실험집단은 현재 받고 있음(51.2%)이 가장 높았으며, 받은 경험 없음(41.5%), 과거 받은 경험 있음(7.3%)의 순이다. 통제집단은 받은 경험 없음이 64.2%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받고 있음(39.3%), 과거 받은 경험 있음(6.3%)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과거 받은 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6.3%이며, 수혜기간 평균은 28.9개월(S.D=30.6)이다. 현재 받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39.3%를 차지하며, 수혜기간 평균은 31.8개월(S.D=33.7)이다. 정부지원 공공주택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4.813, p < .01$).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받은 경험 없음이 83.7%와 85.8%로 가장 높았으며, 과거 받은 경험 있음이 4.1%와 2.9%로 가장 낮았다. 현재 받고 있음의 경우 각 12.2%와 12.3%를 차지했다. 과거 받은 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전체 중 2.8%이며, 수혜기간 평균은 31.6(S.D=26.4)이다. 현재 받고 있음의 경우 수혜기간 평균은 12.3(S.D=13.3)이다.

이외에도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은 실험집단의 경우 모두 받은 경험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통제집단에서도 과거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명(0.6%)에 불과했다.

바람개비 서포터즈(멘토)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참여 경험 없음이 87.8%와 98.1%로 가장 높았다. 실험집단은 과거 참여 경험 있음(7.3%), 현재 참여 중임(4.9%)으로 통제

집단(1.9%)에 비해 참여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바람개비 서프터즈 멘토로 과거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이며, 참여기간 평균은 19.5개월(S.D=20.4)이다. 현재 참여 중인 경우는 2.1%이며, 참여기간 평균은 39.3개월(S.D=24.9)이다.

바람개비 서프터즈(멘티)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참여 경험 없음이 95.1%와 98.8%로 가장 높았으며, 과거 참여 경험 있음의 경우 각 3.3%와 1.2%를 차지하였다. 현재 참여 중인 대상자는 실험집단에만 2명(1.6%)으로 소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바람개비 서프터즈 멘토로 과거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2.1%이며 참여기간 평균은 7.2개월(S.D=5.3)이다. 현재 참여 중인 경우는 0.7%이며, 참여기간 평균은 18.5개월(S.D=24.7)이다.

기타 서비스로는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후원자와의 만남, 아산재단 장학재단, 초록우산재단 등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응답하여 정부 및 지자체 지원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수혜경험

단위: 명(%), 개월

구 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계	수혜기간 평균 (SD)
자립 정착금	받음	99(80.5)	150(92.6)	249(87.4)	-
	받지 않음	24(19.5)	12(7.4)	36(12.6)	-
	카이제곱값	9.283**			
CDA	받음	104(84.6)	134(82.7)	238(83.5)	-
	받지 않음	19(15.4)	28(17.3)	47(16.5)	-
	카이제곱값	.171			
자립수당	받은 경험 없음	80(65.0)	43(26.5)	123(43.2)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15(12.2)	21(13.0)	36(12.6)	7.2(5.1)
	현재 받고 있음	28(22.8)	98(60.5)	126(44.2)	9.6(5.4)
	카이제곱값	46.554***			
국민기초 생활급여	받은 경험 없음	21(17.1)	58(35.8)	79(27.7)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57(46.3)	58(35.8)	115(40.4)	71.3(55.7)
	현재 받고 있음	45(36.6)	46(28.4)	91(31.9)	56.3(61.0)
	카이제곱값	12.241**			
국가 장학금	받은 경험 없음	7(5.7)	66(40.7)	73(25.6)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92(74.8)	68(42.0)	160(56.1)	4.9학기(2.7)
	현재 받고 있음	24(19.5)	28(17.3)	52(18.2)	4.7학기(3.0)
	카이제곱값	47.138***			
공동생활 가정입주	받은 경험 없음	109(88.2)	152(93.8)	261(91.6)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11(8.9)	3(1.9)	14(4.9)	29.0(19.7)
	현재 받고 있음	3(2.4)	7(4.3)	10(3.5)	13.6(13.2)
	카이제곱값	8.070*			
자립생활 관 입주	받은 경험 없음	108(87.8)	131(80.9)	239(83.9)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10(8.1)	16(9.9)	26(9.1)	18.4(16.5)
	현재 받고 있음	5(4.1)	15(9.3)	20(7.0)	13.1(15.9)
	카이제곱값	3.323			
정부지원 공공주택	받은 경험 없음	51(41.5)	104(64.2)	155(54.4)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9(7.3)	9(5.6)	18(6.3)	28.9(30.6)
	현재 받고 있음	63(51.2)	49(30.2)	112(39.3)	31.8(33.7)
	카이제곱값	14.813**			
계		123(100.0)	162(100.0)	285(100.0)	

구 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계	수혜기간 평균 (SD)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	받은 경험 없음	103(83.7)	139(85.8)	242(84.9)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5(4.1)	3(2.9)	8(2.8)	31.6(26.4)
	현재 받고 있음	15(12.2)	20(12.3)	35(12.3)	12.3(13.3)
	카이자승값	N/A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받은 경험 없음	123(100.0)	161(99.4)	284(99.6)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0(0.0)	1(0.6)	1(0.4)	12.0(-)
	현재 받고 있음	0(0.0)	0(0.0)	0(0.0)	-
	카이자승값	N/A			
바람개비서 포터즈 (멘토)	참여 경험 없음	108(87.8)	159(98.1)	267(93.7)	-
	과거 참여 경험 있음	9(7.3)	3(1.9)	12(4.2)	19.5(20.4)
	현재 참여 중임	6(4.9)	0(0.0)	6(2.1)	39.3(24.9)
	카이자승값	N/A			
바람개비서 포터즈 (멘티)	참여 경험 없음	117(95.1)	160(98.8)	277(97.2)	-
	과거 참여 경험 있음	4(3.3)	2(1.2)	6(2.1)	7.2(5.3)
	현재 참여 중임	2(1.6)	0(0.0)	2(0.7)	18.5(24.7)
	카이자승값	N/A			
기타 서비스	참여경험 없음	115(93.5)	157(96.9)	272(95.4)	-
	참여경험 있음	8(6.5)	5(3.1)	13(4.6)	-
	카이자승값	1.876			
계		123(100.0)	162(100.0)	285(100.0)	

* p<.05, ** p<.01, *** p<.001

② 민간지원 서비스 수혜경험

민간지원서비스의 수혜경험은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외에, 교보생명의 희망다솜 장학사업, 숲 속 힐링교실, 온드림 청사진 사업, 아름다운 가게 보육원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가게, SOS 자립생활관 입주, 중앙아동청소년 자립통합사업 등에 대한 수혜여부를 질문하였다.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의 경우 서비스 집단은 과거 받은 경험 있음이 85.4%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받고 있음(8.9%), 받은 경험 없음(5.7%)의 순이었다. 미지원 집단의 경우 받은 경험 없음이 92.6%로 가장 높았으며 과거 받은 경험 있음(5.6%), 현재 받고 있음(1.9%)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과거 받은 경험이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40.0%이며, 수혜기간 평균은 17.3개월(S.D=9.5)이다. 현재 받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4.9%이며, 수혜기간 평균은 16.5(S.D=5.9)이다. 미지원 집단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서비스 수혜경험이 없는 대상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 12명이 지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응답자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재단 단기 어학연수는 서비스 집단과 미지원 집단 모두 받은 경험 없음이 77.2%와 99.4%로 가장 높았다. 과거 받은 경험 있음은 각 22.8%와 0.6%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 중 과거 받은 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10.2%이며 수혜기간 평균은 7.2개월(S.D=11.8)이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어학연수가 진행되지 못하여 현재 받고 있음이 0으로 나타났다.

연구설계단계에서 미지원 집단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외에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은 대상자들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들(N=15)이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므로, 다른 민간서비스에 의한 교란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표본에서 제외(nn=15)하고 전체 270명에 대하여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3〉 민간 지원 및 서비스 수혜경험

단위: 명(%), 개월

구 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계	수혜기간 평균 (SD)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	받은 경험 없음	7(5.7)	150(92.6)	157(55.1)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105(85.4)	9(5.6)	114(40.0)	17.3(9.5)
	현재 받고 있음	11(8.9)	3(1.9)	14(4.9)	16.5(5.9)
	카이자승값	214.339***			
아름다운재단 단기 어학연수	받은 경험 없음	95(77.2)	161(99.4)	256(89.8)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28(22.8)	1(0.6)	29(10.2)	7.2(11.8)
	현재 받고 있음	0(0.0)	0(0.0)	0(0.0)	-
	카이자승값	37.519**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	받은 경험 없음	121(98.4)	161(99.4)	282(98.9)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2(1.6)	1(0.6)	3(1.1)	45.0(0.0)
	현재 받고 있음	0(0.0)	0(0.0)	0(0.0)	-
	카이자승값	N/A			
숲 속 힐링교실	받은 경험 없음	123(100.0)	156(96.3)	279(97.9)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0(0.0)	6(3.7)	6(2.1)	4.5(6.1)
	현재 받고 있음	0(0.0)	0(0.0)	0(0.0)	-
	카이자승값	N/A			
온드림 청사진	받은 경험 없음	118(95.9)	161(99.4)	279(97.9)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1(0.8)	0(0.0)	1(0.4)	15.0(-)
	현재 받고 있음	4(3.3)	1(0.6)	5(1.8)	25.2(6.7)
	카이자승값	N/A			
아름다운 가게 보육원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가게	받은 경험 없음	118(95.9)	159(98.1)	277(97.2)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5(4.1)	0(0.0)	5(1.8)	11.8(8.5)
	현재 받고 있음	0(0.0)	3(1.9)	3(1.1)	10.7(9.1)
	카이자승값	N/A			
SOS 자립생활관 입주	받은 경험 없음	122(99.2)	159(98.1)	281(98.6)	-
	과거 받은 경험 있음	0(0.0)	3(1.9)	3(1.1)	15.7(20.2)
	현재 받고 있음	1(0.8)	0(0.0)	1(0.4)	65.0(-)
	카이자승값	N/A			
기타 서비스	참여경험 없음	119(99.7)	160(98.8)	272(95.4)	-
	참여경험 있음	4(3.3)	2(1.2)	6(2.1)	-
	카이자승값	N/A			
계		123(100.0)	162(100.0)	285(100.0)	

* 중앙아동청소년 자립통합사업은 수혜자가 없어 표에서 제외함.

* p<.05, ** p<.01, *** p<.001

③ 지원받은 서비스 유형 및 도움 정도

보호종료 후 지원받은 서비스 유형은 <표 III-4>와 같다. 보호종료 후 지원받은 서비스 유형은 주거지원이 159명(5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생활비 지원이 134명(47.0%), 학업지원 113명(39.6%), 의료지원 69명(24.2%)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자립지원 42명(14.7%), 지원받은 서비스 없음 42명(14.7%), 사례관리 32명(11.2%), 활동지원 21명(7.4%), 집단활동 18명(6.3%), 멘토링(멘토로 참여) 16명(5.6%), 상담지원 11명(3.9%), 멘토링(멘티로 참여) 5명(1.8%), 기타 4명(1.4%), 법률지원 1명(0.4%)로 나타났다.

<표 III-4> 보호종료 후 지원받은 서비스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 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계
1) 생활비 지원(식비/ 교통통신비/ 의류비/ 생필품 구입비 등)	67(54.5)	67(41.4)	134(47.0)
2) 주거지원(전월세보증금/ 월세지원/ 주거임대)	76(61.8)	83(51.2)	159(55.8)
3) 의료지원(건강검진/ 수술/ 치료 및 약품구입)	36(29.3)	33(20.4)	69(24.2)
4) 학업지원(대학입학금/ 등록금/ 학원비 등)	71(57.7)	42(25.9)	113(39.6)
5) 자립지원(직업훈련/ 창업자금 대여 등)	12(9.8)	30(18.5)	42(14.7)
6) 상담지원(개별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5(4.1)	6(3.7)	11(3.9)
7) 법률지원(법률상담/ 소송 등)	0(0.0)	1(0.6)	1(0.4)
8) 활동지원(문화여가활동/ 어학연수 등 해외교류활동 등)	16(13.0)	5(3.1)	21(7.4)
9) 집단활동(동아리/ 자조모임/ 자치활동 등)	16(13.0)	2(1.2)	18(6.3)
10) 사례관리	12(9.8)	20(12.3)	32(11.2)
11) 멘토링(멘토로 참여)	15(12.2)	1(0.6)	16(5.6)
12) 멘토링(멘티로 참여)	4(3.3)	1(0.6)	5(1.8)
13) 기타	2(1.6)	2(1.2)	4(1.4)
14) 지원 받은 서비스 없음	16(13.0)	26(16.0)	42(14.7)
계	123(100.0)	162(100.0)	285(100.0)

한편, 지원받았던 서비스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는 주거지원이 134명(3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생활비 지원 110명(29.5%), 학업지원 63명(16.8%), 의료지원 24명(6.4%), 자립지원 23명(6.1%) 순이었다. 보호 종료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욕구인 의식주를 보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III-5〉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1순위+2순위)

단위: 명(%)

구 분	1순위	2순위	1+2순위
1) 생활비 지원	76(31.3)	34(25.6)	110(29.5)
2) 주거지원	105(43.2)	29(21.8)	134(35.6)
3) 의료지원	10(4.1)	14(10.5)	24(6.4)
4) 학업지원	24(9.9)	39(29.3)	63(16.8)
5) 자립지원	14(5.8)	9(6.8)	23(6.1)
6) 상담지원)	0(0.0)	1(0.8)	1(0.3)
7) 법률지원	0(0.0)	0(0.0)	0(0.0)
8) 활동지원	1(0.4)	3(2.3)	4(1.1)
9) 집단활동	1(0.4)	0(0.0)	1(0.3)
10) 사례관리	7(2.9)	3(2.3)	10(2.7)
11) 멘토링(멘토)	1(0.4)	1(0.8)	2(0.5)
12) 멘토링(멘티)	0(0.0)	0(0.0)	0(0.0)
13) 기타	4(1.6)	0(0.0)	4(1.1)
계	243(100.0)	133(100.0)	376(100.0)

보호종료 후 지원받은 서비스에서 서비스 유형별로 가장 많은 도움을 제공한 기관으로는 주거지원은 정부기관이 144명(90.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시설/위탁가정이 20명(12.5%), 자립지원단 15명(9.4%) 순이었다. 생활비 지원은 정부기관 95명(70.8%), 시설/위탁가정 37명(27.6%), 자립지원단 32명(23.9%), 민간단체 27명(20.1%)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지원 역시 정부기관이 83명(7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자립지원단 30명(26.5%), 민간단체 27명(23.8%)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은 정부기관이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반면, 활동지원 및 집단활동, 멘토링 등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는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종료아동 지원에서 정부와 민간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 가장 많은 도움을 제공한 기관(중복응답)

단위: 명(%)

구 분	정부기관	지자체	시설 /위탁가정	민간단체	자립 지원단	기타	계
1) 생활비 지원	95 (70.8)	15 (11.2)	37 (27.6)	27 (20.1)	32 (23.9)	2 (1.5)	134 (100.0)
2) 주거지원	144 (90.5)	9 (5.6)	20 (12.5)	8 (5.0)	15 (9.4)	1 (0.6)	159 (100.0)
3) 의료지원	49 (71.0)	12 (17.3)	10 (14.4)	2 (2.8)	3 (4.3)	2 (2.8)	69 (100.0)
4) 학업지원	83 (73.4)	1 (0.8)	14 (12.3)	27 (23.8)	30 (26.5)	0 (0.0)	113 (100.0)
5) 자립지원	18 (42.8)	10 (23.8)	11 (26.1)	5 (11.9)	10 (23.8)	0 (0.0)	42 (100.0)
6) 상담지원	2 (18.1)	1 (9.0)	4 (36.3)	0 (0.0)	6 (54.5)	0 (0.0)	11 (100.0)
7) 법률지원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8) 활동지원	4 (19.0)	2 (9.5)	1 (4.7)	7 (33.3)	10 (47.6)	3 (14.2)	21 (100.0)
9) 집단활동	1 (5.5)	0 (0.0)	0 (0.0)	10 (55.5)	14 (77.7)	0 (0.0)	18 (100.0)
10) 사례관리	2 (6.2)	4 (12.5)	16 (50.0)	5 (15.6)	11 (34.3)	0 (0.0)	32 (100.0)
11) 멘토링(멘토)	2 (12.5)	1 (6.2)	1 (6.2)	3 (18.7)	12 (75.0)	0 (0.0)	16 (100.0)
12) 멘토링(멘티)	0 (0.0)	0 (0.0)	1 (20.0)	2 (40.0)	3 (60.0)	0 (0.0)	5 (100.0)
13) 기타	4 (80.0)	0 (0.0)	0 (0.0)	0 (0.0)	1 (20.0)	0 (0.0)	5 (100.0)

④ 보호종료 후 가장 큰 어려움

보호종료 후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을 1순위 및 2순위로 응답한 결과는 다음 <표 III-7>과 같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였을 때, 보호종료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생활비/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이 166명(3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거주할 집 문제(113명, 21.2%), 취업에 필요한 정보/기술/자격의 부족(67명, 12.5%), 독립생활에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59명, 1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0명밖에 되지 않아 대다수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보호종료 후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문제 외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7> 보호종료 후 가장 큰 어려움(1순위+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취업에 필요한 정보/기술/자격 부족	44(15.4)	23(9.2)	67(12.5)
인간관계의 어려움	12(4.2)	8(3.2)	20(3.7)
거주할 집 문제	76(26.7)	37(14.9)	113(21.2)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6(2.1)	5(2.0)	11(2.1)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의 부족	12(4.2)	17(6.8)	29(5.4)
아프거나 긴급사고 시 도움 청할 곳 부족	13(4.6)	23(9.2)	36(6.7)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6(2.1)	4(1.6)	10(1.9)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	87(30.5)	79(31.7)	166(31.1)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16(5.6)	43(17.3)	59(11.0)
학업 수행의 어려움	3(1.1)	10(4.0)	13(2.4)
없음	10(3.5)	-	10(1.9)
계	285(100.0)	249(100.0)	534(100.0)

(3) 자립 후 적응에 관한 집단 비교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집단(n=123)과 미지원 집단(n=147) 간의 자립 후 적응에 관한 집단 비교를 실시하였다.

① 건강

분석결과, 서비스 집단과 미지원 집단의 차이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모두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10)를 보였는데 재단의 교육비 지원을 받은 서비스 집단에 미지원 집단에 비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모두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집단별 차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단위: 점

집단구분		신체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집단	평균	3.29	3.24
	표준편차	.58	.64
미지원 집단	평균	3.16	3.08
	표준편차	.64	.74
t값		1.817+	1.909+
계	평균	3.22	3.16
	표준편차	.62	.70

+ p<.10

② 심리적 적응

서비스 집단과 미지원 집단의 경우에는 자존감과 공동체의식, 우울, 전반적 행복감에서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10$)를 보였는데, 아름다운재단의 서비스를 지원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더 높고, 공동체 의식도 높았으며, 우울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행복감에 있어서도 서비스 집단이 더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2주간의 행복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9> 집단별 차이: 자존감, 공동체의식, 우울

단위: 점

집단구분		자존감	공동체 의식	우울
서비스 집단	평균	3.02	3.14	1.94
	표준편차	.51	.480	.53
미지원 집단	평균	2.91	3.04	2.07
	표준편차	.52	.425	.66
t값		1.720+	1.795+	-1.828+
계	평균	2.96	3.09	2.01
	표준편차	.52	.45	.60

+ $p < .10$

<표 III-10> 집단별 차이: 행복감

단위: 점

집단구분		최근 행복감	전반적 행복감
서비스 집단	평균	6.18	6.07
	표준편차	2.03	1.85
미지원 집단	평균	5.80	5.63
	표준편차	2.28	2.21
t값		1.444	1.751+
계	평균	5.97	5.83
	표준편차	2.17	2.06

+ $p < .10$

③ 사회적 지지

서비스 집단과 미지원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는 일반적 지지 수준에서 서비스 집단이 미지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 전체에서도 서비스 집단이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족의 지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1〉 집단별 차이: 사회적 지지

단위: 점

집단구분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일반적 지지	사회적 지지 전체
서비스 집단	평균	3.04	3.90	3.95	3.63
	표준편차	1.21	.769	.76	.74
미지원 집단	평균	2.94	3.72	3.73	3.46
	표준편차	1.22	.92	.86	.85
t값		.688	1.773+	2.149*	1.705+
계	평균	2.99	3.80	3.83	3.54
	표준편차	1.21	.86	.82	.81

+ p<.10, * p<.05

④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에서 서비스 집단과 미지원 집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집단별 차이: 사회경제적 박탈경험

단위: 개

집단구분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서비스 집단	평균	1.50
	표준편차	1.99
미지원 집단	평균	1.44
	표준편차	2.03
t값		.280
계	평균	1.47
	표준편차	2.01

* p<.05, ** p<.01

⑤ 자립생활기술

자립생활기술의 하위영역별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재단의 지원을 받은 서비스 집단의 자립생활기술 수준이 미지원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13〉 집단별 차이: 자립생활기술척도(1)

단위: 점

집단구분		일상생활	자기보호	돈 관리	지역사회 자원활용
서비스 집단	평균	3.13	3.25	2.86	2.99
	표준편차	.51	.43	.62	.58
미지원 집단	평균	3.08	3.20	2.75	2.97
	표준편차	.45	.46	.61	.61
t값		.304	.033	1.131	1.195
계	평균	3.11	3.23	2.81	2.98
	표준편차	.48	.44	.61	.59

+ p<.10

〈표 III-14〉 집단별 차이: 자립생활기술척도(2)

단위: 점

집단구분		사회적 관계	취업 및 직장기술	자립생활기술 총합
서비스 집단	평균	3.23	3.14	3.10
	표준편차	.47	.53	.42
미지원 집단	평균	3.27	3.05	3.04
	표준편차	.50	.52	.43
t값		1.041	1.269	1.068
계	평균	3.20	3.09	3.07
	표준편차	.49	.53	.43

⑥ 대학생활경험

대학생활경험의 각 문항들에 대한 응답값의 집단 간 차이를 보면,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학교 및 학과만족도, 학업의 어려움 등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친구나 선후배와의 관계나 경제적 어려움, 학업과 아르바이트의 병행 어려움 등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예상과 달리 서비스 집단보다 미지원 집단이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자 중 일부만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편의의 문제일 수 있다. 전체 응답대상자 중 서비스 집단은 아름다운재단의 교육비 지원자들로 거의 전부가 대학진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지원 집단의 경우 대학진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8.5%로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서비스 집단의 응답자들은 다소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학진학을 한 사례들이 포함된 반면, 미지원 집단의 경우,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거나 장학금 등을 통해 학비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만 대학진학을 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표 III-15> 집단별 차이: 대학생활경험(1)

단위: 점

집단구분		전반적 만족도	학교 만족도	학과 만족도	학업수행
서비스 집단	평균	3.63	3.44	3.53	3.33
	표준편차	.83	1.01	.98	1.03
미지원 집단	평균	3.57	3.43	3.58	3.37
	표준편차	.98	1.08	1.01	.959
t값		.463	.053	-.376	-.294
계	평균	3.60	3.43	3.55	3.35
	표준편차	.89	1.04	.99	1.00

<표 III-16> 집단별 차이: 대학생활경험(2)

단위: 점

집단구분		교우관계	경제적 측면	통학	아르바이트 병행
서비스 집단	평균	3.48	2.60	3.18	2.45
	표준편차	.95	1.11	1.22	1.10
미지원 집단	평균	3.71	3.00	3.20	3.03
	표준편차	.93	1.05	1.15	1.12
t값		-1.731+	-2.584*	-.095	-3.705***
계	평균	3.57	2.77	3.19	2.70
	표준편차	.95	1.10	1.19	1.14

+ p<.10, * p<.05, *** p<.001

경제적 측면 및 아르바이트 병행에 따른 어려움에서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집단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아르바이트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학진학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 서비스 집단은 94.2%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반면, 미지원 집단은 79.1%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미지원 집단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서비스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지원 집단에서는 선별된 대상자들만이 대학에 진학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III-17> 집단별 차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및 시간

단위: 명, 퍼센트, 시간

집단구분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시간	
	있음	없음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서비스 집단	114(94.2)	7(5.8)	121(100.0)	114	22.83 (15.89)
미지원 집단	68(79.1)	18(20.9)	86(100.0)	68	20.96 (13.72)
카이자승값/ t값	10.859**			.811	
계(n=207)	182(87.9)	25(12.1)	207(100.0)	182	22.13 (15.10)

** p<.01

⑦ 고용형태 및 직장생활만족도

조사대상자들 중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와 직장생활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취업자는 12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44%를 차지한다.

전체 취업자 중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90명(7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30명(24%)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4분의 1 가량이 비정규직에 고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비임금근로자는 전체의 4%로 소수였다.

고용형태 및 직장생활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고용형태는 서비스 집단과 미지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직장생활만족도 평균에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18> 집단별 차이: 고용형태 및 직장생활만족도

단위: 명, 퍼센트, 점

집단구분	고용형태			직장만족도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	평균(표준편차)
서비스 집단	44(72.1)	16(26.2)	1(1.6)	2.79(.73)
미지원 집단	46(71.9)	14(21.9)	4(6.2)	2.78(.79)
카이자승값/ t값	1.907			.041
계(n=125)	90(72.0)	30(24.0)	5(4.0)	2.78(.76)

+ p<.10

⑧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란 진로발달의 각 단계에서 주어지는 진로 관련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 정도, 즉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로 정의된다(Super, 1957). 진로성숙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책임감을 지니며, 일의

의미를 단순히 외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그것을 토대로 일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이기학, 1997, 김민정·이희경, 2014에서 재인용). 따라서 직업을 준비하는 청년기의 대상자들에게 진로성숙도는 중요한 자원이자 역량이 될 것이다.

진로성숙도는 서비스 집단이 미지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19〉 집단별 차이: 진로성숙도

단위: 점

집단구분		진로성숙도
서비스 집단	평균	3.12
	표준편차	.41
미지원 집단	평균	3.01
	표준편차	.40
t값		2.31*
계	평균	3.06
	표준편차	.41

* p<.05

⑨ 학업중단 여부

아름다운재단의 교육비 지원이 대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있는 조사참여자들을 선택하여 학업중단 여부를 살펴보았다. 서비스 집단의 경우 9.2%가 중퇴 및 휴학 등 학업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지원 집단에서는 12.6%가 학업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미지원 집단의 학업중단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II-20〉 집단별 차이: 학업중단

단위: 명, 퍼센트

집단구분	학업지속	학업중단
서비스 집단	109(90.8)	11(9.2)
미지원 집단	76(87.4)	11(12.6)
카이자승값	.642	
계(n=207)	185(89.4)	22(10.6)

(4) 자립 후 적응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집단비교를 통해 일부 심리사회적 적응 변인에서 서비스 집단과 미지원 집단 간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앞서 연구참여자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 집단과 미지원 집단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서비스 경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순 집단비교로는 아름다운재단의 서비스로 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로 인한 차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기존의 서비스 수혜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통제해야 할 변수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서비스 집단에 속한 것이 종속변수에서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다.

다양한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실행 결과, 일부 종속변인(행복감, 자립생활기술, 대학생활경험, 직업생활만족도, 학업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름다운재단의 서비스 수혜여부 및 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인들이 이들 변인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분석결과와는 지면상 생략하였다.

① 건강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최종학력, 월소득)과 보호관련 특성(보호개월수, 아동양육시설 퇴소 여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보호종료 시 자산, 현금지원 및 주거지원 수혜여부)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참여자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수준에서 서비스 집단과 미지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비스 집단에 속한 것이 연구참여자의 신체건강에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보호개월수와 월소득, 최종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재단의 서비스를 받은 집단의 신체건강 수준이 더 좋았으며, 학력이 높고 보호개월 수가 길고, 월소득이 높은 경우 신체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름다운재단의 서비스 수혜여부는 연구참여자의 정신건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통제변인 중에서는 최종학력만이 연구참여자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신체건강

변수	B	S.E	β	t(p)	F(p)	R^2 (Adj R^2)
(상수)	2.854	.491		5.819***		.096 (.059)
서비스집단	.165	.094	.133	1.753+	2.547**	
연령	-.033	.022	-.124	-1.545		
성별	.088	.078	.071	1.130		
최종학력	.110	.057	.150	1.917+		
보호개월수	.002	.001	.180	2.790**		
시설퇴소여부	.071	.089	.054	.793		
퇴소시 자산	-1.415E-5	.000	-.013	-.194		
현금지원	.003	.129	.001	.022		
주거지원	-.129	.085	-.103	-1.519		
월소득	.112	.051	.144	2.172*		

+ p<.10, * p<.05, ** p<.01, *** p<.001

〈표 III-22〉 정신건강

변수	B	S.E	β	t(p)	F(p)	R^2 (Adj R^2)
(상수)	2.617	.569		4.599***		
서비스집단	.067	.109	.046	.610		
연령	-.027	.025	-.088	-1.082		
성별	.115	.091	.080	1.265		
최종학력	.190	.066	.227	2.868**		
보호개월수	.001	.001	.086	1.326	2.112*	.081 (.043)
시설퇴소여부	.155	.103	.103	1.507		
퇴소시 자산	4.035E-5	.000	.031	.478		
현금지원	.074	.150	.032	.492		
주거지원	-.088	.099	-.061	-.897		
월소득	.072	.060	.080	1.201		

* p<.05 , ** p<.01, *** p<.001

② 심리적 적응

다른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서비스 집단과 미지원 집단 간에 자존감과 공동체 의식, 우울, 전반적 행복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전반적 행복감은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존감과 공동체 의식, 우울 변인에는 서비스 수혜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일부 통제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통적으로 최종학력이 세 변인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집단비교에서 발견된 서비스 집단과 미지원 집단 간의 차이는 최종학력의 영향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23〉 자존감

변수	B	S.E	β	t(p)	F(p)	R^2 (Adj R^2)
(상수)	2.545	.411		6.190***		
서비스집단	-.010	.079	-.009	-.120		
연령	-.011	.018	-.048	-.590		
성별	.137	.066	.132	2.095*		
최종학력	.160	.048	.262	3.336**		
보호개월수	.001	.000	.073	1.133	2.319*	.088 (.050)
시설퇴소여부	-.048	.075	-.044	-.644		
퇴소시 자산	4.876E-5	.000	.052	.798		
현금지원	.015	.108	.009	.135		
주거지원	-.018	.071	-.017	-.250		
월소득	.030	.043	.046	.689		

* p<.05 , ** p<.01, *** p<.001

<표 III-24> 공동체의식

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상수)	3.866	.358		10.787***		
서비스집단	.078	.069	.085	1.130		
연령	-.054	.016	-.278	-3.455**		
성별	.063	.057	.069	1.103		
최종학력	.094	.042	.176	2.251*		
보호개월수	.000	.000	.021	.329	2.493**	.094
시설퇴소여부	-.061	.065	-.064	-.936		(.057)
퇴소시 자산	.000	.000	-.201	-3.118**		
현금지원	.063	.094	.044	.673		
주거지원	.043	.062	.047	.691		
월소득	.046	.038	.080	1.210		

** p<.01, *** p<.001

<표 III-25> 우울

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상수)	2.275	.486		4.681***		
서비스집단	.018	.093	.014	.190		
연령	.012	.021	.044	.547		
성별	-.070	.078	-.057	-.902		
최종학력	-.193	.057	-.268	-3.410**		
보호개월수	-.001	.001	-.088	-1.357	2.290*	.087
시설퇴소여부	.038	.088	.029	.429		(.049)
퇴소시 자산	.000	.000	-.109	-1.691+		
현금지원	.025	.128	.013	.193		
주거지원	.035	.084	.028	.410		
월소득	.017	.051	.022	.324		

+ p<.10, * p<.05, ** p<.01, *** p<.001

③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10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집단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의 영향력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았으며, 양육시설을 퇴소하였거나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조사참여자가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집단비교에서 나타났던 사회적 지지의 집단 간 차이는 학력의 영향을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지지의 출처별 분석은 회귀모형이 유의미하지 않아 분석결과를 생략하였다.

〈표 III-26〉 사회적 지지

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상수)	3.253	.642		5.065***		
서비스집단	.046	.123	.028	.369		
연령	-.003	.028	-.009	-.108		
성별	.069	.102	.043	.674		
최종학력	.159	.075	.169	2.117*		
보호개월수	.000	.001	.025	.378	1.653+	.065 (.026)
시설퇴소여부	-.210	.116	-.125	-1.805+		
퇴소시 자산	9.540E-5	.000	.066	1.000		
현금지원	.041	.169	.016	.241		
주거지원	-.187	.111	-.115	-1.676+		
월소득	.007	.067	.007	.102		

+ p<.10, * p<.05, p<.001

④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또한 서비스 집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의 빈도가 높았으며, 남성인 경우,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 월소득이 높은 경우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의 빈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7〉 사회경제적 박탈경험

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상수)	1.877	1.572		1.195		
서비스집단	.116	.302	.029	.385		
연령	.137	.069	.160	1.986*		
성별	-.546	.251	-.137	-2.176*		
최종학력	-.291	.183	-.124	-1.588		
보호개월수	-.002	.002	-.061	-.954	2.528**	.096 (.058)
시설퇴소여부	.174	.285	.041	.611		
퇴소시 자산	.000	.000	-.059	-.921		
현금지원	-1.120	.413	-.177	-2.710**		
주거지원	.201	.273	.050	.737		
월소득	-.312	.165	-.125	-1.890+		

+ p<.10, * p<.05, p<.01, p<.001

⑤ 아르바이트경험

서비스 집단과 미지원 집단 간에 대학재학 시 아르바이트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서비스 집단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을 확률이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비교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비스 집단의 응답자들이 미지원 집단에 비해 다소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대학진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III-28> 아르바이트경험

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상수)	-.064	.293		-.218		
서비스집단	.112	.050	.170	2.243	3.300**	.131 (.091)
연령	.037	.011	.249	3.285		
성별	-.071	.045	-.109	-1.576		
최종학력	-.016	.044	-.026	-.365		
보호개월수	.000	.000	.033	.487		
시설퇴소여부	-.016	.050	-.023	-.316		
퇴소시 자산	6.829E-005	.000	.119	1.729		
현금지원	.041	.075	.038	.545		
주거지원	-.024	.048	-.036	-.503		

+ p<.10, ** p<.01

⑦ 진로성숙도

서비스 집단 여부는 연구참여자의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인 중 최종학력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집단비교에서 나타났던 집단 간 차이는 학력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I-29> 진로성숙도

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상수)	2.624	.322		8.150***		
서비스집단	.001	.062	.001	.010	2.476**	.094 (.056)
연령	-.002	.014	-.012	-.149		
성별	.045	.051	.055	.870		
최종학력	.106	.038	.221	2.814**		
보호개월수	.001	.000	.141	2.195		
시설퇴소여부	-.072	.058	-.084	-1.230		
퇴소시 자산	5.562E-5	.000	.075	1.163		
현금지원	-.024	.085	-.018	-.280		
주거지원	.059	.056	.072	1.063		
월소득	.020	.034	.040	.603		

** p<.01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보호관련 변인,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여부를 통제된 상태에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은 보호종료 이후 이들의 신체 건강에만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외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단의 경제적 지원 수준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외 자립역량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경우 연구참여자에 따라 그 참여 정도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서비스 집단 내에서 아름다운재단의 서비스 지원 기간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서비스 집단 내 서비스 기간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① 건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서비스 집단 내 연구참여자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기간은 서비스 대상자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신체건강

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상수)	1.438	.841		1.709+		.201 (.116)
서비스기간	.000	.007	-.004	-.042	2.369*	
연령	-.007	.035	-.022	-.192		
성별	-.039	.122	-.032	-.318		
최종학력	.248	.113	.238	2.193*		
보호개월수	.002	.001	.251	2.569*		
시설퇴소여부	.144	.145	.112	.997		
퇴소시 자산	-5.077E-5	.000	-.049	-.484		
현금지원	.299	.203	.153	1.472		
주거지원	-.165	.134	-.126	-1.232		
월소득	.161	.071	.231	2.266*		

+ p<.10, * p<.05

〈표 III-31〉 정신건강

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상수)	1.177	.947		1.244		
서비스기간	.007	.007	.093	.962		
연령	-.015	.039	-.041	-.376		
성별	-.023	.138	-.017	-.170		
최종학력	.272	.127	.228	2.139*		
보호개월수	.003	.001	.249	2.597**	2.862**	.233
시설퇴소여부	.193	.163	.130	1.185		(.152)
퇴소시 자산	5.215E-5	.000	.044	.442		
현금지원	.482	.229	.214	2.108*		
주거지원	-.222	.151	-.147	-1.473		
월소득	.142	.080	.178	1.777+		

+ p<.10, * p<.05, p<.01, p<.001

② 심리적 적응

심리적 적응 변인 중 공동체의식과 행복감은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아 분석결과를 생략하였다. 서비스 기간은 서비스 참여자들의 자존감과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 종료 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현금지원 수혜는 참여자들의 자존감과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고 보호기간이 긴 참여자들의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자존감

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상수)	1.067	.737		1.449		
서비스기간	.005	.006	.080	.789		
연령	.030	.030	.113	.981		
성별	-.041	.107	-.040	-.385		
최종학력	.182	.099	.204	1.838		
보호개월수	.000	.001	.047	.473	1.866+	.166
시설퇴소여부	.020	.127	.018	.156		(.077)
퇴소시 자산	.000	.000	.157	1.520		
현금지원	.372	.178	.221	2.089*		
주거지원	-.044	.117	-.039	-.371		
월소득	.037	.062	.062	.599		

+ p<.10, * p<.05

〈표 III-33〉 우울

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상수)	3.223	.814		3.958***		
서비스기간	-.005	.006	-.079	-.799		
연령	-.012	.034	-.040	-.353		
성별	.081	.118	.070	.681		
최종학력	-.195	.109	-.194	-1.783+		
보호개월수	-.001	.001	-.167	-1.706+	2.315*	.198 (.112)
시설퇴소여부	.048	.140	.038	.340		
퇴소시 자산	.000	.000	-.152	-1.501		
현금지원	-.336	.197	-.178	-1.710+		
주거지원	.205	.130	.161	1.580		
월소득	.012	.069	.018	.176		

+ p<.10, * p<.05, ***p<.001

③ 사회적지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서비스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참여자들의 경우 위탁가정이나 그룹홈에서 보호종료된 참여자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었던 아동의 경우 가족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보호종료 후에도 위탁가족 및 그룹홈 종사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양육시설 아동들은 시설과의 관계단절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III-34〉 사회적지지

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상수)	2.861	1.048		2.730**		
서비스기간	.007	.008	.081	.802		
연령	-.004	.043	-.010	-.086		
성별	.040	.153	.028	.266		
최종학력	.102	.141	.080	.724		
보호개월수	.000	.001	.013	.130	1.971*	.173 (.085)
시설퇴소여부	-.459	.181	-.290	-2.542**		
퇴소시 자산	.000	.000	.168	1.636		
현금지원	.320	.253	.133	1.262		
주거지원	-.123	.167	-.076	-.738		
월소득	.072	.088	.085	.819		

* p<.05, p<.01, p<.001

④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서비스 기간은 서비스 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오래 받은 경우,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성인 경우,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경우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의 빈도가 높았으며, 보호종료 후 현금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월소득이 높은 경우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단의 서비스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참여자들의 경제적 박탈경험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35〉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상수)	.599	2.718		.220		
서비스기간	-.045	.021	-.202	-2.111*		
연령	.222	.112	.215	1.980+		
성별	-.912	.395	-.226	-2.306*		
최종학력	.324	.365	.093	.889		
보호개월수	-.001	.003	-.023	-.241	3.272**	.258 (.179)
시설퇴소여부	1.041	.468	.240	2.224*		
퇴소시 자산	.000	.000	-.091	-.941		
현금지원	-1.505	.657	-.229	-2.291*		
주거지원	.107	.433	.024	.246		
월소득	-.635	.229	-.272	-2.767**		

+ p<.10, * p<.05, p<.01

⑤ 자립생활기술

서비스 기간은 참여자들의 자립생활기술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를 오래 받은 참여자들일수록 자립생활기술의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재단의 서비스를 오랫동안 받았다는 것은 대학생의 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찍 사회에 나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참여자들에 비해 오히려 자립생활기술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위영역별 자립생활기술을 예측하는 모형 중에서는 돈 관리 기술에 대한 회귀분석모형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 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기간이 길수록 돈 관리 기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돈 관리에 관련한 자립생활기술은 보호종료 시 자산이 많고 보호종료 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 그리고 월소득이 높은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돈을 관리해본 경험이 이러한 자립생활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생보다는 취업자들에게 이러한 자립생활기술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표 III-36〉 자립생활기술

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상수)	2.406	.537		4.484***		
서비스기간	-.009	.004	-.213	-2.135*		
연령	-.006	.022	-.029	-.257		
성별	.094	.078	.124	1.204		
최종학력	.073	.072	.111	1.013		
보호개월수	-1.629E-5	.001	-.003	-.030	2.207*	.192 (.104)
시설퇴소여부	-.096	.092	-.118	-1.043		
퇴소시 자산	.000	.000	.247	2.438*		
현금지원	.245	.130	.198	1.892+		
주거지원	-.028	.086	-.033	-.325		
월소득	.091	.045	.206	2.003*		

+ p<.10, * p<.05, p<.001

〈표 III-37〉 자립생활기술: 돈 관리 영역

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상수)	1.760	.728		2.419**		
서비스기간	-.014	.006	-.248	-2.549**		
연령	-.009	.030	-.033	-.298		
성별	.165	.106	.156	1.560		
최종학력	.072	.098	.079	.738		
보호개월수	-2.701E-5	.001	-.003	-.036	2.817**	.231 (.149)
시설퇴소여부	-.178	.125	-.156	-1.416		
퇴소시 자산	.000	.000	.242	2.444		
현금지원	.356	.176	.206	2.024*		
주거지원	.030	.116	.026	.255		
월소득	.178	.061	.291	2.905**		

* p<.05, p<.01

⑥ 학업중단여부

서비스 기간이 서비스 대상자들의 학업중단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름다운재단의 교육비 지원을 오랫동안 받은 대상자들은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성별만이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비 지원기간이 길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사업의 특성상 교육비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더라면 학업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측면도 분명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의 교육비 지원사업을 장기간 수혜하는 것은 보호종료 대상자들의 사회 경제적 박탈경험을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학업지속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38〉 학업중단 여부

변수	B	S.E	β	t(p)	F(p)	R ²
(상수)	.504	.415		1.216		
서비스기간	-.008	.003	-.253	-2.583**		
연령	-.019	.016	-.122	-1.156		
성별	.137	.060	.228	2.260**		
최종학력	.009	.055	.017	.161		
보호개월수	.000	.000	.051	.520	1.855+	.142 (.065)
시설퇴소여부	.043	.072	.068	.594		
퇴소시 자산	-9.799E-6	.000	-.019	-.190		
현금지원	.071	.096	.076	.736		
주거지원	-.023	.066	-.037	-.357		

+ p<.10, **p<.01

4) 연구결과 요약 및 함의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호종료 이후 서비스 수혜경험을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수혜경험은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CDA)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국민기초생활급여(72.3%),와 국가장학금(74.3%)의 수혜비율이 높았고, 자립수당의 수혜비율은 약 56.8%로 나타났다. 주거지원 중에는 정부지원 공공주택의 수혜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45.6%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자립생활관 입주(16.1%), 주거지원 통합서비스(15.1%), 공동생활가정 입주(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후 지원받은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주거지원(55.8%)이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 지원(47.0%) 학업지원(39.6%), 의료지원(24.2%)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서비스는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의 순위와도 일치한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또한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여 주로 경제적 지원 및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담지원이나 활동지원, 집단활동, 멘토링 등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지원받았다는 응답비율은 소수에 불과해서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호종료 후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어려움(31.1%)과 주거문제(21.2%), 취업에 필요한 정보/기술/자격 부족(12.5%) 외에도 독립적인

생활에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11.0%)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보호종료 이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또다른 이슈로 떠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연간 교육비 및 학업생활보조비 등 경제적 지원 외에도 자립역량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자립정보 교육, 작은변화프로젝트, 길잡이활동, OT, MT, 홈커밍데이 등)이 함께 제공된다는 점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비스 지원을 받은 집단과 미지원 집단 간의 단순비교 결과는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비스 집단의 신체 및 정신건강 수준이 미지원 집단에 비해 높고, 자존감과 공동체 의식, 전반적 행복감은 높고 우울은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과 진로성숙도 수준도 미지원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 집단과 미지원 집단은 연령, 최종학력 등 일반적인 특성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수혜경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단순비교의 결과는 외생변수의 효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보호관련 요인,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및 주거지원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아름다운재단의 서비스는 연구참여자들의 신체건강에만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심리사회적 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는 최종학력이 거의 대부분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비교에서 나타난 차이는 서비스 집단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재단의 경제적 지원 수준이 규모면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에 비해 크지 않고, 그 외 자립역량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경우 연구참여자에 따라 그 참여 정도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서비스 집단 내에서 아름다운재단의 서비스 지원 기간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추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서비스 기간은 서비스 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는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나, 사회경제적 박탈경험과 학업중단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원 기간이 길수록 서비스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은 완화되었으며, 학업중단 위험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지원기간이 자립생활기술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 지원을 오랫동안 받은 학생들은 그동안 대학생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취업을 한 대상자들에 비해 자립생활기술 면에서 오히려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단기간 지원보다는 장기간 지원을 했을 때 사업참여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는 자존감이나 우울, 정신

건강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보다는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을 완화시키고 학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참여자들의 대학생할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지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의 대상자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단의 지원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선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력과 소득은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의 사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의 완화와 학력수준의 향상은 장기적으로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모든 사업참여자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지원이 장기간 지속되었을 때, 대상자들에게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의 완화와 학업 지속을 통한 학력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대상자들의 자립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재단의 지원사업 자체가 사업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사업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심리정서 프로그램들을 보다 강화하고, 각각의 프로그램 요소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이 주로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차원에만 치중되었다면, 주거지원, 자립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이러한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이들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호종료 이후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개별적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 아동들의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들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최선의 삶을 추구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 질적연구 결과

1) 연구방법

(1) 질적 평가연구 접근

이 연구에서 활용한 접근은 질적 평가 틀을 활용한 질적 접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와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논리모델>을 기본 축으로 하여 투입-과정-산출-결과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그들이 여기에 부여하는 의미를 포함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 방법을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이러한 질적 평가연구 접근은 앞에서 제시된 양적 연구접근을 보완하면서도 독립적인 평가연구로 수행된 것이다.

(2)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주된 참여자는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였거나(현재 길잡이) 대상자(현재 장학생)인 13명의 보호종료 성인들과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12명의 보호종료 성인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는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6명의 실무자들도 참여하였다. 이 6명에는 아름다운재단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각 1명과 이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온 관련자 2명,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2명이 포함되었다.

①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의 장학생(대상자)이었거나 현재 장학생인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전 보호유형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5명, 공동생활가정이 5명, 가정위탁이 3명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7명, 여성이 6명이었으며, 현재 연령은 21세부터 26세까지였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 중(휴학 포함)이 6명, 4년제 대학졸업이 6명, 전문대 졸업이 1명이었다. 현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보면,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은 모두 대학생이었으며(1명은 공무원 시험 준비 중), 4년제 대졸자들은 2명이 취업 상태였고, 4명은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 준비 중이었다. 전문대 졸업생은 주민센터에서 자활 근무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표 III-39〉 연구 참여자(아름다운재단 지원)

ID	성별	현재 (만)연령	학력	현재 직업
지공-1	남	21세	4년제 대재	대학생
지공-2	여	23세	4년제 대졸	유치원 취업
지공-3	여	24세	4년제 대졸	취업준비중
지공-4	남	24세	4년제 대졸	취업준비중
지설-1	여	21세	4년제 대재	대학생
지설-2	남	25세	4년제 대재(휴학)	공무원 준비 중
지설-3	남	23세	4년제 대졸	회사원, 직장 스포츠 선수
지탁-1	남	22세	전문대 졸업	주민센터 자활 근무
지탁-2	여	26세	4년제 대졸	대학원 진학, 취업 준비
지탁-3	남	25세	4년제 대재	대학생
지공-5	여	23세	4년제 대재	대학생
지설-4	남	24세	4년제 대졸	대학원 준비
지설-5	여	23세	4년제 대재	대학생

②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비대상자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지 않는 보호종료성인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보호 유형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5명, 공동생활가정이 3명, 가정위탁이 4명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5명, 여성이 7명이었으며, 현재 연령은 20세부터 25세까지였다. 학력은 고졸이 2명, 전문대 졸업이 4명, 4년제 대학 재학 중 4명, 졸업이 1명이었고, 대학원 재학생도 1명 있었다. 현재 직업의 경우, 대학 재학생들은 모두 대학생이었고(1명은 군복무중), 고졸과 대졸의 경우 2명은 취업준비 중, 나머지는 모두 취업 상태였다.

〈표 III-40〉 연구 참여자(아름다운재단 비지원)

ID	성별	현재(만)연령	학력	현재 직업
비탁-1	여	21세	고졸	부사관
비탁-2	남	22세	고졸	영업직
비탁-3	남	25세	대학원 재학 중	대학원생
비탁-4	여	23세	2년제 전문대졸	대형마트 보안팀 직원
비설-1	남	23세	2년제 전문대졸	인테리어
비설-2	여	22세	2년제 전문대졸	취업 준비 중(사회복지사)
비설-3	여	25세	4년제 대졸	연극배우, 무대조명 자격증 준비
비설-4	여	20세	4년제 대재	대학생
비설-5	남	25세	3년제 전문대졸	취업 준비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
비공-1	여	23세	4년제 대재	대학생
비공-2	남	23세	4년제 대재, 군 휴학	의무경찰
비공-3	여	23세	4년제 대재(휴학)	대학생

③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 관련 실무자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 관련 실무자 FGI에 참여한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3명, 여성 3명이었다. 소속은 주최인 아름다운재단과 협력단체인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이 사업의 심사를 맡았던 진로교육센터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대표자 각 1명, 자립지원전담기관 팀장 1명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전담요원 1명이었다. 이 실무자들이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에 관여한 기간은 최단 6개월에서 최장 4년까지였다.

<표 III-41> 연구 참여자(실무자)

ID	성별	소속과 지위	아름다운재단 사업 참여기간
실-1	여	OO진로교육센터 소장, 자립지원사업 심사위원	4년 (2017-현재)
실-2	여	OO자립지원전담기관 팀장	3년 (2018-현재)
실-3	남	아동권리보장원 주임	6개월 (2019.08-현재)
실-4	여	아름다운재단 사업담당자	4년 (2017-현재)
실-5	남	OO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전담요원	2년 (2019-현재)
실-6	남	OO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자립지원사업 심사위원	3년 (추정 2018-현재)

2) 자료수집과 분석

(1)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수집 방법은 초점집단면접(FGI)와 개별심층면접이었다. 원래 이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만을 계획하였으나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에 집단면접에 참석하지 못한 참여자들이 발생하여 그 경우에는 나중에 1-2명씩 따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다.

먼저 초점집단면접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연구참여자로 구성되었다. 즉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보호종료성인들과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종료성인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된 실무자들이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보호종료성인들과 참여하지 않은 보호종료성인들은 각 집단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 아동양육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로 모집하였다. 이렇게 모집된 사람들을 지원/비지원, 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 보호유형별로 교차하여 6개의 집단으로 구성하고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면접 당일에 불참한 인원들이 발생하여 이들과 다시 연락하고 2명 또는 개별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자료수집 기간 초기에는 대면면접을 진행하였으나 후반부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상대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였다.

보호종료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에서는 보호종료 이전의 생활경험과 보호종료 이후 생활경험,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에 대한 경험 등을 묻는 질문들을 포함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와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들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실무자 집단의 경우, 사업 관계자(심사자, 사업 담당자, 협력단체 사업 담당자 등)들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고 1회 2시간의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에서도 연구진이 미리 논의하고 구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적응에 대한 질문과 보호종료성인들을 위한 공공지원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 의미 등을 묻는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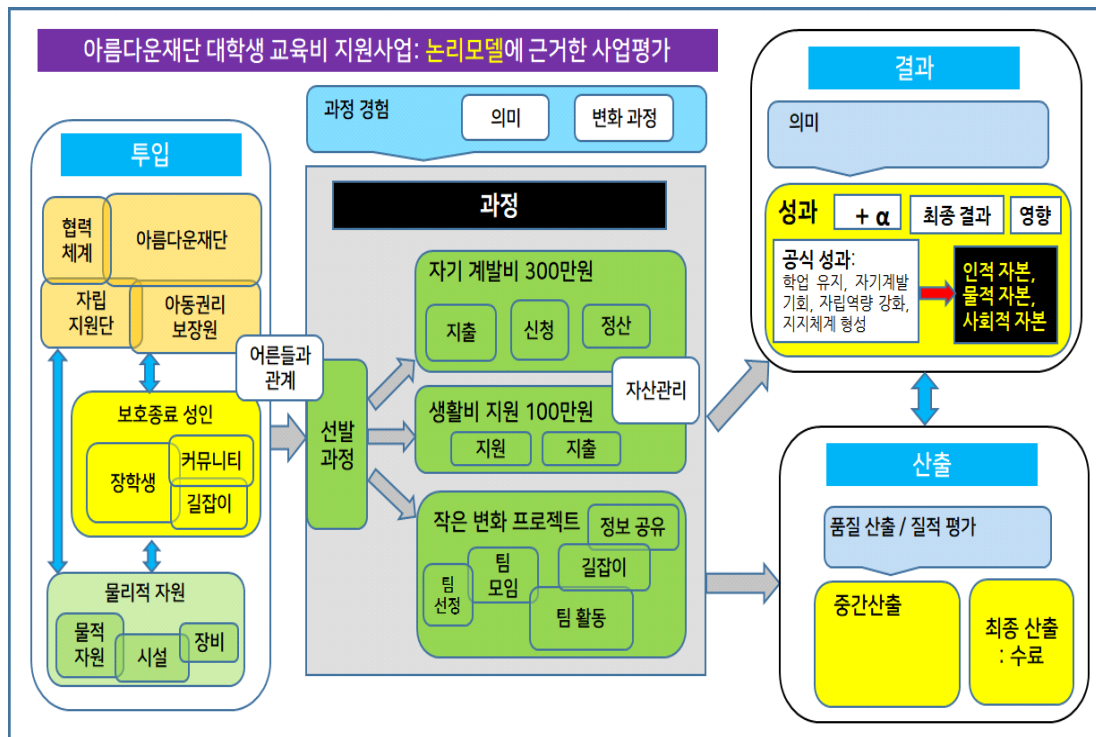
(2) 자료분석 방법

이 질적 평가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연역과 귀납의 순환적 범주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1차적으로는 논리모델의 기본 축인 투입, 과정, 산출, 성과의 틀과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별로 질문을 던지고, 각 질문과 그 답변 안에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1차 분석은 연역적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질문과 영역 내에서는 녹취록에 포함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 기반하여 의미단위들을 찾고, 비슷한 의미단위들을 묶어 통합하며, 이를 개념과 하위범주의 순으로 추상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귀납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논리모델의 틀 안에서 수행된 자료분석은 대체로 사실 정보를 가지고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들의 경험에 부여된 의미를 분석할 때는 한 단계 더 추상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3) 연구결과

(1) 아름다운재단 지원 보호종료성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는 논리모델을 기본 틀로 삼고, 거기에 질적 평가의 차원들을 추가하여 수행하였다. 즉, 투입-과정-산출-결과로 이어지는 논리모델과 그 하위요소들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범주화하는 분석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각 요소별로 질적 평가의 중요한 차원들을 덧붙인 것이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투입요소들의 영향과 산출요소에는 초점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투입요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III-1] 논리모델에 기반한 사업평가

① 투입요소에 대한 평가

일반적으로 논리모델에서 투입요소는 인력과 클라이언트, 물리적 자원 등을 포함하지만, 본 사업에서는 물리적 자원(시설과 장비, 물적 자원)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과 클라이언트(참여자)만을 분석하였다.

아름다운사업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주 제공기관인 아름다운재단의 담당자와 협력단체인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 그리고 특정되지 않는 보호제공자 등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장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인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라고 할 수 있겠다. 장학생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 조정, 정산해주고, 작은변화 프로젝트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 중 길잡이로 활동한 경험을 가진 이들도 이러한 담당자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 어른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아름다운재단과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조직과 사업에 대한 인상이기도 하지만, 담당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갖게 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의 클라이언트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성인 대학생(장학생)들과 작은변화 프로젝트 안에서 이들 장학생을 지원하는 선배 장학생(길잡이)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장학생들만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 곳곳에 언급된 것처럼 길잡이들도 이 사업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클라이언트 집단에 포함하는 것

이 적절하며,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2차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장학생과 길잡이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상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장학생들이 성실하게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교육비와 생활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관찰하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 즉 교육비를 오남용하거나 작은변화 프로젝트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례들을 보고하였다. 또한 길잡이들의 경우에도 선한 의지로 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길잡이들은 작은변화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혼동하거나 장학생들과 갈등을 빚는 모습도 보였다. 따라서 장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길잡이들을 선정하고 교육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42〉 사업지원 대상자(장학생과 길잡이) 면접 분석결과 - 투입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의미 단위
투입	인력	아름다운재단 담당자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 보호제공자	
	참여자	길잡이 리더십	[길잡이] 친구/재단 담당자 권유로 활동. 장학생들이 단체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서포터 하는 것이 핵심 역할, 길잡이가 장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 고민임 / 길잡이는 위촉장을 받음, 뿌듯함, 회의비용과 교통비 지원 있음 / 처음엔 어려웠으며, 경험이 있어서 잘 하고 있음 [리더십] 길잡이가 리더면 서포터 느낌이 강함 / 장학생이 리더면 고생을 많이 함 / 팀 활동의 핵심은 장학생들의 성향과 분위기

② 과정요소에 대한 평가

과정요소는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장학생 선발과정과 교육비 지원, 생활비 지원, 작은변화 프로젝트 등 세 가지 세부사업에 대한 경험과 의미,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변화과정 등을 포함한다. 각 범주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선발 과정

장학생 선발 과정은 참여경로와 참여 전 정보, 지원과정 경험 등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볼 때, 참여경로는 위탁가정이나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제공자들이 제공한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스스로 검색하다가 발견하였거나 홍보물을 통해 알게 되었거나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경우들이 있었다.

장학생들과 길잡이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 정보

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 전 정보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은 기초적인 정보와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 이외에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보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본 사업에 지원하는 과정과 그 전후의 경험은 단계별로 구성되었다. 이 사업에 지원할 때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절박한 심정’ 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절실함, 절박함, 꼭 필요함, 걱정함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 의미단위들이다. 이는 이 사업에 탈락했을 경우 인생에서 중대한 변화(아마도 부정적인)들이 발생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일부는 처음 지원에서 탈락한 다음 해에 다시 지원해서 선발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절실함,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서류심사에 대비한 서류준비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이 드러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낯설지 않았으나 재단 양식에 맞춰 지원을 하려다 보니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 지방 거주자의 경우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조절하거나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어려움도 제기되었다.

면접 장면에 대한 경험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전반적으로는 밝은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예상 밖의 질문을 받아 당황했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면접을 끝내고 나서는 이전의 절박함에 비해 크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대부분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상자 선정 통보를 듣고는 매우 기뻐다.

〈표 III-43〉 사업지원 대상자(장학생과 길잡이) 면접 분석결과 - 과정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의미 단위
과정 - 선정	참여 경로	보호제공자 스스로 홍보물 온라인	공식 보호제공자가 정보 제공, 소개, 권유 스스로 검색, 발견 자립정보 책자, 홍보문자 학교 홈페이지 안내
	참여 전 정보	구체적 정보 부족	구체적인 정보 부족
	지원 과정 경험	절박함	절실한 마음으로 참여, 절박한 상황이었음, 꼭 필요하던 상태였음, 이전 불합격 경험, 떨어질까 봐 걱정함, 장학 재단 포기 상태
		서류심사와면접준비 준비 어려움 면접 경험 발표 소감	경쟁률 모름, 한 달 전 자기소개서 준비, 계획서 쉽게 작 성함, 보호제공자 도움, 최선을 다해 준비, 체계적인 준 비 필요, 서류 작성 과정, 예상 질문에 대비함 지방의 접근성, 다른 일 하느라 면접 준비 어려움 면접 대기과정, 분위기가 좋았음, 붙을 거라고 생각함, 질 문은 예상 밖이라 당황, 질문이 작년과 중복됨 면접 결과는 동상이몽, 누가 붙었는지 잘 모름, 관심 없음, 합격소식에 기뻐함

과정 - 교육비		[지출용도] 대학 등록금 전공 학습 어학 공부 SPEC 쌓기 취미/여가	전공: 인터넷 강의 수강료, 대학 교과과정 교재비/재료비 마음껏 구입, 대학 등록금, 체육부 활동, 세미나 수강료 어학: 인터넷 강의 수강료, 편입 준비, 캐나다 어학연수 두 달 취업 준비: 임용고시 인터넷 강의 수강료, 취업준비 비용, 자격증 취득과정, SPEC 취미여가: 취미활동에 지출
	교육비 - 경험	성장함 부담스러운 지출 충 당 학습에 도움 책에 흥미를 갖게 됨 자신을 위한 투자 학업 중단 위기를 극 복함 도전 목표에 다가가는 계기	스스로 성장함을 많이 느낌 지출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을 낼 수 있음 성적 향상, 공부에 집중하는 기회 마련, 세미나 들으며 공 부 어려움 해결 영어 공부에 도움 책에 흥미를 갖게 됨 자신을 위한 투자 시간과 돈의 제약을 넘어 도전, 비용 문제로 공부를 포기 할 위기였음, 재단 도움으로 공부 지속 가능, 대학 재학 과 일 병행 생활 가능해짐, 등록금 지급해 학업 지속 가능해짐. 목표에 다가가는 계기
	교육비 - 지출+ 증빙 방식	선 결제, 후 지급 돈 관리는 더 수월 함, 지급방식이 수 월해짐 / 불편하고 힘들지만 당연하다 고 생각함 당장 돈이 없는 사 람들에게 부담됨 / 사정에 따라 기관 에서 직접 결제 가능 지원 기준이 명확하 지 않음, 상황에 따라 지출 인정기 준 다름 귀찮음 오남용, 미사용 방 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	현재 선 결제, 영수증 제출 후 지급 방식 빈 통장과 장학금 사용 계획서 제출 청구하고 매달 20일 이내 지급 매달 영수증 첨부하기 귀찮음, 돈을 받고 제대로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뀐 것으로 앞, 선지급 후결제가 더 편할 것 같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담됨, 돈 관리에는 이전보다 더 수월함, 지급 방식이 수월해짐, 오남용 가능성이 있음, 불편하고 힘들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함 사정에 따라 기관에서 미리 직접 결제 가능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상황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다름
교육비 - 지원금 규모	현재가 적당함 많으면 더 좋음 지나치면 취지에 어 긋남 스스로 계획해서 지 출해야 하는 점이 좋음	400만원이 적당함 많으면 더 좋음 지나치면 취지에 어긋남 본인이 계획해서 지출해야 하는 점이 좋음	
과정 - 생활비	생활비 - 용도	생활비 식비 의류비 주거비	생활비로 사용 식비로 사용(평소에 부담되어 못 먹던 것), 간식비 옷 구매 월세로 사용

지원		아르바이트 대체 돈 없을 때 도움이 됨	아르바이트 대체 돈이 없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됨
	생활비 - 지급 방식	25만원*4회 수령증 제출 한번/분기별	25만원씩 4회 지급, 현금 수령증 제출, 증빙 영수증 제출 수령증을 4회 제출. 한 번에 주는 것도 괜찮음, 분기별 지 급이 좋음
과정- 작은변 화 프 로젝 트	활동 경험	[2018년 경험] 지역별 모임 친해지지 않음 목적이 없었음	[2018년] 지역별 모임: 지역끼리 친하지 않음, 안부 묻는 정도의 사이, 모임에서 만나면 반가움, 고민 상담할 사이 는 됨 / 동질감을 느낌 / 컷 해엔 낯설고, 하고 싶지 않 았으며, 어색할 것 같아서 참여도가 낮았음. 친목 도모 수준, 모여서 밥 먹고 노는 장, 목적이 없었음, 직원이 와서 중간점검, 한 학기 1-2번.
		[2019년 경험] 주제별 팀 모임 일 위주 결과가 더 좋았음 과정도 더 체계적 삶의 원동력 참여도도 좋아짐	[2019년] 주제별 모임. 결과가 더 좋았음, 과정도 더 체 계적임, 발표를 다 같이 하면서 단합도 잘 되고 참여도 도 좋아짐, 목적이 뚜렷하니까 더 체계적으로 운영 / 작년엔 일이 위주인 느낌, 팀원들이 삶의 원동력이 됨.
		[2020년] 제대로 모이지 못함	[2020년] 코로나19로 제대로 모인 적이 없음
		[팀 선정] 길잡이 선정 길잡이-재단직원 회 의를 통해 활동주 체 선정 길잡이가 팀 소개 길잡이들의 이해 부족 장학생이 팀 정함 OT 때 결정	오티 전 길잡이 뽑음, 팀 내 활동은 길잡이와 재단 직 원이 회의를 통해 정함, 1월에 모여 회의 함, 7팀으로 나눠 길잡이 먼저 들어감, 오티 때 길잡이가 팀 소개, 장 학생이 자율적으로 팀 선정, 프로젝트 홍보 후 장학생 들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팀 구성, 장학생 오티 때 결 정됨 팀과 과제에 대한 설명 부족, 팀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시 간 부족, 길잡이들의 이해 부족
		[활동방식] 1년 2회 모임 MT, 홈커밍데이 결과 발표 자율적 활동 참여	활동 방식: 일 년에 두 번 모임, 엠티, 홈커밍데이 중심, 1 년 활동 결과 발표 시간 있음, 필수는 아니지만 모이기 는 함, 자율적 팀 활동, 체계 없어 혼란스럽기도 했음
		[팀별 모임/활동] 장학생들의 거주지 는 전국 분산 모임은 대부분 서울 에서 진행 지방 거주자는 여행 가는 느낌 모임이 의무는 아님.	모임: 지역 선정보 모임, 지원비 예산에 교통비 포함, 팀원 대부분 전국적으로 분산, 길잡이는 대다수가 서울 거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만나고 싶어 함, 서울에서 많이 모 임, 지역 흩어진 것 긍정적으로 인식, 팀 모임이 여행 느낌, 돈 조금씩 모아 팀별 엠티에 보탬. 코로나로 MT 불참, 모임이 의무는 아님, 재단 측에서 많이 모이길 바람
		[참여도] 팀마다 다름 참여도 낮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개인 목표에 초점	모임 참여도: 팀 모임 참여 잘 안함, 모임 필요성 느끼지 못함, 팀원 낯설게 느낌, 개인 목표에만 집중함, 소극적 참여 후회(아쉬움) 참여율이 적음, 팀마다 다름
[팀 내 관계] 친밀해짐	관계: 서로 모이고 싶을 만큼 팀원과 친함, 안부 묻고 놀며 돈독해짐		

	<p>[정보 공유] 활발한 정보 공유 제도 신청 권유 모임이 적어 충분히 알려주지 못함 지인에게만 알려주게 됨</p>	<p>정보 공유: 알고 있는 것 비슷함, 정보 공유 잘 됨, 공동된 부분에 도움 줄 수 있음, 재단 사람들에게 정보공유 가 능 / 국가재단지원금 신청 권유함, 기초수급자에게 생활 지원금 지급, 지원금 제도 모르는 경우 있음, 기초수급자 에게 정보 공유 조심스러움, 인맥 통해 연락 돌림, 팀원 에게 직접 연락, /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빠르게 정보 공유, 장학생 대부분 혜택 조건 부합 / 모임 적어 정보 알려주지 못한 것 아쉬움, 지인에게만 알려주게 됨</p>
	<p>[MT] 시야가 넓어짐 소소한 시간도 소중함</p>	<p>MT: 세상을 보는 시야의 폭이 넓어짐, 다양한 사람 만나 며 상대적 시각 가지게 됨, 소소한 시간도 소중, 1년에 한 번 MT감, 제주도 갔었음, 올 해 MT 아직 안감. 8월 말 예정.</p>
	<p>[팀별 활동 소감] 기자단 활동에 흥미, 성장, 영향 도우려는 마음 다양한 사람 만남 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p>	<p>19년도 기자단 팀 만들어 활동, 기자단 활동에 큰 흥미 느 김, 팀원과 아주 잘 맞음, 혜택 정보 모르는 사람 많음, 기자단이 조사해서 알리는 역할, 장학금 받은 것보다 큰 성장 줌, 사람에게 영향 많이 주고받음, 현재 기자단 대 상자 세 명, 현재 기자단 활동과 책 출판 병행, 팀원 10 명과 활동 도우려는 마음 큼, 직접 금전적 도움 어려움, 선정 안 되도 손해 없다고 생각함, 비슷한 상황, 다양한 사람 많이 만 남 시설 거주 아동, 위탁가정 아동에게 재단 소개, 지나친 관 여 주의함, 귀땀해주는 정도, 관심 있을 때 설명해줌, 중 고등학생 도움 필요한 경우 많음</p>
길잡이	<p>분위기 조성 원하면 참여 가능 부정적 역할 수행 금전적 지원 없음</p>	<p>길잡이가 만드는 동아리 분위기가 참여도에 영향을 미침 원하면 참여 가능 거부감이 들 수 있음, 성향이 안 맞기도 함, 주어진 일, 할 일만 함 금전적 지원 없음</p>
의미	<p>돈 이상의 의미 변화와 성장 과정에서 배움 책임감 기회 자체 정보 공유</p>	<p>장학금 지원 이상의 의미 봉사활동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 많음, 변화와 성장이라는 목적은 되새김,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음, 책임감을 배움, 과제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 자립 정보를 나눌 수 있음</p>
관계	<p>새로운 관계망 형성 이 가장 큰 도움 동질적이면서도 다 양한 사람들을 만 날 수 있는 기회 공감할 수 있는 친 구들을 만남 나만 힘든 게 아니 라는 생각 서로 배움</p>	<p>힘든 일을 말할 수 있는 관계 형성,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줌, 직접 만나거나 SNS를 통해 연락하고 친밀해짐, 인적 네트워크 많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도움, 같은 지역 친구들 만나는 장, 다양한 분야의 사람 만나 는 기회, 친구들과 네트워크 만족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과 만나 얘기할 수 있음, 같은 전공 인 사람들 도움 받는 것 좋음,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 문제 이겨내는 방법을 배움 자주 연락하지는 않음, 단순 만남은 유용하지 않음</p>
한계와 개선 방안	<p>참여율이 높지 않음/ 유인책 필요 리더십과 인적구성 에 따라 다름 팀 선정 과정 개선</p>	<p>전국 모임이라 모이기 힘들, 참여율이 높지 않음, 강제성 을 느끼지 않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 함(의무조항, 혜택, 역할부여, 벌칙 등). 참여율을 높이 기 위한 동기부여 방법이 필요함, 프로젝트 참여를 장 학금 필수 조건으로 해야 함.</p>

		필요 팀 내 역할 분담 개별적 친밀성 부족 길잡이의 지속가능성-커뮤니티와 네트워크 재단 직원들과 교류	팀마다 차이가 많음, 팀 내 리더십과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며, 팀별 모임은 바람직, 팀별 주제는 미리 정해놓는 게 나옴, 팀을 고르기 전에 충분한 정보제공과 고려할 시간 필요 직책(역할)을 나눠 맡기지만 하다보면 무의미해짐 개별적인 친밀성이 부족함 유지되어야 하지만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음 길잡이 지속요인(프로그램에 대한 애정, 친구들과 커뮤니티 형성, 장학금) 재단 직원들과 활발한 교류
--	--	--	--

나. 교육비(학비와 자기계발비) 지원

교육비 지원에 대한 평가는 경험, 지불과 증빙 방식, 지원금 규모 등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범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비 지원에 대한 경험은 다시 지출용도에 대한 범주화와 주관적 의미들에 대한 범주화 결과로 구분되었다. 지출용도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등록금과 전공 학습, 어학 공부, SPEC 쌓기, 취미/여가 활동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적으로 대학 등록금으로만 지출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위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용도에 골고루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출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다양한 의미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성장함, 부담스러운 지출을 충당함, 학습에 도움이 됨, 책에 흥미를 갖게 됨, 자신을 위한 투자, 학업 중단 위기를 극복함, 도전, 목표에 다가가는 계기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이 사업의 성과(학업 유지와 자기계발 기회 제공)와 연결되어 있다. ‘학업 중단 위기를 극복함’은 학업 유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개념들은 자기계발의 기회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교육비의 지출과 증빙 방식에 대한 평가는 연구참여자들에 따라서 다소 엇갈린다. 올해는 ‘선결제 후지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부 참여자들은 돈을 관리하기에 더 수월하며, 불편하고 힘들지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참여자들은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당장 돈이 없고, 지출 규모가 크면서 용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여 선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연성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증빙방식의 변화에 대해 다수의 참여자들은 그것이 교육비의 오남용, 미사용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다만 실제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교육비의 지원 항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지출이 승인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교육비의 지원금 규모(300만원)에 대해서도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것이 적당한 규모라고 답변하였지만, 일부는 많으면 더 좋겠다고 하였고, 다른 일부는 지나치게 많으면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규

모 자체에 대한 진술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금액을 스스로 계획해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이 좋다는 답변도 있었다.

다. 생활비 지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평가는 용도와 지급방식의 두 범주로 구분되었다. 첫째, 연 100만원의 생활비 지출 용도는 전반적인 생활비와 식비, 의류구입비, 주거비, 아르바이트를 대체함, 돈이 없을 때 도움이 됨 등을 포함하였다. 생활비의 경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의 금액은 자립수당 30만원에 비해서도 작은 금액이고 빈도도 적기 때문에 큰 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매달 조금씩 넘칠 수 있는 지출금액을 충당하거나 그 정도의 목돈을 필요로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서 대체로 요긴한 돈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둘째, 생활비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이 달랐지만 매달 10만원 정도씩 나눠서 주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25만원 또는 한번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였다. 한번에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큰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서 좋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할 경우가 있고, 분기별로 지급할 경우 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대안을 선호한다기 보다는 현재의 방식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작은변화 프로젝트

작은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과정평가는 활동경험과 길잡이에 대한 평가, 의미, 관계, 한계와 개선방안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의미와 관계는 과정평가보다는 결과평가에 가깝지만,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이 과정평가 부분에서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활동경험’의 경우 매우 다양한 하위범주 또는 개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더 세분화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 활동경험

(가) 연차별 경험의 차이

작은변화 프로젝트는 매년 운영방식을 바꾸어왔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경험도 상이하다. 여기에서는 사실 그대로의 경험들이 제시되었다. 2018년에는 장학생들을 지역별로 나누고 모임을 진행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 안부를 묻는 수준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재단의 담당자도 모임에 참석했지만 중간점검 차원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2019년에는 주제별 모임을 시작했고, 그것이 2020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체 장학생들을 주제별로 나누는 팀에 지원하도록 하고 배정하는 방식이다. 각 팀에는 선배 장학생인 길잡이들이 미리 배치되어 있고, 주제도 이들이 미리 정해 놓는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일이 위주가 되었으며, 결과가 이전방식보다 더 좋았고, 과정도 더 체계적이라고 평

가하였다. 또한 이 모임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참여도도 좋아졌다고 진술하였다.

2020년에도 이러한 주제별 모임 진행방식이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체 일정이 연기되었고, 이 연구를 위한 면접을 진행할 당시에 다시 모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2020년 진행방식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팀 선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변화 프로젝트의 팀별 주제는 길잡이들이 재단 직원과 미리 회의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장학생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길잡이들이 팀을 소개하고, 장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팀을 신청하게 된다. 대체로 장학생들이 원하는 팀에 배정이 되기는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할 경우 무작위로 배정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불만족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서 팀 소개 후 짧은 시간 내에 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었으며, 초기에 팀을 이끌어 가야 하는 길잡이들이 전체 사업과 주제,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설명을 잘 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제기되었다.

(다) 활동방식: <작은변화 프로젝트>에는 오리엔테이션 이후 분기별 1회 정도의 정기모임이 있으며, MT와 홈커밍데이, 그리고 결과 발표 등의 행사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과 행사에는 모든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를 필수나 의무로 강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행사에도 불참하는 사람들이 있고, 팀별 활동에도 출석률이 낮거나 아예 불참하는 인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는 ‘체계가 없어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출석률이 특히 낮은 팀들은 활동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팀별 모임/활동: 조금 더 구체적인 탐색으로 들어가서, 팀별 모임과 활동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앞선 언급된 내용들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 일단 장학생들의 거주지가 전국 곳곳으로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별 모임은 대부분 서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 거주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측면이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참여자는 ‘여행을 가는 느낌’이라고 하였지만, 모두가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임 참여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들쭉날쭉하고 팀의 분위기에 따라 출석률이 낮은 팀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계속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마) 참여도: 이 범주는 위 범주와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팀마다 참여도가 다르다는 것이며,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구성원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여전히 팀원들이 서로 낯설게 느끼기도 하며, 각자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바) 팀 내 관계: 위에서 제시한 진지한 고민과는 반대로, 기대 이상의 친밀함과 유대감을 느끼는 팀과 구성원들도 다수 존재한다. 정기 모임이 아닌데도 서로 더 자주 모이고 만나고 싶어 할 만큼 팀원들과 친해졌으며, 일상적으로도 서로 안부를 묻고 수시로 만나서 놀면서 돈독한 관계를 형성한 장학생들도 다수 존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볼 때, 최근 매년 60명 정도의 장학생들이 팀별로 모여서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일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관계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거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부는 모임이 있을 때 참석은 하지만 참여 자체에만 의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장학생 집단과 각 팀 내에서 늘 이러한 유형들이 상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길잡이들을 통해서든 협력단체의 담당자가 직접 개입하든 초기에 진행상황과 분위기를 점검하고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는 그와 반대로 내향성을 가진 장학생들이나 집단활동을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해당 기간에 특정 집단에 소속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대일 멘토링 등 다른 대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 정보 공유: 정보 공유 수준은 팀별 활동 참여수준에 의존하겠지만, 일단 팀으로 묶여 있는 장학생들끼리는 상당히 활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고, 연령도 비슷하며,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도 유사하기 때문에 먼저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팀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 정보가 내포하고 있는 제도와 자원, 서비스들도 배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숨길 필요도 없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기타 다양한 지원금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정보를 알려준다. 인맥을 통해 연락을 돌리기도 하고, 팀원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하며, 어쨌든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올해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초기에 모임이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모임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 때문에 정보를 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쉬워하는 연구참여자들이 있었다.

(아) MT: MT에 대해 언급하고 진술한 연구참여자는 많지 않았지만, 이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MT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더욱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관점을 갖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밖에도 MT에서 보낸 소소한 시간들도 소중하게 느껴졌다는 진술도 있었다.

(자) 팀별 활동 소감: 팀별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연구참여자는 많지 않았다. 그 중에서 기자단 활동과 사람책 활동을 한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에 대해 소개

했다. 활동 자체를 여기에서 기술할 필요는 없겠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과 무척 친해졌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커졌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인관계능력 같은 것이 향상되었다고 느꼈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순회하면서 선배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며, 정보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팀도 있었다.

나) 길잡이

길잡이에 대해서도 앞서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여기에서는 길잡이의 입장에서 평가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길잡이가 만드는 팀의 분위기가 참여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길잡이의 성향에 따라 팀원들이 거부감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길잡이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작년과 올해의 경우 길잡이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자격이나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길잡이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길잡이들이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상당한 헌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팀 활동을 추진하는 비용 이외에는 별도로 길잡이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 자체가 불만이라기 보다는 길잡이들에게 별다른 동기부여 요인이 없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의미

이러한 <작은변화 프로젝트>가 참여자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다양한 의미가 제시되었다. 즉, 돈 이상의 의미, 변화와 성장, 과정에서 배움, 책임감, 기회 자체, 정보 공유 등이었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이 사업의 목표인 자기계발 기회제공과 자립 준비 역량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배움, 변화, 성장, 책임감 등은 보호종료성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화되어야 하는 덕목들이고, 이는 자기계발과 자립 준비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관계

연구참여자들은 <작은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관계망 형성이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으며, 동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한계와 개선방안

<작은변화 프로젝트>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지만, 이중 다수는 이미 범주별 기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앞서 제시되지 않은 개선방안 몇 가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팀 내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길잡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셋째, 재단 직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는 점이 었다.

③ 결과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요소는 우선 본 사업의 공식적인 성과를 중심에 놓고, 예상치 않은 결과와 성과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탐색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의미의 경우에는 영향과 상징을 포함하였으며, 이전까지 검토한 모든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기존 성과 구성체의 대안으로 새로운 표적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식 성과

본 사업의 공식적인 성과는 **학업 유지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자립 준비 역량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이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통해 확인한 각 성과의 지표를 살펴보면, 학업 유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개발 기회 제공은 ‘자기개발 관련 활동’, 자립 준비 역량강화는 ‘자립 준비도’, 지지체계 형성은 ‘사회적 지지’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모두 계량화된 것들이고 양적 평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재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 질적 평가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직접 이 사업을 통한 ‘변화’에 대해 개방적으로 물어보고 그 답변을 분석하여 이러한 성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또한 하위사업별로 ‘당연히’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냈다. 여기에서 ‘당연히’ 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목표에 포함된 성과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학비와 자기개발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교육비 지원>은 대학등록금이나 대학 교과과정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업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대학에 재학 중인 보호종료성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보호제공자 없이 혼자서 살아가야 할 경우에,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그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에 소홀해지다보면 성적이 나빠지며, 그러면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수적인 최소 학점에 미달하게 되고, 국가장학금을 못 받으면 대학등록금을 낼 수 없으므로 휴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일부 보호종료성인들의 경우 자립정착금으로 등록금을 내거나 CDA와 자립수당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300만원의 학비 또는 자기개발비와 생활비 지원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교육비가 어떤 지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장학생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국가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재단에서 지원한 교육비를 대학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교재 구입비, 학습과정 재료구입비, 대학생활 유지비)이나 취업준비(영어를 포함한 어학공부, 공무원 시험이나 교원자격시험을 위한 학원,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 스펙 쌓기를 위해 사용하거나 취미여가를 통해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자기계발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지출이 원래의 의도나 목적에 맞지 않거나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들은 학비와 자기계발비로 사용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교육비 지원은 일단 한 학기 등록금으로 지출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학업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물론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해서 학업 유지가 가능해 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상황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업의 장학생들은 자립수당으로 생계가 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국가근로의 우선순위를 이용할 수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생활비로 일정 부분을 채울 수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은 일단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업 유지** ‘또는’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해주며, 그것으로 부족할 경우 <생활비 지원>을 통해 **학업 유지**라는 목표를 떠받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비 지원> 사업은 보호종료성인들에게 3년간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의 토대 위에 매년 100만원의 생활비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생계수준을 넘어서 다소 여유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업 유지와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해주기도 한다. 생활비 자체를 대학 등록금이나 취업준비비, 취미여가활동비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돈을 생활비로 지출함으로써 교육비를 원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한 용도로 사용하게 해주거나 더 여유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데, 또는 최소한 남들처럼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즉 늘 기초생활수준에 맞게 식비를 지출하다가 모처럼 들어온 생활비를 소확행을 위해 비싼 음식을 사 먹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지출을 ‘낭비’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다수의 대학생들이 누리고 있는 소확행 소비패턴을 고려하면 그저 또래들과 한번쯤 같은 여유를 누리봤을 뿐인 것이다. 이 자체도 **자기계발**의 기회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작은변화 프로젝트>는 일차적으로 **지지체계 형성**을 ‘당연히’ 가능하게 하며, **자립역량 강화**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체계 형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이 ‘당연한 이유는 <작은변화 프로젝트> 자체가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즉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장학생 전원이 주체별로 구성된 팀에 지원하여 들어가서 1년 단위로 집단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지체계를 형성해 준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이 속한 팀을 ‘지지’ 체계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갈등을 경험하며 철수하거나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새로운 지지체계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소속되어 활동했던 팀과 구성원들을 매우 중요한 지지체계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장학생들이 이 팀과 구성원들을 자신의 지지체계로 수용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은 ‘공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즉 친생부모를 포함한 원가족과 분리되어 살 수 밖에 없었던 상실감과 깊은 슬픔, 그 원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 위탁가정이나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 중 누구와도 나누기 어려운 사연들인데, 작은변화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는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공감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지체계 형성의 가장 결정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연구참여자는 길잡이와 선배가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동행해 주어 큰 도움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것도 지지체계의 작지만 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 <작은변화 프로젝트>가 자립역량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진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팀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 정보에는 보호종료성인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에 대한 것과 LH주거지원사업, 다른 민간법인이나 단체에서 지원하는 학비·생활비 지원사업, 그리고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일상생활의 사소한 지침과 팁들도 포함한다. 이를 한 마디로 ‘생활의 지혜’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자립역량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또한 <작은변화 프로젝트>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활동을 위한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각 팀별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가장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활동이 미래 직업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조사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활동과 과정을 기획하며, 사람들과 만나고 자원을 찾아 나서고 연결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일을 배워가고 대인관계 역량과 사회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자립역량 강화라는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 ‘자립 준비도’에는 쇼핑, 요리, 전기, 세탁, 치료, 스트레스, 중독, 임신, 재정관리, 주거관리, 행정절차, 지역사회 정보와 자원 활용, 결혼과 부모됨, 대화, 의사결정, 면접기술, 처세, 학습 방법 등 매우 다양한 일상생활 대처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에는 이러한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작은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중 일부 영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작은변화 프로젝트>에는 자립역량 강화를 직접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전략이나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자립역량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측정하는 척도에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과와 척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변화 프로젝트>와 앞서 제시한

교육비와 생활비 지원의 개별적 또는 복합적 영향으로 자립 준비도가 향상되거나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자립역량의 변화는 ‘재정관리’ 기술이었다. 이는 교육비(학비와 자기계발비)와 생활비를 신청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고, 집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고, 아름다운재단의 지원금과 자립 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44〉 사업지원 대상자(장학생과 길잡이) 면접 분석결과 - 결과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의미 단위
결과	변화	학업 유지 학업에 집중 가능 학업 지속 가능	성적 향상, 공부에 집중하는 기회 마련, 세미나 들으며 공부 어려움 해결 비용 문제로 공부를 포기할 위기였음, 재단 도움으로 공부 지속 가능, 대학 재학과 일 병행 생활 가능해짐, 등록금 지급해 학업 지속 가능해짐.
		자기계발 기회제공 남들과 같은 기회 투자-도전-목표	지출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을 낼 수 있음, 남들과 함께 하는 기회,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할 수 있음, 남들과 같은 기회 경험, 취미생활 가능, 영어 공부에 도움, 책에 흥미를 갖게 됨 자신을 위한 투자, 시간과 돈의 제약을 넘어 도전, 목표에 다가가는 계기
		자립 준비 역량강화 재정관리	재정관리: 돈 쓰는 고민도 행복, 재정관리 방법을 배움, 금전적 부분에 도움 크게 받음, 활동 하며 장학금 받는 것 좋음
		지지체계 형성 새로운 관계망 형성 친밀한 관계 공감과 동질감 편안함과 안정감 마음의 벽을 깨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관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짐 부정적 관계에서 벗어나 긍정적 관계를 맺게 됨 선배들과 소통 나만 힘든 게 아님 서로 배움	새로운 관계망 형성이 가장 큰 도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 친가족처럼 친근함, 계단식의 단순한 질문으로 가까워짐 동질감 느낌, 서로의 상황 공감함,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음,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남 장학생들끼리 편안함, 안정감, 프로그램과 만난 사람들 만족, 안정적 인간관계 배움 마음의 벽을 깨기 위해 노력함, 서로 경청, 피드백, 벽 없이 이야기하는 느낌, 새로운 경험, 타인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음, 사생활 이야기 하는데 어려움 없음, 공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귄 수 있게 됨, 이전에는 가정사 이야기 회피하며 관계 깊어지지 않음, 할 일만 하고 끝나는 관계, 재단 활동 하며 변화, 쉽게 단정 지었다는 것 깨달음 과거 부정적 관계가 무너짐, 긍정적 관계 변화 경험, 인간관계 어려움 인지하고 있었음, 타인을 돌보게 됨, 인간관계 선배 조언 듣는 것, 배움에 나이 중요하지 않음, 다양한 정보, 소통 대상 범위 넓음, 선배에게 고민상담, 학교 선배에게 상담 어려움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 서로 배움

		긍정적 자아인식	긍정적 자기인식, 자존감, 자신감이 생김, 덜 위축되고 당당하게 대할 수 있음 부정적 생각이 많았음, 가정환경이 약점이라고 생각함, 이해받지 못한 상처 유지
		성취감	성취감, 자기발전
		여유와 안정감	마음의 여유가 생김, 안정감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길잡이들의 변화	길잡이들도 많이 배움, 타협하는 것도 도움, 시간 아까운 적 없음, 이해심 생김
		어른들을 통한 모델링	재단 직원을 통해 좋은 어른의 상을 만남,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함
성과 - 의미	의미 - 영향	성장	[성장]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해준 곳, 18년도 장학생 때 자기중심 성장, 목표 달성 집중, 기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함,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이어짐
		여유	[여유] 스스로 성장, 문제 해결 한 후 나눌 수 있는 여유 생김, 장학금 받은 후 돈 걱정 안함, 필요한 것에 당당히 지출, 금전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를 줌, 개인 지출 없이 배우고 즐길 수 있음
		나눔	[나눔] 장학금 받은 것을 길잡이 활동 하며 사명감으로 나누고 있음, 장학금 받고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 일시 기부 함, 장학금이 나눔의 여유, 기회 만들어 줌, 받기만 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느끼게 됨, 타인 돕고 싶은 마음 생김, 길잡이로 활동-기부하며 가치 있는 삶 실천, 배운 것, 가지고 있던 것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 제공, 선물을 통해 변화 되어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음, 본인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됨, 나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점이 선물이라고 생각함
		기회	[기회] 장학금이 기본 욕구 충족 도와 주변 둘러보는 기회 제공, 과거 항상 부족한 것 많아 못하는 것에만 집중 함, 돈 없어서 공부, 책, 운동 누리지 못함, 받으면서 즐기고 배우면서 베풀 수 있는 곳, 보통 영어, 게임, 스포츠 등에 돈 쓰며 배워야 함
		만족 정보 즐거움 다름	[만족] 좋은 환경, 생각이 습관이 되어 만족스러운 삶 영위 [정보] 재단 통해 지원 받으며 정보 얻을 수 있음 [즐거움] 지출 없이 선후배와 활동 즐길 수 있음 [다름] 재단의 지원, 활동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느낌 받음
	의미 - 상징	선물	<선물> 선물은 예상치 못하게 받는 뜻밖의 이득, 의외의 선물은 더 고마울 때가 있음,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선물 같은 재단이 많은 걸 바꿔 줌, 봉사라는 베푸는 마음 크기 중요하지 않음, 재단이라는 선물을 통해 힘들 때 도움 받음
오아시스		<오아시스> 사회에 버려진 느낌이 해소됨, 필요를 채움, 휴식을 취함,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불신이 사라지고 관계를 쌓는 법 등을 배움	
경유지		<경유지> 경유해야 하는 지점에서 도움을 받음, 재정적 안정감, 적성을 파악함,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 재단 담당자의 지지와 지원	
안식처		<안식처>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p>한줄기 희망</p> <p>삶의 질 향상</p> <p>전환점</p> <p>백 응원</p>	<p>많이 생김</p> <p><한줄기 희망> 생활에 여유 필요, 기본 수준이 보장돼야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됨, 기본적, 생리적 욕구 충족 후 안정이 되고 상위 욕구 충족 가능</p> <p><삶의 질 향상 계기> 돈이 부족해서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게 되고, 자격증 같은 것도 딸 수 있게 됨, (알바를 안 해도 되니까) 학점 향상, 삶의 질 향상</p> <p><전환점> 큰 규모의 소비에 두려움 있었음,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짐, 필요한 것에 써야 되는 게 돈이라는 생각, 삶이 발전적으로 변화함, 성격 변화: 항상 놀려있어서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고 얘기도 안 했는데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주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의사표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짐</p> <p><백> 든든한 지원군, 지원을 통해 안정감 느낌</p> <p><응원> 어른들이 우리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 현재와 미래를 응원해주는 느낌, 책임 있는 지원</p>
--	---	---

나. 예상치 않은 결과

위에서 살펴본 공식 성과들과는 달리, 사업 기획에서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했다고 진술한 결과들이 일부 나타났다. 공식 성과들에 비해서는 빈약해 보이지만 그 중요성이 덜한 것은 아니다. 예상치 않은 결과들을 범주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들로서 긍정적 자아인식과 성취감, 여유와 안정감 등을 들 수 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과 처지에 대해 부정적 생각이 많았고,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해받지 못한 상처들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였으며,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 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교육비와 생활비를 받아 활용하면서 재정의 여유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밖에 본 연구에 참여한 길잡이들은 길잡이로서도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였다. 길잡이들은 이 사업의 클라이언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도 예상치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삶의 질 향상이다. 이것은 학업을 유지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한 변화 가능성을 알게 된 점이다. 자신을 돕기 위해 애쓰는 재단 직원을 보면서 좋은 어른의 상을 만났다고 느꼈거나 외부 활동을 하면서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악착같이’, ‘혼자서,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삶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관계를 경험(예,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경험 등)하였다. 그러면서 ‘사람이 도움이 되는구나’, ‘나도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다. 의미: 영향과 상징

여기에서 다루는 ‘의미’는 성과로 압축되어 표현되는 ‘변화’들을 넘어서 당사자들이 그 성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그 의미는 ‘영향’을 물어보는 질문과 ‘나에게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0000이다’식의 문장완성 질문을 통해 탐색되었다. 이러한 영향과 의미는 저마다 다르게 표현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공식 성과와 중복되거나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일부는 독특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먼저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된 것들에는 성장, 여유, 나눔, 기회, 만족, 정보, 즐거움, 다름 등이 포함되었다.

‘성장’은 흔히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연구참여자가 제시한 개념은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나눔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해주고, 자기 중심, 목표달성,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었던 자신의 관점이 달라진 것,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 등을 언급했다. 그런데 다른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여유’는 이러한 성장과 일부 중복되지만, 금전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를 주고, 사비를 쓰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점, 돈 걱정을 안하고 필요한 것에 당당히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포함한다.

성장과 여유가 자신을 향한 것이라면, ‘나눔’은 타인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길잡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하며, 타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점 등이 변화라고 하였다. 또한 한 연구참여자는 장학금이 주변을 둘러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이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다른 일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는 달리,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되었다는 점, 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으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선후배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재단의 지원과 활동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느낀 점 등은 공식 성과와 겹치거나 연결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이 연구참여자들인 보호종료성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장완성 질문을 던지고 이 사업에 상징을 부여하도록 하였는데, 매우 다양한 답변들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들은 결국 이 사업의 영향보다는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나 가치, 정당성 등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각 연구참여자들이 부여한 상징들에는 선물, 오아시스, 경유지, 안식처, 한줄기 희망, 삶의 질 향상, 전환점, 뺨, 응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상징들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 분류해 본다면, 선물, 뺨, 응원 등을 하나로 묶고, 한줄기 희망과 오아시스, 안식처를 다른 범주로 묶고, 경유지와 전환점, 삶의 질 향상 등을 또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장학생들에게 예상치 않은 선물들을 안겨주면서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받쳐주고 있고, 어른들이 자신들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오랜 갈증 뒤에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듯 사

회에 버려진 느낌이 해소되고 필요를 채우면서, 이곳 안식처에서 비로소 삶에 여유와 안정감을 느끼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됨을 느끼면서 그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보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여기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점검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곳으로 경험하였다.

라. 새로운 표적: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사회적 자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자들은 이 사업의 변화와 관련된 표적으로 새로운 개념 구성체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존의 이론적 구성체와 유사하지만 의미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 사업에도 적합한 구성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종료성인의 **인적 자본**은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포괄하며, 여기에는 자아개념과 문제해결능력, 사회기술, 성격 특성, 의지, 가치관, 태도,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이 포함된다. 본 사업의 이전 성과와 연결한다면, 학업 유지와 자기계발 기회제공, 자립 준비 역량강화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학업 유지와 자기계발 기회제공은 이 프로그램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의 일부인 표적이나 성과로 제시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로서 **학습역량,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사회기술** 등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교육비와 생활비 지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작은변화 프로젝트를 포함한 전체 사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장시키고, 조금 더 세밀하고 치밀한 개입전략을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보호종료성인의 **물적 자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 그리고 그것들의 총체로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재정관리능력**을 포괄하는 것이다. 2020년 10월말을 기준으로, 보호종료성인들은 보호종료 직후 디딤씨앗통장(CDA)에 적립된 돈과 5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 거의 양육시설에서만 적립된 후원금 등을 포함하여 최소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생계급여 40여만원과 자립수당 30만원을 포함하여 최소 3년 간은 7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이전소득을 갖게 된다. 재산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LH주거지원을 받게 되면 주거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대학 등록금도 친부모와 거주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학점만 유지한다면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오랫동안 시설에서 살다가 갓 퇴소한 보호종료성인이 모든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면, 대학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으로 모두 충당하고, 주거지원도 별도로 받으면서 자립수당과 생계급여로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출하면서 CDA와 자립정착금으로 받은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대학졸업 때까지 유지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 재산과 소득이 충분하다고 할 만큼 넉넉한 것은 아니다. 소득은 대부분 소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필수조건으로 인식되는 어학능력과 취업

준비, 스펙 쌓기 등에 지출할 여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은 이전의 빠듯한 수준에서 조금 더 넉넉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면서, 남들과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꿈을 꾸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여하간 아름다운재단 교육비 지원사업은 보호종료성인들의 재산과 소득, 이를 통합하는 자산, 달리 말해 물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이전에 비해 본 사업 참여가 종결되는 시점에 물적 자본의 규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는 것도 성과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재정관리 능력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보호종료 이후 가장 힘들었고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입을 모은 것이 바로 이 재정관리능력, 또는 자산관리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참여한 많은 지원 대상자(장학생 또는 길잡이)들은 이 지원사업, 그리고 특히 교육비와 생활비 지원사업이 재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직간접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자들은 이 지원사업의 변화 표적으로 물적 자본의 양적 규모 변화와 장학생들의 재정관리(또는 자산관리)능력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과정평가의 차원에서 장학생들이 교육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보호종료성인의 **사회적 자본**은 이 사업의 기존 성과 목표인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기초단계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지체계의 양과 질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지체계 형성이라는 목표 자체는 이 사업에서 작은변화 프로젝트에 장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만으로도 달성 가능한 기초적인 수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목표는 그러한 지지체계 형성작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보호종료성인들의 사회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장기적인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적 자본의 경우 이 사업의 지원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때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졸 학력을 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자기계발이 대학 전공과 일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든, 다른 진로를 찾는데 사용되었든 간에 결국 좋은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물적 자본의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이 끝난 뒤 자산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본 사업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해 봐야 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경우 작은변화 프로젝트를 통해 연결된 장학생이나 길잡이들과 맺어진 관계가 이후에도 지속되는지, 양적 또는 질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사업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 역량이 다른 사회적 자본들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름다운재단 지원/비지원 집단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보호종료성인들(이하 지원집단)과 지원을 받지 않은 동년배 보호종료성인들(이하 비지원집단)의 경험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평가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일차적으로는 이 사업의 대상이거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호종료성인들이 어떠한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차적으로는 지원을 받는 이들과 받지 않는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였다. 비교의 차원은 현재의 생활과 과거 생활경험, 그리고 국가지원에 대한 경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차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생활

현재 생활은 직업과 소득, 교육/훈련,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의 하위범주별로 파악하였다. 첫째, 직업에 대해 살펴보면, 비지원집단의 경우 대학생과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으로 구분되었다. 지원집단의 경우에도 대학생(휴학생 포함)과 직장인, 취업준비생 등으로 구분되어 비지원집단과 유형상의 차이는 없었다.

둘째, 소득 유형을 분석하였다. 비지원집단의 경우, 수입 원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자립수당, 근로급여, 장학금 등을 거론하였으며, 대략 130-25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은 생활비와 적금(청약 포함)으로 나가고, 보험은 일부가 가입하고 있으나 유지상태는 불안정하다고 하였다. 지원집단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지원비, 장학금, 근로소득, 용돈 등을 수입 원천으로 들었다. 제시된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다른 차이는 없고, 각 집단의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훈련의 경우 두 집단 모두 대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육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집단의 경우 추가로 취업준비나 자격증, 어학 등을 위한 학원교육과 인터넷 강의 등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공식교육만 언급한 비지원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이 교육훈련 차원에서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주거 영역에서도 별다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LH주거지원을 받아 혼자 자취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대학 기숙사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숙소, 연장보호를 받는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관 등에서 생활하고 있고, 소수는 보호종료 후 다시 만난 부모나 형제, 친인척과 동거하고 있었다.

다섯째, 건강 상태는 비지원집단이나 지원집단 모두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지원집단 중 1명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사례도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회적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친부모와 관계가 대부분 단절되어 있었으며, 소수만 한쪽 부모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고, 양쪽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고 연락을 하는 경우는 1-2사례에 불과했다. 형제와 같이 살거나 연락하는 경우도 각각 한명씩 있었다. 그밖에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보호제공자들이 최소 1명씩은 연결되어 있고, 각각 차이는 있지만 가끔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들 보호제공자들은 자립을 위해 나갈 때 집을 같이 알아보고, 계약을 도와주거나 가재도구 장만을 지원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요긴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수의 보호종료성인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보다 친밀감은 적지만 대학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일상생활 패턴과 현재의 행복감, 현재 고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도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비지원집단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고, 지원집단의 경우 질문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답변이 안 되어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은 생략하고자 한다. 해당 범주와 질문에 대한 비지원집단의 경험은 아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② 과거 경험

여기에서는 보호종료 이전의 과거 경험들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립 전 생활과 자립 준비 경험, 자립 시 상태, 이전 생활경험, 자립 후 생활 등으로 구분되었다. 자립 비용과 (LH주거지원사업) 신청 조건, 자립 시 재정 도움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있었지만, 비지원집단에만 해당되어 기술은 생략하고자 한다.

첫째, 자립 전 생활은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로 들어오기 전의 경험과 아동복지서비스 체계 내 보호경험을 탐색한 것이다. 비지원집단의 경우 빈곤, 학대, 방임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의 경험은 상이하게 해석되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결정했던 부모나 친인척, 공식 서비스제공자가 결정했던 잘 한 결정이라고 하였으며, 시설 생활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시설에서 배운 것이 없으며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시설이든 공동생활가정이든 위탁가정이든 자신이 생활한 공간을 집으로 여기고 있었다. 한 사례의 경우 연장보호로 시설에서 계속 생활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매일 시설에 늦게 들어가서 시설아동들이나 직원들과 접촉이 많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지원집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정폭력과 빈곤이 두드러진 입소 원인이었으며, 다양한 경로로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 의뢰되었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부모와 절연하고 일부만 한쪽 부모나 조부모 등과 연락하면서 지내왔다. 형제가 같이 부모와 분리된 경우 형제와 함께 시설에 거주하고, 퇴소 이후에도 그 형제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례도 있었다.

둘째, 자립 준비 경험은 두 집단 모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지원집단 중에서 시설에서 생활한 경우 대부분 자립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자립지원요원이 정보를 제

공해주었으며, 담당 보육사들도 평소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따로 프로그램은 없고 평소 생활하면서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을 담당하며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부모가 의도적으로 가르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보고배운 경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식사준비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빨래나 청소의 경우에는 성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자립지원요원과 별도로 접촉하여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정보제공 수준에 머문 것으로 경험되었다.

지원집단의 경우, 답변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경험 수준은 비지원집단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준비한 경험을 가진 사례는 없었으며, 정해진 교육 훈련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부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이 현재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자립 시 상태에 대해서도 두 집단의 경험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빨래와 청소 등 기본적인 가사는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는데, 음식을 차려먹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그보다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 적지 않은 연구참여자들 직접 음식을 만들어먹기 보다 즉석식품이나 배달음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다수의 연구참여자들 제시한 공통적인 어려움은 재정관리였다. 자립정착금과 CDA로 받은 몫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생계급여와 자립수당, 아르바이트를 통한 근로소득 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재정 관리의 경우 기본적인 교육은 받았지만, 자립한 이후 실제 생활에는 도움이 안 되며 큰 혼란과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 내의 이전 생활경험에 대해서는 비지원집단보다 지원집단 쪽에서 더 풍부한 진술이 나왔다. 이 경험은 두 갈래로 크게 나뉘는데, 한쪽은 원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풍족함을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시설에서 폭력을 경험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고 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긍정적 평가에는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보다 개별적 지원이 더 잘 되었으며, 가정 같은 느낌을 주었다고 한 경우, 시설 생활이 안정감을 주었다는 경우, 물질적으로 원가정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지냈고,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다양하고 풍족한 생활과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만큼 지금 욕망을 갖고 열심히 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참여자는 시설에 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들 참여자에게는 아동복지서비스가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그와는 달리 시설에서 괴롭힘과 가혹행위 등을 당해 고통스러웠으며, 지금까지도 시설을 싫어한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고,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을 했다

는 이도 있었다. 초중교 학창시절을 통틀어 친구들을 시설에 한 번도 데려오지 않았고, 시설에 산다는 사실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는 시설생활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가 보다 친구들과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이슈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자립 후 생활에 대해서도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각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성만 부각되었다. 비지원집단에서는 갈 곳이 없음, 음식 문제, 재정관리 문제, 늦게 대학에 입학함, 주거비 부담, 이후 계획이 없음 등의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지원집단의 경우 친모와 같이 살고자 하였으나 갈등이 생겨 자립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종종 연락한다는 사례가 있었고, 재정적인 어려움, 외로움, 선택에 대한 책임, 재정관리 부담 등의 이슈들이 나타났다.

③ 국가 지원

국가 지원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과 CDA, 후원금, 자립수당, LH자립지원제도에 대한 답변들을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CDA와 후원금, LH자립지원제도의 경우 두 집단의 다수 구성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답변이 충분히 나오지는 않았으며, 주로 비지원집단에서만 질문이 제시되고 답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지원 유형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정착금은 두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받았는지 모르겠다거나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고 답변한 이도 있었다. 그리고 받은 금액은 알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용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모른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자립정착금 사용에 대한 답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보호제공자가 자립정착금이 든 통장을 맡아두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종료성인이 이 통장을 스스로 갖고 있으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이며, 나머지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이 돈을 지출하고 있는 다양한 경우들이다. 보호제공자나 자신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받은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이들은 당장의 어려움이나 사용처에 급급해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목돈이 필요할지 몰라 미래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 통장을 털어버린 이들 중에서는 주거비(대부분 보증금)로 지출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를 남겨두거나 생활비로 조금씩 나눠서 쓰거나 가구 구입, 교육비 지출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들이 있었다. 자립정착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비지원집단과 지원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참여자들은 자립정착금을 대학 교육비나 아르바이트를 대체하는 소득, 학원비 지출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의 교육비와 중복되는 것이어서 조금 더 엄밀한 분석 또는 더 체계적인 재정관리의 필요성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으로 배치되었을 때 형성되어 적립되는 CDA는 아동의 보호시작 시점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영유아기에

시작된 아동들은 500만원 이상을 받게 되지만 청소년기에 시작한 아동들은 2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을 받게 된다. 이 돈의 용도는 자립정착금만큼이나 다양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답변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이 계좌를 주거 보증금 지출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였으며, 그대로 또는 일부를 남겨두었다고 한 경우도 있었고, 보호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이 지원제도 안에서도 비지원집단과 지원집단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후원금의 경우 시설에서 생활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것도 입소시기 등에 따라 개인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후원금의 경우 금액이 클 경우 자립정착금이나 CDA와 유사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립수당과 관련해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보호종료 된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지원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경험을 가진 사례가 거의 없었다. 비지원집단에서 자립수당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 생활비와 주거비로 지출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원집단의 경우 1명만 수당을 받았다고 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0여만원과 자립수당 30만원을 합치면 75만원 정도의 소득이 확보되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크게 잡힐 경우 수급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수당은 지원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한다. 또한 생계에 꼭 필요한 만큼만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것들만으로는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고, 학업에만 전념하거나 미래를 위해 돈을 들여 준비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자립정착금과 CDA, 후원금 통장 등에 있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때에 지출할 수 있는 재정관리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비지원집단의 경우 자립수당이 지급된다면, 생활에 여유를 줄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더 즐겁게 놀 수 있으며, 저축이나 적금으로 지출할 수 있고, 고정소득이라 안심이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자립수당 수급자격이 없는 보호종료성인들의 경우 생계급여에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빠듯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의 생활비 지원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한편, LH주거통합지원에 대한 평가와 의견도 적지 않게 제시되었다. 이 지원을 받는 연구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도 많이 제시되었는데, 집을 계약하려 갈 때 보호제공자와 LH 지원사업의 담당자가 동행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점, 그리고 LH 입주와 함께 매달 20만원 정도의 자립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챗봇에 대한 의견들도 있었는데, 정보제공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더 풍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자립수당의 증액과 차등 지원을 요구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자립수당을 증액해주었으면 좋겠고, 각 보호종료성인들의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종료성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지원집단에게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만약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다수는 자기계발비와 생활비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아르바이트 대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한 이도 있었다. 다만 작은변화 프로젝트와 같이 관계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을 고려할 때 그런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III-45〉 아름다운재단 지원/비지원 자립생활경험 비교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비지원	지원
현재 생활	직업	대학생 / 대학원생 / 취업준비생+알바 / 직장인	대재 5 / 대학 휴학중 1 / 대졸+취업 3 / 대졸+취준 4
	소득	<수입> 원천: 생계급여(40-50)+자립수당(30)+근로급여+장학금 등 수준: 130만-250만원 <지출> 생활비+적금(청약), 보험은 불안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지원비/장학금 근로소득(취업/알바/국가근로) 용돈
	교육/훈련	<학력> 고졸 / 전문대졸 다수 / 대졸 / 대학원 재학 중	대학 교육 학원(취업준비/자격증/어학) 인터넷 강의
	주거	직장(군대) 제공 숙소 / 부모(친척 포함) 집 / 자립관 / LH 지원주택 (대부분) 혼자 거주	단독 가구 8 (대부분 LH주거지원/친부모 지원 1) 친부모와 거주 1 / 형제들과 거주 1 / 친인척과 거주 1 / 대학 기숙사 1 / 연장보호(시설/공동) 1
	건강	대체로 건강 / 정신과 치료 1명	대체로 건강
	사회적 관계	<원가족> 부모 1명, 한부모 4명, 전혀 모름 2명, 형제 1명 <보호제공자> 시설, 공동생활가정 원장이나 보육사, 자립지원요원 또는 위탁부모 중 최소한 1인과 친밀한 관계 <공동생활인> 주요 관계망 또는 거의 교류 없음 <친척> 이모와 연락 <친구> 주로 고등학교 친구. 일부 대학 친구	전혀 모름 1 한쪽 부모 생존, 연락 2 양쪽 부모 생존, 연락 2 형제와 연락 1 친인척과 연락 1 가족과 동거중
	일상생활 패턴	대부분 식사가 문제. 시켜 먹거나 때우는 경우가 많음	
	현재 행복	설 때 / 인정받을 때 /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때 /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현재 고민	직장 적응 문제 / 외로움 /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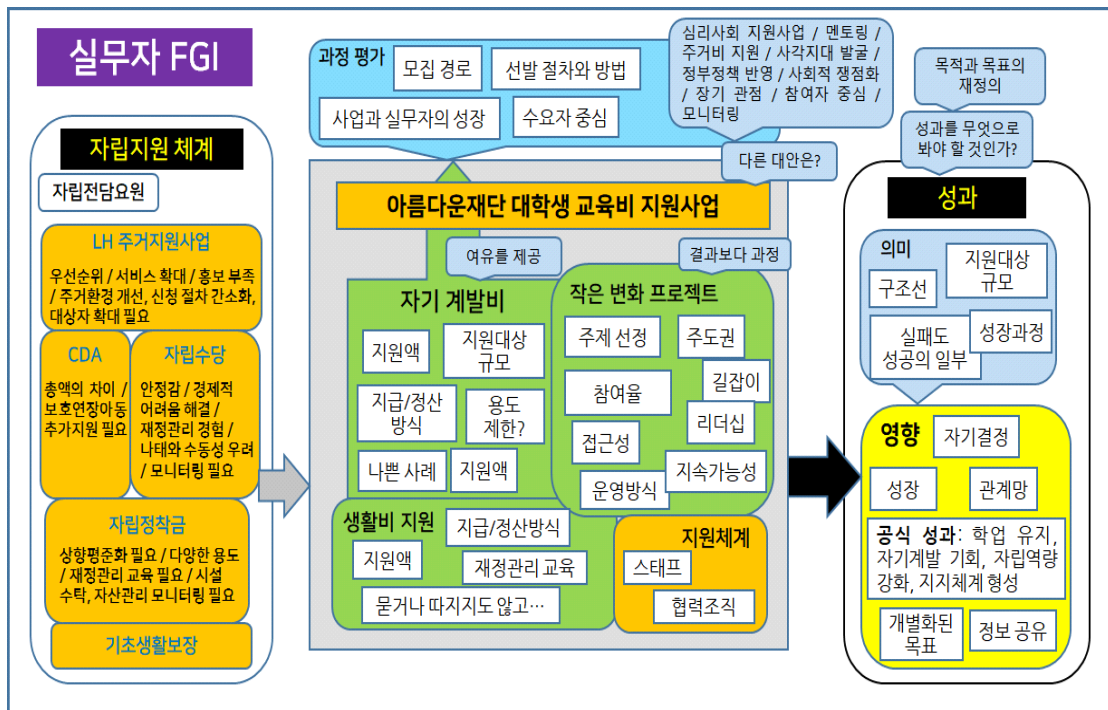
		불편(쓰레기 등) / 자산관리(대부분) 어려움	
	지자체 도움	보호제공기관과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정보제공	
과거 경험	자립 전 생활	빈곤, 학대, 방임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 잘 한 결정이라고 생각함 시설 생활하면서 단체, 사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음. 부족함을 많이 느낌. 시설은 집, 배움의 장. 연장보호로 시설에서 지내면서 알바를 통해 생활비 충당. 시설에서 같이 생활했지만 접촉은 많지 않음	<입소 원인> 가정폭력 1, 빈곤 2 <입소 경로> 재단, 지인, 조모, 친모(미혼모), 친부(양육 어려움) 등 <원가족 관계> 부모와 절연, 한쪽 부모와 조부모하고 연락, 형제와 연락 <원가족 경험> 아버지 학대로 따로 살게 됨. 중학생 때 혼자 생활. 고교 진학하면서 입소
	자립 준비 경험	시설의 경우 대부분 자립 준비프로그램 참여(자립생활관 입소체험). 자립지원요원이 정보제공. 보육사들이 평소에 조언하고 알려줌 공동생활가정은 평소 생활하면서 익힘 위탁가정은 경험 없음 자립지원요원: 생활체험 때 만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접촉 없음. 사람마다 다름. 정보제공 수준.	자립 시작 전 급하게 준비. 자립관에서 혼자 사는 교육훈련을 두 번 정도 받음. 이전 경험이 현재 도움이 됐다고 생각함.
	자립 시 상태	음식 문제+설거지 / 빨래, 청소 등은 어렵지 않음 / 재정 지출이 난제	식생활 부실 자립 생활 어려움 가사 준비되어 어려움 없었음 4개월 정도 자립 준비 후 퇴소 시설에 있던 공간이 사라져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음
	이전 생활경험	시설생활 기간이 짧아서 입대 / 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전전	시설에 비해 허전함. 개별적 지원이 더 잘 됨. 가정 같은 느낌. 시설 생활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음. 부족함 없이 지냄. 원가정보다 풍족함. 원장 역량으로 가정보다 풍족한 생활을 함. 열악함은 못 느낌. 돈이 남아서 걱정. 시설보다 풍족하고 질이 높음. 용돈도 충분히 받음. 시설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음. 경험한 만큼 욕망을 갖고 열심히 살게 됨 시설에 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함 친구들에게는 시설 생활을 말하지 않음. 시설 생활은 괴롭힘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음. 시설을 싫어함.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
	자립 후 생활	갈 곳이 없음 / 음식 문제 / 재정관리 문제 / 늦게 대학입학 / 주거비 부담 / 이후 계획이 없음	엄마 집에 거주/대학 기숙사/자취/공동 생활가정 연장보호 엄마와 갈등을 겪고 자립함/아버지와 종종 연락함 재정 어려움

			외로움 선택의 책임 재정관리 부담
	자립 비용	보증금+월세+관리비 천양지차 지역 간 LH 지원금 차이	
	신청 조건	LH 신청과 심사과정이 힘들고 까다 로움 / 운이 필요함 / 유지와 갱신 이 어려움	
	자립 시 재정 도움	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보증금이나 가구구입비, 휴대전화 구입 등 지원 대학 장학금, 한부모 장학금 등 수급	
국가 지원	자립정착 금 사용	받았는지 모름 정확한 금액을 모름 보호제공기관과 제공자, 또는 자립요 원에게 맡김. 미래의 위험에 대비. 주로 주거비로 지출. 일부는 생활비 로 상당액 지출. 일부는 그대로 남 겨둠	자립정착금 500만원은 모두 받음 미래를 위해 그대로 남겨둠/엄마에게 맡겨둠+퇴소 후 함께 지낼 집 구하는 데 사용+대학 졸업 후 본인에게 주기 로 함 자취 보증금+남는 돈으로 다른 항목 지출/집 보증금, 학원비로 사용/대학교 학습비로 모두 사용/가구 구입/학기를 편하게 다닐 수 있었음, 모두 지출/학 원비로 지출+100만원 남음
	CDA	주거 보증금 지출 / 그대로, 또는 일 부를 남겨둠 / 보호제공자가 보관	CDA는 200-500만원 사이 휴대전화 사기로 CDA 대부분 지출
	후원금	주로 시설아동들에게만 해당됨. 입소 시기 등에 따라 개인차가 큼.	
	자립수당 사용	잘 모름 / 생활비로 지출 / 주거비로 지출 / 연령 제한으로 끊김	대부분 못 받음(자격이 안 됨) 받고 있음 1, 아직 안 받음 1 자립수당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동 시 지원 가능. 취업 후 자동 탈수급 됨. 자립수당은 소 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적금방법이 가장 고민 됨. 다른 국가지 원 자산형성방법 모색.
	자립수당 도움	생활에 여유를 줌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더 즐겁게 놀 수 있음 저축, 적금으로 지출 고정소득이라 안심됨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됨	
	자립지원	LH 주거통합지원 프로그램 선정. 계 약시 동행. LH 입주와 함께 자립지원금을 받음. 매달 20만원 정도. 챗봇 정보제공 제한 자립수당은 증액과 차등 지원이 필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 원 필요.	
	미래 전망	군 제대 / 대학 재입학 / 여행, 해외 생활 / 직업 / 가족계획 / 워라벨	
	국가가	이미 충분함	

	해야 할 일		
의미	정의	자립의 발판 / 부담을 덜어줌 / 보험 / 삶의 원동력	
개선 방안	마지막 할 말	LH 지원 확대 / 서비스 정보제공 향상	
재단 사업 의견	아름다운 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자기계발비와 생활비 지원은 긍정적 / 알바 대신 자기계발 / 관계망 지원은 의문	

(3)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관련 실무자 FGI에 대한 분석결과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과 관련된 실무자 FGI 분석은 논리모델을 기본 축으로 하되, 자립 지원체계로 범위를 확장한 틀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실무자 초점집단은 아름다운재단 담당자와 협력단체인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 이 사업의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는 심사위원들, 그리고 자립지원단의 실무자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같은 사업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주체들이 보지 못하는 측면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통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실무자 FGI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 사업의 성과와 영향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과정요소들에 대해 평가한 뒤, 이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자립지원체계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FGI 참여자들의 사업 전반에 대한 총평을 듣고 정리하였다. 분석틀의 전체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I-2] 실무자 FGI 분석결과

① 사업 전반에 대한 총평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실무자들의 총평은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성장이 두드러져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이 사업에서 가장 부각되는 측면으로서 자립요소 중 하나인 관계망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은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 사업의 대상인 보호종료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②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성과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목적 및 목표, 성과 및 지표, 목적 및 목표 달성도, 발전 방향성, 기존 사업평가 방식과 사업의 변화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과 목표 자체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적과 관련해서는 공식 목적인 ‘안정적인 사회자립 도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 사업 초기의 목적이었던 교육권 보장과 달라졌다고 하였다. 목표에 대해서는, 먼저 공식 목표인 학업 유지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자립 준비 역량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등이 상당히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 또한 학업지속과 졸업을 향상 등의 사업 초기 목표와 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이 사업의 성과와 지표, 그리고 그것들이 이 사업의 목적, 목표와 적합한가에 대한 진술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일부는 현재 목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사업의 결과로 공식 목표들이 달성되고,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참여자들은 현재 지표들이 성과를 측정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판단하는데 적합한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본 사업이 그동안 평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실패를 성공 경험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는 점, 성장과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사례마다 자립의 지표가 다르다는 점도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사항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지원대상자(장학생) 중심의 목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셋째, 현재의 지표들을 가지고 목적과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 답변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기존의 목표가 대부분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향후 이 사업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현재 세부사업들을 더욱 활성화하거나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자는 의견과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 도입하자는 의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전체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들도 있었다.

먼저 전체 사업의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의견, 선발방법을 개선하자는 의견, 목적과 목표, 성과지표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 참여자 중심의 사업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현행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현행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강화하자는 의견과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 자립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 멘토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그밖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도입하자는 의견에는 심리사회적 자립지원의 확대, 다양한 지원방식 시도, 주거비 지원, 사각지대 발굴,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등이 포함되었다.

다섯째, 기존 사업평가 방식과 사업의 변화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모니터링과 업데이트 수행, 수요자 중심의 사업방식, 심사 기준의 모호함과 선발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차별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수요자인 보호종료 대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의 욕구와 편의에 맞춘 사업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더 분명하고 체계적인 심사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었다.

③ 아름다운재단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이 영역에서는 교육비(자기계발비), 생활비, 작은변화 프로젝트 각각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런데 다른 영역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이 세부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여하간에 각 세부사업별로 실무자들의 평가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계발비와 학비를 포함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지원규모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 지원금이 참여자(장학생)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여유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 실무자의 경우 취업준비생들의 월평균 생활비가 30만원이라는 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따라서 1년 동안 지급되는 300만원이 대략 이 수준과 일치한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생활비도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에게 여유를 준다고 하였다. 다만 여유를 주는 영역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생활비는 주로 식비와 주거관리비 등으로 지출되면서 해당 항목에 대한 여유를 주는 것이고, 자기계발비는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거나 그밖에 진로를 찾고 취업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기계발의 여지를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작은변화 프로젝트는 매년 그 안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참여자들의 대인관계와 주도적 생활경험, 자립시도 기회제공 등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길잡이라는 개입 대안은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안에서 이 세부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며, 성과나 결과가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

④ 보호종료성인들을 위한 공공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이 영역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보호종료성인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을 묻고 그 답변을 분석하였다. 물론 이 사업들은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운영되지만, 실제 보호종료성인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산 풀 내에서 운용되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연결되며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CDA(디딤씨앗통장), LH주거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각 사업별로 답변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정착금에 대한 평가이다. 현재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해야 하는 성인들에게 제공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 정도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여기에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자립지원단에 소속된 실무자들의 경험으로는, 이 지원금이 주로 주거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그밖에 취업준비와 자기계발, 저축 등으로 지출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출과 관련하여, 보호종료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립전담요원 등이 계획과 지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효과는 의심스러우며, 재정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종료성인들의 동의를 받아 시설 등이 이를 보관 가능하도록 하거나 특히 자산관리 측면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자립수당에 대한 평가이다. 올해 2020년부터 보호종료성인들에게는 매달 30만원씩 3년 동안 자립수당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시작된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급되는 수당은 보호종료성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학업과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당을 활용하는 재정관리 경험이 자립과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호종료성인들의 나태와 수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실무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당 사용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현행 제도와 같이 3년까지만 수당을 지급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3년 이후 자립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아동복지서비스 체계 내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즉 CDA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수령가능 금액이 2,400만원이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보호종료시 실제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은 천차만별이므로 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보호종료시 지원을 끊지 말고, 대학 입학이나 직업훈련 등의 사유로 보호가 연장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라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보호종료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사업으로 LH주거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리하였다. 일단 보호종료성인들이 이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점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안정적 주거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고, 선정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이 사업에 신청하고 선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표 III-46〉 실무자 FGI 분석결과

영역	하위영역	범주	개념
총평	소감	참여 청년들의 성장 자립 요소로서 관계망 형성 실무자의 성장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 꼭 필요한 사업	<성장과정> 인지적·정서적 안정 및 성장의 과정 <자립을 위한 실질 지원> 자기결정권 보장, 희망하는 삶 계획 및 선택 지원 <실무자도 성장> 장학생들의 참여모습, 조직하고 지지체계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서 함께 성장 <자립의 중요 요소(동력): 사람 관계> 믿고 소통 가능한 사람의 존재, 지지체계 형성, 자립 준비 동역자 존재 <모두가 만드는 사업> 협력단체 사업 담당자, 심사위원, 장학생이 함께 발전시키는 사업 <필요한 사업> 성인 이후 부족한 경제적 지원 및 후원연계 충족 <홍보가 아쉬운 사업> 가정위탁센터에 홍보 부족으로 참여율 저조 <구조선> 자립 압박감, 중압감, 불안감 등 해소, 자립에 대한 동기부여, 자립 돕는 동역자 존재로 안정감 형성

	<p>목적 및 목표</p>	<p><목적> 공식: 안정적인 사회자립도모 초기 목적(교육권 보장)과 달라짐</p> <p><목표> 공식: 학업 유지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초기 목표(학업지속, 졸업률 향상)와 달라짐</p>	<p><사업초기 목적> 사각지대 청년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서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 <사업초기 목표> 등록금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학업지속, 졸업률 높이는 것 <개인적인/정책변화 후 목적> 심리·사회적 자립 지원,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자립을 위한 기회 지원 <개인적인/정책변화 후 목표> 학업생활유지, 자기개발을 통한 기회제공, 장학생들 지지체계 형성 및 강화, 사회적 지원 <사업계획 목표> 학업생활유지, 자기개발의 기회 제공, 자립 준비 역량 강화, 지지체계 형성</p>
<p>아름다운재단 목적, 목표, 성과</p>	<p>성과 및 지표 (목적·목표 적합도 포함)</p>	<p>목표가 적합함: 실제 자기개발 기회 제공, 지지체계 형성, 자립 준비와 역량 강화에 기여</p> <p>그동안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함: 사업 자체의 특수성에 기인</p> <p>성과지표: - 실패도 성공 경험의 일부로 볼 수 있음 - 성장과정을 파악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자립의 지표는 사례마다 다름 - 지원대상자 중심의 목적, 목표 설정 필요</p>	<p><목적·목표, 지표 적합성> 적합함: 2명, 알 수 없음: 4명 <목적·목표, 지표가 적합한 이유> 아르바이트 줄임, 학업 및 자기개발에 집중할 기회 제공, 장학생 간 지지체계 형성, 선배들이 롤 모델이 됨, 다양한 아이들에게 관심과 기회 제공, 장학생들이 위안과 안도감, 감사함을 가짐 <사업평가 없이 사업 지속된 이유> 재단 1호 기금 사업이고 재단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는 특수성, 정부정책 부족 부분 채우고 있다고 생각 <자립의 성과 지표> 장학생 지원, 장학생 사업 참여 과정 중 성공, 실패 경험 모두가 자립 성공의 성과, 자립 지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임</p>
	<p>목적 및 목표 달성도</p>	<p>기존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보임: 경제적 부담 완화, 자기개발 기회 제공, 지지체계 형성</p>	<p>대부분 다 달성했음</p>
	<p>발전 방향성</p>	<p>대상자 확대 선발방법 개선 현행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 심리사회적 자립지원 확대 자조모임 활성화 자립정보 공유와 확산 체계 구축 참여자 중심의 사업운영 멘토링 체계 강화 다양한 지원방식</p>	<p><장학생 선발> 사업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 대상자 확대,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지원이 간절한 학생의 선발 <사업 목표에 따른 강화될 점> 심리·사회적 자립 사업 확대 및 강화, 지지체계 형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대상자 중심의 사업 운영 <장학생 서포트> 장학생, 길잡이 역할 더 필요, 장학생 자립 보조를 위한 서포터즈, 멘토링, 멘토양성 프로그램 체계화 <사회적 영향> 다양한 지원 방식 시도 및 정부정책의 사각지대 발굴, 좋은 성과 정부 정책 반영, 자립과 변화 성과의 지표 정의, 보호종료아</p>

		주거비 지원 사각지대 발굴 정부 정책 반영 목적, 목표, 성과지표의 재정의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대 한 사회적 이슈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운영	동 지원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 사회적 이슈화 <기타> 장기적인 사업 운영, 교육비, 자기계발비 외 주거비 사용지원 <아름다운재단 계획> 작은변화 프로젝트, 길잡이 활동 보완 및 강화,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한 지지체계 형성, 장학생 간 정보공유 강화
	기존 사업평가 방식과 사업의 변화	모니터링과 업데이트 수행 수요자 중심 심사 기준의 모호함과 선발의 어려움	<사업평가> 매년 7, 8월 경 중간사업평가 후 사 업 보완 회의 진행 <사업 변화> 사업 담당자, 심사위원, 장학생의 의 견 반영, 지원대상자 중심, 편의성 고려한 지속 적인 변화. ex. 작은변화 프로젝트, 지원금 선 지급/후 지급 <심사기준> 1위: 간절함, 필요성. 2위: 실행력, 계획성. 그 외. 반복지원, 열정, 노력 의지, 관련 경험 기존 심사 기준으로 심사하기 어려움
아름 다운 재단 세부 사업 평가	자기 계발비	지원규모는 적절함 참여자들에게도 여유를 줌	<자기계발비> 금액: 300만원, 산정 기준: 취준생 월평균 생활비 30만원 적절도: 유사사업과 비교했을 때도 적절하다고 봄 <자기계발비 평가> 보호종료아동에게 여유를 줌
	생활비	참여자들에게 여유를 줌	보호종료아동에게 여유를 줌
	작은변화 프로젝트	세부 프로그램에는 매년 변화가 있음 참여자들의 대인관계, 주 도적 생활경험, 자립 시도 기회제공 등에서 영향을 미침 길잡이 옵션은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결과가 아닌 과정에 초 점을 맞춰야 함 꼭 필요함	<프로젝트의 변화> ~2018년: 지역별 자조모임 2019년~: 작은변화프로젝트 <성장 프로그램> 대인관계능력 향상 자기주도적 삶 경험의 과정 장학생들에게 영향력이 큼 <장학생과 길잡이> 장학생: 선배 멘토가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 공감대 형성과 장학생의 참여도 향상 발견 가능 길잡이: 배우는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 강화 <결과가 아닌 과정> 프로젝트 과정 중 배움, 실패가 포용되는 경험 제 공이 핵심 <영향력> 다양한 방법으로 자립 시도 기회 제공 반드시 필요함
공공 지원 사업	자립 정착금	규모는 상향평준화가 필 요함 주로 주거비, 기타 취업	<자립정착금 금액> 17년부터 500만원 권고 기준, 현재 지자체 자체적 상향조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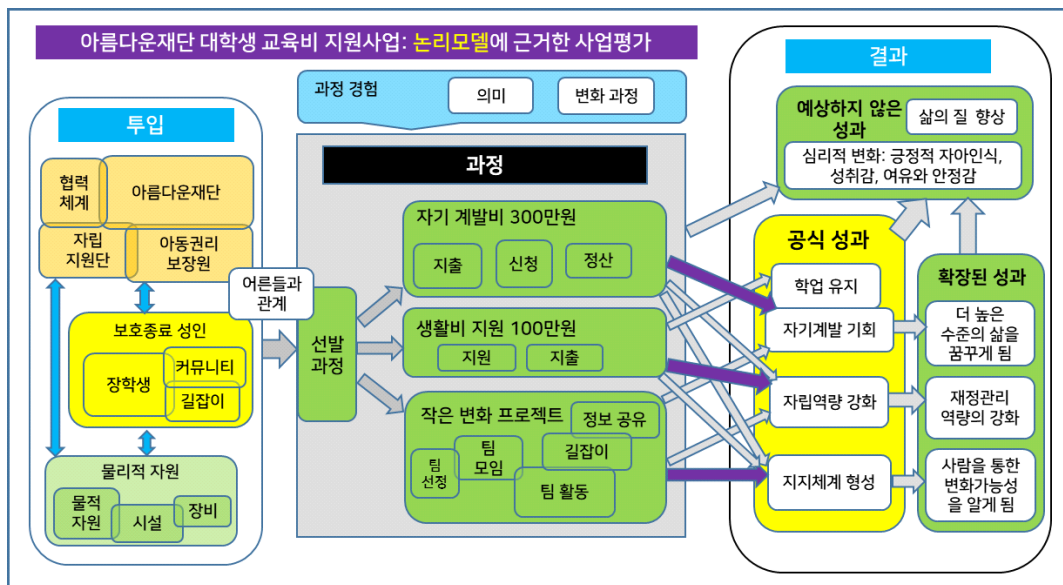
평가		<p>준비, 자기계발, 저축 등으로 지출 경제교육 의무, 자립전담 요원 등이 계획과 지출 관리, 센터 내 필수 교육임 본인 동의 후 시설 등이 보관 가능하도록 하거나 자산관리 등 사후 관리 필요</p>	<p>상향평준화 필요 <정착금 사용> 1위. 주거비 그 외. 취업 준비, 자기계발, 저축 <정착금 사용 계획 및 경제교육> 퇴소아동 요구로 경제교육 의무적으로 받게 됨, 정착금 사용 계획에 대해 자립전담요원, 사례상담원이 관리함 센터 내 필수적으로 받는 교육임 <건의사항> 본인 동의 후 정착금 시설 보관 가능하도록 조정 정착금 사용 관리 등 사후관리 방안 필요</p>
	자립수당	<p>심리적 안정감 제공 학업과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 재정관리 경험이 자립과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태와 수동성 우려</p> <p>수당 사용 모니터링, 사후관리 체계 필요 3년 이후 자립수준 확인 필요</p>	<p><자립수당 운영> 올해부터 매달 30만원씩 3년 지원 <평가> 보호종료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감 줌, 매우 긍정적임, 비연고자의 학업,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 종사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금전적 지원 증가로 인한 우려와 기대> 우려: 보호종료아동들이 나태하고 수동적으로 변화 기대: 돈 운영의 경험이 자립과 사회적응에 도움 <건의사항> 3년 이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수준 확인 필요, 수당 사용 모니터링, 사후관리 방법 체계화 필요</p>
	CDA	<p>최대 수령가능 금액 24,000천원 보호연장아동들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p>	<p>1세부터 납부 시 수령 금액: 24,000,000원 보호연장아동에게 추가 지원 방안 필요</p>
	LH 주거지원 사업	<p>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 순위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대됨 안정적 주거지원 가능해짐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선정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 신청과 선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필요</p>	<p><현황> 올해 보호종료아동 우선 선정임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대됨 안정적인 주거 공공지원 가능</p> <p><건의사항> LH주거지원제도 홍보 부족 낙후된 주택환경으로 주거환경개선 필요 절차 복잡함, 책정까지 6개월 소요, 선정 이후 2-3개월 입주 대기 시간, 복잡한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필요</p>

(4)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투입과 과정, 성과를 연결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그림>과 같다. 자기계발비와 생활비, 작은변화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과정요소들과 공식적인 성과들의 직접적인 관계와 확장된 성과 및 예상하지 않은 성과 사이의 간접적인, 또는 영향 관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III-47>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투입 및 과정, 성과의 관계

투입 및 과정	성과	
<p><투입> 아름다운재단 관계자 등: 장학생의 성장에 관심을 둬, 장학생을 응원함, 대상자가 아니라 지인으로 여겨줌, 우리 편임, 묻고 듣고 고민하고 반영하는 담당자, 장학생/길잡이 등과 파트너십 관계</p>	<p><공식성과> ① 학업 유지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 학습에 도움, 책에 흥미를 갖게 됨, “나”를 위한 투자, 학업 중단 위기를 극복함, “어쩔 수 없음”에서 벗어나 도전함, 목표에 다가가는 계기 ② 자립준비 역량 강화 -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얻음, 책임감, 과제수행능력 향상 ③ 지지체계 형성 -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남, 실질적인 도움</p>	<p><확장된 성과> 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꿈꾸게 됨 ② 재정관리 역량의 강화 ③ 사람을 통한 변화가능성을 알게 됨: 사람이, 관계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경험</p>
<p><과정> 자기계발비 지원 생활비 지원 작은변화프로젝트 활동</p>	<p><공식적으로 예상하지 않은 성과> ① 심리적 변화: 긍정적 자아 인식, 성취감, 여유와 안정감 ② 삶의 질 향상: 삶의 만족 증가</p>	



<그림 III-3> 투입-과정-성과의 관계

다음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제언은 이 사업의 목적과 목표, 사업의 구조와 과정, 세부사업들에 대한 제안의 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이 사업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과와 변화의 표적 등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이 사업의 목적은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며, 목표는 ‘학업 유지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자립 준비 역량강화 및 지지 체계 형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과 목표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이러한 목표들을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평가연구에서 드러난 이슈는 이 사업의 과정과 활동 자체가 목표들에 밀착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면 목표는 ‘당연히’ 달성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업 유지 용도로 지원된 교육비를 받은 장학생이 이를 등록금의 일부나 이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할 수 밖에 없었던 아르바이트 수입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학업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른 수입원천을 활용하여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장학생이 교육비를 취업준비나 대학 교과과정의 학습비용, 어학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다면 ‘당연히’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업이 대상자인 보호종료성인들의 변화를 지향한다면, 변화의 표적과 성과, 목표 설정 차원에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이 사업의 변화 표적으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제안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대상자인 보호종료성인 대학생(장학생)들의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여기에서 제시된 인적 자본은 장학생들의 개별화된 목표를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물적 자본에는 ‘재정관리 역량’을 추가하고, 사회적 자본에는 사회적 지지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과 대인관계능력, 사회성 향상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경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본에는 대학 졸업 여부와 성적 수준이 성과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대처능력 등의 심리사회적 역량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업이 대상자들의 ‘자립 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접적 개입을 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목표를 제외하거나 반대로 더 적극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양적 연구에서는 자립 준비도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하였는데, 이 측정도구에 포함된 항목들의 목록은 이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들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호종료 이전에 받은 자립 준비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자립 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업 내에 포함하거나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아예 목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다.

둘째, 이 사업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비 300만원과 학업생

활보조비 100만원, 작은변화 프로젝트의 세 축으로 구성된 사업 구조 자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단기어학연수와 자립정보 교육, 길잡이 활동, OT, MT, 홈커밍데이 등이 추가되지만 이는 부수적인 항목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립 준비 역량’ 을 변화의 표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자립 준비 역량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작은변화 프로젝트 내에서 길잡이나 또래 장학생들과 공유하는 수준의 정보나 자립정보 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자기계발비와 학업생활보조비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정산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과 맞닥뜨리게 하는 것만으로는 자립 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작은변화 프로젝트의 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소집단을 더 나누고 1명의 길잡이가 소수의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병행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매트릭스 구조로 전체 장학생과 길잡이들을 재구조화하여 작은변화 프로젝트와 별도로 소집단 멘토링을 실시하는 대안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학생들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엄밀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모든 형태의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심사위원들 사이의 견해 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별 심사위원들의 선발 기준이 결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며, 전체 선발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이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업의 추진체제와 심사위원단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발 기준에 대해 논의하여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으며, 더욱 공정하고 공평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직은 연륜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길잡이들의 선발기준을 보완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배 장학생들을 길잡이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길잡이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장학생들을 잘 이끌고 도울 수 있는 길잡이들을 계속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프로그램에 투입하면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업의 역사는 길잡이들의 성장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세부사업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학비와 자기계발비를 포함한 교육비 지원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적절해 보이지만, 개별 장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는 유연성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그 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절차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300만원의 정액을 흔드는 것은 공정성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쉽지 않겠지만, 각 장학생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며, 개별적인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교육비 지급방식은 선결제,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내에서 지출규모나 상황에 따라 재단이 필요 경비를 직접 미리 지급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각 장학생들이 지출용도와 항목을 미리 충분히 고민하여 지출계획을 세우고 추진체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절해 가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특정한 지출항목이 허용되거나 금지되고, 이것이 장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의 형태로 회자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출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허용되는지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업생활보조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앞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할 것인지 2회로 나눌 것인지 분기별로 지급할 것인지, 지출증빙을 요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용도를 제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보호종료성인들이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통장 등에 적립된 자산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자립수당 등으로 보호종료 이후 수년 간 소득을 얻고 있음을 고려할 때, 100만원이라는 목돈의 지출 자체보다는 전체 재정을 관리하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개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작은변화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는 더욱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이 세부사업의 성과라는 측면과 세부사업 내에서 구성되고 길잡이들과 장학생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커뮤니티의 역량,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학생들의 경험과 성장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 2년 간 진행된 팀별 프로젝트 방식의 사업 구조는 이전 방식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팀 간의 활성화 수준과 역량 수준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하며, 각 팀 안에서도 참여도와 활동수준, 경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길잡이들도 이러한 차이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동성과 차이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장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두 번의 기회에 그치는 팀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복불복' 처럼 운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외되거나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장학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 두 명의 담당자나 실무자의 일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길잡이들의 역량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된다. 작은변화 프로젝트가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일정한 문화를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전승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진행되어온 ‘보호종료아동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대상 통합적 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양적, 질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아동정책개발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보호종료 후 대상아동들은 주거지원, 생활비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고, 실제 이용한 서비스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심리정서적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적인 분석결과에서 아름다운재단 서비스 지원기간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이나 학업중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말해 장기간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들의 경우 사회적 박탈경험의 완화와 학업을 지속시켜나가는 데 실질적 도움을 받고 있고, 이러한 경험이 향후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심리정서 프로그램들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의 참여유무 보다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말해 지원을 보다 장기적으로 동일한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이 사업대상자들에게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업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가급적 신입생 시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시기와 대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 졸업반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서비스 기간을 3년까지 보장하도록 계획한다. 예컨대, 신입생이 되는 연초에 사업대상자를 선발하고, 실제로 장학금이나 생활비가 지급되기 전에 재정관리 등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기간을 통해 각자의 4년간 혹은 그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 시기에 길잡이와 같은 파트너를 연결하여 정보 및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통로를 갖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개별대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학업 및 진로계획에 따라 필요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발휘하여 지원하되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엄밀하고 체계적이니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업의 추진체계와 심사위원단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발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공평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실제로 자립하

는 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없다. 아름다운재단사업은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캠프, 작은변화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업참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결과적으로 사업참여자들은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작은변화프로젝트의 길잡이는 개인별로 역량의 차이가 커서 프로그램의 의도를 달성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다시말해 길잡이들의 선발기준을 보완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길잡이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이들의 성장을 위한 개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참여자들의 성장에 궁극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자립은 진행되는 과정이다. 즉, 퇴소이후 지속적으로 자립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지원서비스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매뉴얼화된 자립서비스 외에 개별적 상황을 반응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가 길잡이일수도 있으나, 시설의 자립전담요원이나 생활복지사 일수도 있고, 공공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일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는 그야말로 민과 관이 함께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아름다운재단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근거에 기반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생성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사업의 참여자들에게 진입 당시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안내하여 당사자들 스스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모델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입초기의 사업참여자들의 상황을 통해, 본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하기 위한 기초선 자료를 수집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세부사업별 서비스의 횟수, 기간 등을 통한 효과를 평가하고, 과정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행과정상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

오늘날에 비해 2001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정도는 매우 낮았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도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그 때에 비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물질적인 지원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내용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자립과정에 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한 변화를 위해 다시한번 사업을 재설계하고,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대학에 진학한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보호종료를 맞이하는 더 많은 청소년들은 자의든 타의든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게 된다. 본 사업과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보호종료아동의 개별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보다 촘촘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집문당.
- 김민정·이희경, 2014,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강점활용과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권 5호: 1811-1830.
- 신혜령·한지은·백미진·김진희, 2006. 『보호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매뉴얼』 보건복지부.
-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교보교육재단, 2019, 『2019 교보교육재단 사업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2019,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 국회입법조사처,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 강현아, 2005, 「위탁아동의 학업성취향상 요인에 관한 연구: 위탁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권 5호: 59-72
- 권지성·정선옥, 2009,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권 3호: 229-253
- 김경근, 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연구』, 10권 1호: 21-40
- 김민선, 2019, 「학업중단 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과 삶의 만족도, 우울의 관계 진로장벽과 진로낙관성을 매개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권 21호: 1029-1056
- 김수정·김지선·정익중, 2017, 「가정외호보 퇴소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8호: 1-45
- 김예성·이경상, 2015, 「시설청소년의 자립 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2호 : 7-32
- 김정연·하지선·김인숙, 2011, 「시설 십대 청소년의 자립척도개발: 십대 여성 지원 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권 2호: 23-53
- 김지선·이민주·정익중, 2018,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유예한 대학생의 자립 준비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62호: 93-129
- 김창일, 2017, 「사회적자본이 지역주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GRI 연구논총』, 10권 3호: 89-115
- 김혜연, 2020,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권 3호: 41-68
- 김홍주·안윤숙, 2020, 「시설퇴소 비행청소년의 자립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4권 1호: 25-60
- 문성호·박지원, 2018,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정책 분석」, 『청소년학연구』, 25권

- 12호: 257-279
- 문화진, 2019,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불안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권 23호: 445-464
- 박신애·최옥채, 2018,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경험」, 『사회과학연구』, 34권 2호 : 127-153
- 박희봉·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한국행정논집』, 17권 3호: 709-729
- 박혜지·이정화, 2020,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1권 1호: 65-80
- 보건복지부, 2006, 『보호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 연구』
- 보건복지부, 2020,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3권.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8,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6.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송이은·손정연·곽태희, 2019, 『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 신지혜·강현아, 2017, 「가정 외 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8호: 77-102
- 신화경·조인숙, 2005,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6권 3호:99-108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1호: 90-124
- 신혜령·김성경·안혜영, 2003, 「시설퇴소아동 자립생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호: 167-193
- 아름다운재단, 2020,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2001~2019) 결과보고서. 아름다운재단 내부자료.
- 아름다운재단·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5, 『2015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활동집』
- 아름다운재단·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6, 『2016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활동집』
- 아름다운재단·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 『2017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활동집』
- 아름다운재단·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8, 『2018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작은변화 이야기』
- 아름다운재단·아동권리보장원, 2019, 『2019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작은

변화 이야기』

- 안희란 · 이용교, 2020, 「시설퇴소 청년들의 자립지원교육에 대한 요구」, 『청소년복지연구』, 22권 2호: 61-84
- 양은별 · 김지혜 · 정익중 · 이정희. (2017).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시설퇴소청소년의 경험. 청소년복지연구, 19권 4호: 133-158
- 이상정 · 류정희 · 임정미 · 이주연 · 노혜련 · 변미희, 2018,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연구』
- 이진향 · 오미옥, 2014,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8권 3호: 313-330
- 이정애 · 김시아 · 김지선 · 정익중, 2019, 「가정 외 보호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5호: 23-56
- 이태연 · 최은숙 · 이세정, 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청소년들의 생활경험과 자립 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청소년학연구』, 26권 4호: 293-322
- 이혜연 · 서정아 · 조홍식 · 정익중 · 김귀량, 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장정은 · 전종설, 2018,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초기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0권 2호: 95-125
- 장혜림 · 이정애 · 강지연 · 정익중, 2017, 「가정 외 보호 퇴소청소년의 무업자 생활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7호 : 9-42
- 조규필, 2011, 「취약청소년 자립 준비요인 탐색 및 시사점」, 『청소년복지연구』, 13권 2호: 97-120
- 조소연, 2013, 「커밍아웃: 탈북 대학생의 자기 드러내기 경험」. 『교육인류학연구』, 16권 2호: 12-42
- 조소연 · 노혜련, 2018, 「공동생활가정 아동-친가족 관계회복을 위한 실천 사례 연구: 탈북 아동 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4호: 65-106
- 한세희 · 김연희 · 이희선, 2010,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4권 3호: 37-59
- 한재명 · 류재린 · 김균, 2015, 「관계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사회경제평론』, 46호: 103-141
- 허민숙,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 허정운 · 최순중, 2020, 「청소년의 자립 준비와 취업욕구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7권 2호: 149-173.
- 현대차정몽구재단, 2019, 『2019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회공헌 백서』
- Björnskov, C., 2006,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 22-40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Westport, CT*:

- Greenwood Press*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Extending Personal Adviser support to age 25; New burdens assessment」
- Helliwell, J. & Putnam, R.,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for the Royal Society London B*, 359: 1435-1446
- Helliwell, J. & Barrington-Leigh, C., 2010, 「How Much is Social Capital Worth?」, NBER working paper N.1602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 HM Government, 2016, 「Keep on Caring : Supporting Young People from Care to Independence」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chler, F., 2006,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young Europeans, Feeling happy but who knowswh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 419-444.
- Powdthavee, N., 2008, 「Putting a price tag on friends, relatives, and neighbours: Using surveys of life satisfaction to value social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7: 1459-1480
- Sara G, Lisa A. S. & Jeffrey J. S., 2011. Why youth leave care: Understandings of adulthood and transition successes and challenges among youth aging out of child welfare, *Children and Youth Review*, 33: 1039-1048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DOI: 10.1207/s15327752jpa5201_2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6495>.
- 아동권리보장원. 2020. 자립정보북. <http://www.ncrc.or.kr/upload/ncrc/02.sodeuk.pdf>
- 위키백과, 2020년 검색. 경계선 지적 기능. https://ko.wikipedia.org/wiki/%EA%B2%BD%EA%B3%84%EC%84%A0_%EC%A7%80%EC%A0%81_%EC%A7%80%EB%8A%A5
- 삼성뉴스룸. 2020 검색. 「삼성전자, 보호종료 청소년의 홀로서기 지원하는 ‘삼성 희망디딤돌’ 사업 전국 확대」, <https://bit.ly/2CfaRmK>
- 한국아동복지협회 삼성 희망디딤돌센터
[http://www.adongbokji.or.kr/adong/html/3_4.asp?PB=보호종료아동청소년자립통합지원사업\(삼성희망디딤돌센터\)](http://www.adongbokji.or.kr/adong/html/3_4.asp?PB=보호종료아동청소년자립통합지원사업(삼성희망디딤돌센터))

ACF홈페이지, 2020년 검색.

<https://www.acf.hhs.gov/fysb/programs/runaway-homeless-youth/programs/transition-al-living>

FC2S 홈페이지, 2020년 검색. <https://www.fc2sprograms.org/about-etv/>


Youth build 홈페이지, 2020년 검색. <https://www.youthbuild.org/what-we-do>

영국중앙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16-to-19-bursary-fund-guide-2019-to-2020-academic-year>

부 록

1. 양적연구 설문지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설문지 		
--	--	--

설문지 ID	설문조사 날짜	년 월 일
--------	---------	-------

※ 설문지 ID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는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대리보호체계에서 보호종료된 여러분들의 실제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종료된 대상자들에게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 응답내용은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복지서비스와도 무관함을 말씀 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이 향후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 관련 정책 개발과 발전에 귀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구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020. 6

- ② 연장종료(만18세 이후에도 시설/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대학졸업(휴학, 자퇴 포함), 취업 등으로 종결 (▶문7로)
- ③ 중도퇴소(①, ②가 아닌 경우) (▶문6-1로)
- ④ 기타 (직접 기입: _____)

6-1. [중도퇴소의 경우] 귀하가 시설을 중도에 퇴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어서 ② 친척이나 친지와 함께 살게 되어서
- ③ 취업, 군입대 등으로 인해 ④ 무단퇴소함
- ⑤ 기타(_____)

7. 귀하의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아니오(대학진학 준비 중)
- ② 아니오(취업 준비/구직 중)
- ③ 아르바이트 중
- ④ 취업 중
- ⑤ 기타(_____)

※ '취업 중' 은 단순 장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니며, 수입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B.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8. 다음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정부와 지자체(자립지원단 포함)에서 제공하는 지원정책/서비스입니다. 각 정책에 대해 본인의 지원/참여 여부와 지원/참여 기간을 기입해 주세요.

지원정책/서비스	지원/참여여부	지원기간
자립정착금	① 받았음 ② 받지 않음	
CDA (디딤씨앗통장)	① 받았음 ② 받지 않음	
자립수당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국민기초생활급여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국가장학금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공동생활가정입주 (자립형 그룹홈)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자립생활관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경제선지능아동 자립지원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주거지원 (정부지원 공공주택) 예) LH 임대주택 등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주거지원+ 사례관리)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바람개비서포터즈 (멘토로 참여)	① 참여경험 없음 ② 과거 참여경험 있으나 현재 참여하지 않음 ③ 현재 참여하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바람개비서포터즈 (멘티로 참여)	① 참여경험 없음 ② 과거 참여경험 있으나 현재 참여하지 않음 ③ 현재 참여하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그 외 ()	① 과거 참여경험 있으나 현재 참여하지 않음 ② 현재 참여하고 있음	① (년 월)~(년 월) ② (년 월)부터 현재

9. 다음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민간기관/기업/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입니다. 각각에 대해 본인의 지원/참여 여부와 지원/참여 기간을 기입해 주세요.

지원/서비스	지원/참여여부	지원기간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주관:구,아동자립지원단) (교육비+생활보조비)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주관:구,아동자립지원단) (단기어학연수)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나의 꿈을 찾는 숲속 힐링교실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온드림 청사진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아름다운 가게] 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지자체 지원센터] 중앙아동청소년 자립 통합 사업단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한국SOS어린이마을] SOS 자립생활관	① 받은 경험 없음 ② 과거에 받은 경험 있으나 현재 받지 않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② (년 월)~(년 월) ③ (년 월)부터 현재
그 외 ()	① 과거 참여경험 있으나 현재 참여하지 않음 ② 현재 참여하고 있음	① (년 월)~(년 월) ② (년 월)부터 현재

10. 다음 중 귀하가 보호종료 이후 지원받았던 서비스를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중복응답)

- ① 생활비 지원(식비, 교통통신비, 의류비, 생필품 구입비 등)
- ② 주거지원(전월세보증금, 월세지원, 주거임대)
- ③ 의료지원(건강검진, 수술, 치료 및 약품구입)
- ④ 학업지원(대학입학금, 등록금, 학원비 등)
- ⑤ 자립지원(직업훈련, 창업자금 대여 등)
- ⑥ 상담지원(개별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 ⑦ 법률지원(법률상담, 소송 등)
- ⑧ 활동지원(문화여가활동, 어학연수 등 해외교류활동 등)
- ⑨ 집단활동(동아리, 자조모임, 자치활동 등)
- ⑩ 사례관리
- ⑪ 멘토링(멘토로 참여/ 멘티로 참여 구분)
- ⑫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11. 귀하가 **보호종료 이후** 지원받았던 서비스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 응답한 보기 중 두 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12. **보호종료 이후**, 귀하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한 기관은 어디인가요?(중복응답 가능)

- ① 정부기관 (LH, 기초생활수급) ②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 ③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④ 민간(후원) 단체(아름다운재단 등)
- ⑤ 아동자립지원단 ⑥ 기타 (_____)

13. **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
- ② 인간관계의 어려움
- ③ 거주할 집 문제
- ④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 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의 부족
- ⑥ 아프거나 긴급사고 시 도움청할 곳 부족
- ⑦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 ⑧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
- ⑨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 ⑩ 학업 수행의 어려움
- ⑪ 기타 (_____)

C. 건강

14. 귀하는 장애가 있습니까?

- ① 예 (장애명: _____, _____급) ② 아니오

15. 귀하의 신체적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좋다 ④ 매우 좋다

16. 귀하의 정신적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좋다 ④ 매우 좋다

17. 아래의 문항들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주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9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8. 귀하는 다음에 예시한 것과 같은 행동들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와 문화적 배경(출신 국가, 인종 등)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19.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에 가질 수 있는 느낌들”입니다. 각각의 문장을 읽고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주 그렇게 느끼셨는지를 해당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 항	극히 드물게 (1일미만)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②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③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④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①	②	③	④
⑥ 두려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⑦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⑧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⑨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⑩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0. 전체적으로,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행복했었나요?

0=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1	2	3	4	5	6	7	8	9	10=매우 행복하다.
----------------	---	---	---	---	---	---	---	---	---	-------------

21.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0=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1	2	3	4	5	6	7	8	9	10=매우 행복하다.
----------------	---	---	---	---	---	---	---	---	---	-------------

22. 아래에서 자신이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스트레스 받은 항목을 3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경제적 영역(생활비, 집세, 학비, 학원비, 병원비, 의료비, 주택마련비용 등)
- ② 인간관계 영역(친구, 선배, 선생님, 부모, 형제자매, 친척, 친구, 교수, 이웃, 동료와의 관계)

- ③ 신체적 영역(건강, 성문제, 만성 피로, 신체적 불편함 등)
- ④ 심리적 영역(외로움, 우울, 불안 등)
- ⑤ 가사생활 영역(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 집안일)
- ⑥ 일 관련 영역(일에 대한 불만족, 열악한 작업환경, 직업 불안정성 등)
- ⑦ 진로관련 영역(학업이나 직업선택과 관련된 어려움,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 ⑧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_____)

E. 주거

※ 다음은 귀하의 주거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26. 현재 살고 있는 주거 유형은 어느 곳입니까?

- ① 영구/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등 정부지원 공공주택
 ② 자립지원시설
 ③ 그룹홈
 ④ 전세
 ⑤ 보증금 있는 월세
 ⑥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등)
 ⑦ 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자기 집)
 ⑧ 고시원/고시텔
 ⑨ 친구집
 ⑩ 친척집
 ⑪ 부모님이 사는 집
 ⑫ 기숙사
 ⑬ 기타()

27.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없는 경우, 0원으로 표시함)

- ① 보증금 _____만원
 ② 월세 월 _____만원
 ③ 관리비 월 _____만원

※ 위 27번에서 친구집, 친척집, 부모님이 사는 집에 사는 경우,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기입합니다.

28. 현재의 주거비용 지출이 어느 정도 부담되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거의 부담되지 않는다
 ③ 약간 부담이 된다
 ④ 매우 부담이 된다

29. 귀하의 주거 위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지상
 ② 반지하
 ③ 지하
 ④ 옥상(옥탑)

30. 현재 살고 있는 주거상태 및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주거상태(방수, 난방, 환기, 습기, 방음상태 등)	①	②	③	④	⑤
주거환경(마트, 병원, 공공기관 등 접근용이성, 생활편리성)	①	②	③	④	⑤
주거구조(방, 화장실, 거실 등)	①	②	③	④	⑤
주거안전(방범창, 잠금장치, 사생활 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G. 자립 준비도

39. 다음의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곳에 응답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필요한 물건을 경제적으로 쇼핑하는 방법을 안다.	①	②	③	④
② 필요한 음식 만들기와 조리기구의 사용법을 안다.	①	②	③	④
③ 전기코드나 전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④ 세탁기 사용 때 옷 주의사항을 점검한다.	①	②	③	④
⑤ 감기나 간단한 상처의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⑥ 스트레스의 해결방법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⑦ 술, 담배의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안다.	①	②	③	④
⑧ 임신예방과 임신의 증후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⑨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⑩ 소득공제를 위한 면세, 감세 등의 저축방법을 안다.	①	②	③	④
⑪ 개인 신용의 중요성과 신용카드 사용 원칙을 안다.	①	②	③	④
⑫ 나의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⑬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⑭ 집을 이사하면 이후의 행정절차(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⑮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정보를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⑯ 긴급 사고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⑰ 결혼의 의미와 배우자의 책임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⑱ 부모의 책임과 부모 역할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⑲ 화를 내지 않고 나에게 대한 충고를 들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⑳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할 때 신중하게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㉑ 취업면접 시의 행동이나 기준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㉒ 직장인으로서 비전(목표)를 가지고 일한다.	①	②	③	④
㉓ 친구, 직장동료 등과의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안다.	①	②	③	④
㉔ 나의 기술영역이나 특정영역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찾고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 ④ 서비스 종사자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간병인, 네일 관리사, 웨딩플래너, 승무원, 주방장 등)
- ⑤ 판매 종사자 (도소매업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텔레마케터)
- ⑥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 동물 사육사, 정원사 등)
-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부, 목수, 배관원, 정비원, 세공원, 용접공, 수공예 근로자 등)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각종 기계 및 장치 조작 담당자, 운전기사, 기관사, 선원 등)
- ⑨ 단순 노무 종사자 (건설, 운송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배달원, 택배원, 경비원, 주유원 등)

48.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 ① 임금근로자(정규직) ② 임금근로자(비정규직) ③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가족근로자)

※ 정규직: 고용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무기한 고용계약인 경우
 ※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1년, 2년 혹은 그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임시, 일용직 포함)

49. 현재의 직장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 ① 매우 불만족(▶문49-1로) ② 불만족(▶문49-1로)
 ③ 만족 (▶문50으로) ④ 매우 만족(▶문50으로)

49-1. [불만족의 경우]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하는 업무가 힘들다
- ② 업무에 비해 급여가 작다
- ③ 동료나 상사 등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
- ④ 통근거리가 너무 멀다
- ⑤ 시간외 근무가 많다
- ⑥ 기타(_____)

50.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2	돈이 충분히 많다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내 직업을 정해주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4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좋다	①	②	③	④
5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7	나에게 맞는 학과나 직업이 무엇인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다	①	②	③	④
8	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9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1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2	내 장래 희망과 다르더라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14	학교 공부 중 어떤 것들은 나의 장래 희망을 이루는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5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16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7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8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19	내가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0	내가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1	지금 여러 직업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다	①	②	③	④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질적연구 질문지 및 동의서

A: 2017년-2019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은 보호종료청년

[도입 질문]

먼저 본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이름, 생년월일, 학력, 종교, 원가족 등.

1. 현재 생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직업, 소득, 교육/훈련,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 패턴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현재 가장 행복한 순간,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 현재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현재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과거 경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자립하기 전까지(보호종료 전에) 어디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 만 18세가 되어 자립하게 되었을 때 기분이나 마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 그 이전에 (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경험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자립한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3.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각종 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자립정착금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 자립수당은 언제부터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 자립수당을 포함한 국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의 생활, 귀하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 아름다운재단의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름다운재단의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 아름다운재단의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이 귀하에게 미친 영향(의미)은 무엇입니까?
- 아름다운재단의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은 나에게 000이다.
- 아름다운재단의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 아름다운재단의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 정부의 지원사업과 아름다운재단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 주위에 있는 다른 보호종료아동들을 볼 때,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B: 2019년 보호종료청년(아름다운재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참여자)

[도입 질문]

먼저 본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이름, 생년월일, 학력, 종교, 원가족 등.

1. 현재 생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직업, 소득, 교육/훈련,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 패턴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현재 가장 행복한 순간,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 현재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현재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과거 경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자립하기 전까지(보호종료 전에) 어디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 만 18세가 되어 자립하게 되었을 때 기분이나 마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 그 이전에 (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경험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자립한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3.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각종 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자립정착금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 자립수당은 언제부터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 자립수당을 포함한 국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의 생활, 귀하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구대상자 설명서(FGI)

연구과제명 :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본 인터뷰(초점집단인터뷰, FGI)는 대리보호체계에서 보호종료된 여러분의 실제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종료된 대상자들에게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자립경험에 대한 1회 2시간 정도의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하게 되며, 모든 면접은 귀하의 동의를 구한 뒤 녹음할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 무엇이었던지 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시면 모든 조사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인터뷰 참여시, 15만원 상당의 사례금이 지급되며, 향후 더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동의는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통합적·사회적 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자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2. 연구 방법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귀하는 자립경험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FGI)에 참여하게 되며, 반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으로 약 2시간 정도 1회기를 진행하고, 모든 면접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뒤 녹음할 것입니다.

3.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4.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5.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FGI(질적연구) 참여시, 15만원의 사례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6.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7.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학력 등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연구 결과물에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가 종결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것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 경제적 지원과 사회자본의 결합효과

발행처 아름다운재단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한찬희 이사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6

전화번호 02-766-1004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디자인/인쇄 제일문화사

이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